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연구

2006. 9

연구책임자 : 윤 여 송(인덕대학)

공동연구자 : 이 교 종(영진전문대학)

강 일 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지 연(한양여자대학)

안 정 근(김포대학)

연구협력관 : 김 혜 림(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이 연구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정책연구과제)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문헌 고찰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Ⅱ장에서는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배경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와 정책적 쟁점, 정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 전문대학 교육에서의 국제화 배경을 고찰하고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였다.

Ⅲ장에서는 국내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과 국내의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로는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사례로는 4년제 대학인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영진전문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인덕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152개 전문대학 중 설문지를 회수한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국제 협력 학제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교환 교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을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 국제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정과 비전정립

-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통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대학내의 국제화 업무에 대한 전문화 추진

- 국제화 분야의 업무가 적지 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도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 대학의 내부적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있어 양적 팽창이 이미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있는 지금 대학의 내부적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국제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 교수·학생의 외국어 교수·학습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I-zone이나 유학생 전용 기숙사 등 시설 개선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교과과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의 영문학위 명칭 및 대학 명칭의 통일화

- 국내 전문대학에 대한 외국대학들의 혼란 방지, 정부의 통일된 인증지

원의 원활화, 국제적 표준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영문학 위 명칭 및 대학 명칭을 통일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전문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의 개발

-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되고 전문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한국 전문대학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공동 홍보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 특성화된 전략학과 위주의 브랜드화 추진을 통한 마케팅 활동

-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와 같은 국제 공동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ollege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제빵, 패션, 디자인, 호텔 전문기술학교와 같이 고도로 특성화된 전략학과 위주의 별도 브랜드화 추진을 통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 ‘쉽게 올 수 있는 유학’에서 ‘갖춰진 학생이 올 수 있는 유학’으로 전환

- 많은 학생의 유치보다는 그 수는 좀 적더라도 확고한 학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
- 학생 불법 체류의 문제 해결과 유학생의 높은 유학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업료를 책정하고, 학비 체계를 고쳐 한국어 과정이 ‘준비된 학생’을 위한 문턱의 역할을 하고 본과 진학 후에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학생 국적의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 대학에서는 좀 더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유학생 국적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 유학생들에 대해 취업경로 구축과 같은 진로지도의 강화

-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학생의 진로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서,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고도 진로지도의 부재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귀국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학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 개발도상국 대학들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1+2, 2+1, 1.5+1.5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학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규 학위과정 뿐 아니라 비학위과정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

□ (가칭) 전문대학 국제교류 담당자 협의회의 설립

- 가칭‘전문대학 국제교류 담당자 협의회’를 설립하여 전문대학 유학생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호주의 IDP와 같은 조직으로 키워 나감으로써 전문대학 국제교류 사업 전 분야의 동반 발전을 꾀한다.
- 별도 협의회 설립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국제교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3.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

□ 유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교육부 차원의 유학 교육 인증 체계 확립)

- 유학생 유치 정책을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유

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유학생 교육환경 평가나 유학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학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학생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대학별 평가와 정부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인증 우수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사용, 대학별 차등 지원시 우선 지원 대학 선정, 정부 초청 장학생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 등을 허용해야 한다.

□ 학생·학점 교류의 활성화

- 국내외 학생들 간의 학점교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 전문대학들과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생에 대한 해외 인턴십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 전문화를 위한 외국인 직원 고용 허용

-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대학에 한하여 한정된 인원(대학당 1명 내외) 내에서 외국인의 계약직 대학 직원 채용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Gold Card 제도의 전문학사 학위 확대 시행

- Gold Card 제도를 확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대학에서 배운 직업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Gold card제도의 확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성적 이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 내외의 현장 실습(연수)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정부 초청 유학생의 대상대학에 전문대학 포함

- 개발도상국 학생들 중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도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 외국인 등록증을 대치할 유학생용 외국인 등록증 발급

- 교육부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전산등록 시스템 완료를 전제로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유학생에 대해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을 대신할 외국인 학생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별도영역으로 국제화 사업 지원

- 현행처럼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계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제화 사업영역을 별도로 추가하여 전공 분야와 상관 없이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고 특성화된 국제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문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강화

-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 법정화된 시설(기숙사, 어학원 등)의 확충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현행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전문대학 교환교수제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외국 및 국내 대학의 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외국의 교육제도와 대학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와 국내 전문대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database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 교육원조시 전문대학 교육 프로그램 참여 추진

- EDCF 기금 원조로 해외 직업 교육 시설 또는 직업 기술 대학 설립시 전문대학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해외 교육수출의 지원

- 아·태지역의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마련을 전제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을 통한 국내 전문대학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과 유학생 취업 우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현지의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job site를 구축하고 여기에 인력을 가진 대학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 해외에 직접 또는 현지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의 자율화

- 전문대학의 짧은 학제기간으로 인해 어학과정까지 포함하는 복수학위제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따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을 학교(학과)의 보유역량에 따라 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의 기대효과	5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4. 연구 방법	8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9

II.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배경

1.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와 정책적 쟁점	15
2. 정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	21
3. 전문대학 교육에서의 국제화 배경	27
4.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주요 요소	42

III.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분석

1. 외국의 사례분석	52
2. 국내의 사례분석	76
3. 시사점	109

I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현황분석

1.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115
2.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119
3. 국제 협력 학제 프로그램	169
4.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174
5. 교환 교수 프로그램	179
6. 분석결과의 요약	183

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192
2.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195
3.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	199

[표 차 례]

<표 II-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34
<표 II-2> 대학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요소	48
<표 III-1> 출신 국가별 호주 유학생 증가 추이	61
<표 III-2> 호주 내 직업교육과정과 타 교육 과정의 해외 유학생 변동 (2002~2005)	63
<표 III-3> 호주 내 학위과정별 유학생 수 증가 추세 (2005~2006)	63
<표 III-4> 호주 전문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 수 변화 (released July 2006)	64
<표 III-5> 국적별 외국인 학생 수 (2005년 4월 1일 기준)	77
<표 III-6> 단과대별 중국 학생 수	77
<표 III-7> 연도별 정규학생 증가 현황 (어학연수생 제외)	77
<표 III-8> 한양대학이 참여하는 유학박람회와 특징	78
<표 III-9> 2005년 국제프로그램의 개요 (학생교류 인원 및 파견국가) 86	
<표 III-10>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	87
<표 III-11> 연세대학교 학생교류 프로그램	87
<표 III-12> 연세대학교 국제교육 프로그램 및 특징	88
<표 III-13> 공과대학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	92
<표 III-14> 교수초빙사업 연도별 실적	93
<표 III-15> 2005년 외국대학 교류 관련 예산현황(교육부사업)	95
<표 III-16>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 IT 연수 추진내용	97
<표 III-17> 필리핀 대학 총장단 주문식 교육 연수 추진내용	98
<표 III-18> 베트남 호치민기술교육대학 교수 CAD/CAM 연수 추진내용	99

<표 III-19> 년도별 입학 현황	102
<표 III-20> 국가별 입학 현황	103
<표 III-21> 연계편입 협약 대학 현황	104
<표 III-22> 유학생 진로 현황	104
<표 IV-1> 분석 대상 전문대학 대학 현황	115
<표 IV-2>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6
<표 IV-3> 국제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	117
<표 IV-4> 대학 구조 조정시 국제교류의 영향	117
<표 IV-5> 대학 총 예산 대비 국제교류 예산 비율	118
<표 IV-6> 대학의 국제 교류 예산의 증가	119
<표 IV-7>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증가	119
<표 IV-8> 유학생 유치목적	120
<표 IV-9> 과정 및 학년별 유학생 인원	121
<표 IV-10> 유학생 졸업인원	122
<표 IV-11> 유학생 출신국가 분포 (어학연수생 포함)	123
<표 IV-12> 향후 3년간 유학생 유치 계획	124
<표 IV-13>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따른 영향	125
<표 IV-14> 외국인 유학생 주요 유치 경로	125
<표 IV-15>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시스템	127
<표 IV-16> 유학생 중 재외동포 자녀 비중	127
<표 IV-17> 교내 유학생중 재외동포 자녀비율별 어학과정 개설비율 ·	128
<표 IV-18> 재외 동포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	139
<표 IV-19> 향후 중국 출신 유학생의 유치전망	130
<표 IV-20> 향후 중국이외의 유학생 유치 유망 국가	131
<표 IV-21>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유학 설명회 개최 여부	132
<표 IV-22>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인터뷰 진행 여부	133
<표 IV-23>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 수준 (생활비 제외)	134
<표 IV-24> 정규 학위 과정의 등록금 수준 (국내학생 대비)	135

<표 IV-25> 유학생들이 현지에 지불한 수수료 수준 (등록금 제외)	136
<표 IV-26> 유학생의 외부장학금 수혜여부	136
<표 IV-27> 재학기간 중 학비 조달 형태	137
<표 IV-28>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학의 대응	138
<표 IV-29> 유학생 주거비용 수준 (식비 제외)	139
<표 IV-30> 한국어 과정 한 반의 수업인원 편성	140
<표 IV-31> 한국어과정 수업시간 편성	140
<표 IV-32> 한국어과정 강사진의 구성	141
<표 IV-33> 한국어과정의 수익상황	141
<표 IV-34> 한국어과정에서 수업외 특별 활동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142
<표 IV-35> 정규과정 진학에 필요한 적정 한국어 연수 기간	143
<표 IV-36> 한국어과정후 타 대학 진학 희망시 동의여부	143
<표 IV-37> 정규과정 유학생의 별도반 편성 여부	144
<표 IV-38> 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학과 존재 여부	144
<표 IV-39> 대학 기숙사 보유 및 유학생 수용 방법	145
<표 IV-40> 유학생 숙소의 형태	146
<표 IV-41> 유학생 국내 입국시 유학생 보험 가입 여부	147
<표 IV-42> 유학생회 또는 유학생 전용 동아리 활성화 여부	147
<표 IV-43> 유학생의 동아리 가입비율	148
<표 IV-44> 유학생의 만족도에 대한 대학 담당자 견해	149
<표 IV-45>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150
<표 IV-46> 유학생 졸업자가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의 처리	151
<표 IV-47> 진학 협약을 체결한 4년제 대학의 유무	151
<표 IV-48> 졸업 후 취업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152
<표 IV-49> 졸업 후 취업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	152
<표 IV-50> 유학생 추수지도 관련 정책지원 희망 사항	153
<표 IV-51> 유학생 관리상의 문제점	154

<표 IV-52> 교내 유학생 지원 조직 및 시설의 유무	155
<표 IV-53>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유학생 유치 방법	156
<표 IV-54> 한국 학생에 대한 파급효과	157
<표 IV-55> 한국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파급효과	157
<표 IV-56> 2005~6 각 대학의 유학생의 이탈 비율 분포	157
<표 IV-57> 유학생 이탈문제	158
<표 IV-58> 유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159
<표 IV-59>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어려움	160
<표 IV-60> 정부의 유학생 출입국 관리 정책에 대한 견해	161
<표 IV-61> 유학생 교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분야	161
<표 IV-62> 정부의 유학생 관리 평가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162
<표 IV-63> 유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내부 평가의견	163
<표 IV-64> 복수 학위제 대상 국가 현황 및 계획	164
<표 IV-65> 복수학위제 무관심 이유	165
<표 IV-66> 공동 학위제 대상 국가 현황 및 계획	165
<표 IV-67> 학생의 입장에서 본 공동학위제의 장점	166
<표 IV-68> 공동학위제에 대한 대학의 기대효과	167
<표 IV-69> 공동학위제에 무관심 이유	168
<표 IV-70> 공동학위제의 가장 큰 장애물	168
<표 IV-71> 복수/공동학위제의 전망	169
<표 IV-72> 저개발/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170
<표 IV-73> 학점교류 대상국가 현황	170
<표 IV-74> 학점교류 참여자의 만족도	171
<표 IV-75> 현지학기제 운영 지역	172
<표 IV-76> 현지학기제 참여자의 만족도	172
<표 IV-77> 현지학기제에 대한 향후 계획	173
<표 IV-78> 교환학생 교환 대상지역	173
<표 IV-79>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만족도	173

<표 IV-80>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입출국자 비율	174
<표 IV-81> 해외 인턴쉽 파견 대상 국가 (계획 포함)	175
<표 IV-82>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176
<표 IV-83> 정부지원 축소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의 운영	176
<표 IV-84> 해외 인턴쉽의 전망	177
<표 IV-85> 해외 인턴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177
<표 IV-86> 인턴쉽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178
<표 IV-87> 해외 인턴쉽 참여에 대한 장애물	179
<표 IV-88> 해외 인턴쉽 제도에 대한 개선희망 사항	179
<표 IV-89> 교환교수제에 참여한 내외국인 교수 현황	180
<표 IV-90> 교환교수 방문 상대 대학의 결정 방법	180
<표 IV-91> 교환교수 사후 관리 방법	181
<표 IV-92> 교환교수 기간 중 여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	181
<표 IV-93> 교환교수제도가 교수의 연구능력, 강의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182
<표 IV-94> 외국인 교환교수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역	182
<표 IV-95> 한국인 교환교수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역	183

[그 림 차 례]

<그림 Ⅲ-1> 호주 내 대학의 유학생 수 증가 추세	62
<그림 Ⅲ-2> 국가별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 및 해외 유학생 비율	62
<그림 Ⅲ-3>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 외국인 학생 관련 입시 흐름도 ...	80
<그림 Ⅲ-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핵심 요소	85
<그림 Ⅲ-5>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의 흐름도	100
<그림 Ⅲ-6> 말레이시아 유학생 학업 이수과정 모형	105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및 삶의 질 제고와 기업 및 국가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의 세계화는 선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국 학생의 직업교육으로의 유도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우선 전문대학의 위상을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더욱 차별화하여 글로벌화 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단계 및 2단계 ‘두뇌한국21(BK21)사업’으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직업교육분야의 국제화는 전혀 시도된 적이 없다. 직업교육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직업교육강국 한국 21(VK21)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국가 간의 인력이동이 증대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지구표준(global standard)에의 정합성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UNESCO와 OECD는 모든 학생들과 당사자들이 질 높은 고등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 고등교육기관들의 질 보장 체제의 도입과 운영을 권고하는 ‘국제 고

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5.12)을 제정하였다.

유럽 지역 국가들에서의 다자간 고등교육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볼로냐 선언¹⁾에서는 역내의 고등교육 이수 상호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의 질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WTO 가입국인 한국은 교육 시장의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의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교육시장의 개방은 잠시 피해 갈수 있는 듯이 보이나 이로써 운명적인 세계화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에서의 국제화는 아직 매우 초보적 상태이다. 같은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의 국제화 수준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다. 국제화가 주로 외국유학생 유치로만 한정되어져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2년제로 제한된 수업연한은 국제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의 외부적인 환경 영향으로 존립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진학인원의 감소와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과 같은 신종 교육기관의 출현은 전문대학교육의 존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 4년제 대학에서도 전문대학의 특화된 학과를 모방 운영하고 있어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블루오션 전략(Blue Ocean Strategy)²⁾으로 전문대학교육의 국제

1) Bologna Declaration, 유럽내 학점인정 시스템(European Course Credit Transfer System), 다양한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학생 및 교수의 이동확대를 위한 Erasmus, Erasmus 프로그램을 교육 전반에 확대한 Socrates, 외국어 교육 및 학습증진을 위한 Lingua,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Leonardo Da Vinci, 중부 및 동부 유럽을 지원하는 Tempus 등(김현택, 2005)

2) 블루오션전략(2005, 교보문고, 김위찬르네 마보안 p6)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부분 산업의 경우, 축소되는 시장공간에서 점유율 경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 기업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하여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한다.'

화 전략이 될 것이다. 국제화의 목적은 부족한 입학자원의 보완을 위한 유학생 유치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에서 국제화를 추진하여야만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은 내부혁신을 통하여 세계수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확립하여 공신력을 얻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수교류와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제 감각을 향상시키고 기술교육 뿐 아니라 문화 정치에 이르는 상호적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화를 전담할 전문인의 양성과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의 최종 학위는 준학사로 외국 기관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 불공정하게 교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국내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이 해외에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 준학사로 인정받아 유럽과 호주 등의 3년제 대학출신의 학사학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문대학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외국의 직업교육중심대학(Non-University)들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3-4학년과정으로 편입생 유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외국대학과의 학점이 상호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복수학위(Dual degree)뿐 아니라 공동명의학위(Joint degree) 취득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는 모든 국제화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환경은 외국학생의 유치는 둘째로 치고 우리나라 학생들마저도 외국 기관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는 학위수준의 향상 등의 넓은 차원의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제3세계에서의 한국기업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학생들에 어필할 수 있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을 갖춘 다양한 교육과정은 외국 유학생유치를 통하여 전문대학의 학생 인원 충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단발의 인원수급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근로자와 이주 부녀자들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흡수하여 이들의 국내생활 속에서 자기 발전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폭넓은 국제화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또 하나의 현실적 어려움은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에 있다.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하에 배출된 졸업생들은 급속히 변모한 우리나라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일자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합당한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산업 도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국에 고급기술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 노동시장의 요구를 전제로 한 준비된 교육과정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여 해외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졸업 후 취업난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대학은 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을 수립 실천하여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대학교육 국제화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전문대학이 부분적으로 수행해온 국제화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 모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겪어왔던 불합리한 여건들을 개선하고 교육시장 개방을 대비한 경쟁력강화, 해외입학자원확보, 해외취업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국가정책, 협의회를 통한 공동사업추진, 대학에서의 사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대 효과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 아래에서 위기에 처한 전문대학 교육활성화의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한다.

첫째, 세계화 시대 전문대학의 호혜적 국제교류를 통한 개념과 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세계화 및 국제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준으로의 전문대학교육 개선을 통하여 우수 산업인력의 양성과 아울러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업교육의 선진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중국에 한정되어 있는 유학생 유치 국가의 범위를 넘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전문대학의 근본 문제인 입학자원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전문 인력자원의 해외인력 수급을 통하여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직업 분야 인력이 특정국가로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고 선택적으로 시민권 부여하고 있음.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매우 적극적임. 간호 인력이 대표적 사례임)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필요성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

- 교육국제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전문대학 교육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 도출
-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필요성 분석
- 고등교육기관 국제화의 현황 분석
- 선행 연구 분석
-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연구 방향 제시

☐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 분석

- 외국사례 분석: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사례 분석
- 시사점 도출

☐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현황 분석

-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현황
- 국제 협력 학제 프로그램 현황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현황
- 교환 교수 프로그램 현황
- 시사점 도출

☐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관련 문헌 고찰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자료, 각종 관련 법규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교육지원사업 관련 자료와 외국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현황 분석을 위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의 전문대학에 배포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전체 152개 전문대학 중 총 73개로 약 4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의 내용은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현황,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국제 협력 학제/학위과정 관련 현황, 해외인턴십 관련 현황, 교환교수제 관련 현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 사례조사

국내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의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관찰 조사 및 운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분석도 실시하였다.

라. 전문가 회의 개최

연구 결과의 정책 현실화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 타진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연구 방향의 설정, 연구 내용의 선정, 각종 조사의 수행에 관한 사항, 국제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이정표(2005)는 각기 다양하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 주요국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및 개혁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안 문제를 검토하고, 고등교육 구조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연구중심대학 이외의 4년제 대학을 실무중심교육의 산업대학으로 전환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고, 연구 중심대학과 대비되는 실무교육 중심대학은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한 학위과정 및 자격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전문직업인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중심대학(Non-University)에서의 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전문대학교육 국제화를 위한 이론적 기저를 제공하였다.

김현택(2005)은 고등교육이 국제화되면 다음과 같은 산출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각각의 산출은 바로 국제화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상호이해 증진을 추구하는 순수한 형태의 국제교육 교류
- ②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 전문 인력의 특정국가 유입(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고 선택적으로 시민권 부여하고 있음)
- ③ 해외 유학생의 등록금 수입을 자국 고등교육기관의 예산 확보방안으로 활용(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등)
- ④ 해외 저명대학 모델을 토대로 국내 고등교육 인프라 보완, 대학의 역량 강화(싱가폴,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성공적으로 평가됨)

이병식(2004)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추진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는 바, 국제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① 교류: 학생, 교수, 행정직원의 교환, 연수, 외국교수 초빙, 국제회의 개최, 연구협력, 벤치마킹
- ② 교육프로그램: 국제학 전공(국제학부, 국제학대학원, 전공교육, 지역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해외분교 설치
- ③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Global lounge, Buddy, Event days, BBQ party 등)
- ④ 해외 자원봉사
- ⑤ 원격교육: 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 등

박응수 외(2005)는 국제교류 담당 전문인외국인 유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유학생 관리현황 설문분석을 통해 유학생유치현황 및 계획, 유학생의 유학비용 및 실태, 유학생의 교육프로그램, 유학생 생활환경, 유학생진로지도, 유학생 관리현황 등의 파악과 문제점 및 해결책 모색, 선진 외국의 유학생 유치정책 등을 탐구하여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실천적 방안 수립과 정부관련 부처가 수행해야 할 실천적 과제를 도출 하였다.

외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해 본 시사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학교당국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법적 보호에 의하여 유학생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과 합작 운영 또는 공동운영 등 자국 환경이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도 유학생유치를 위한 독창적인 전략과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유학생 유치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유학생 유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산학연관 간 학교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원의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치 환경변화에도 신속 정확히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제 실현을 위해서 학급별, 지역별, 전공별, 국가별 등으로 구분된 정부 및 개별 대학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한 정책추진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응수(2004)는 중국 시장이 세계최대의 유학생 수출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대학재정확보와 경제적 효과는 물론 대학국제화 및 중국 내 고급 네트워크 형성 등을 이유로 중국유학생 유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중국학생의 유학 동기로는 장래 한국기업취업희망(25%), 한국어 연수에 대한 기대(14%)등으로 나타나 현지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 및 향후 대학의 국제화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중국 내 인적자원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중국인 학생 유치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고 성공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하여 중국 실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중국교육시장의 needs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기성(2003)은 전문대학 교육의 세계화를 이루는 방법과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변화와 외국 전문대학 및 기업체의 인적 자원 개발 현황을 토대로 전문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적 자원을 개발방

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①글로벌 인재의 확보 및 육성 ②글로벌 기업문화구축 ③체계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 국제화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장기적 교류를 이루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언어와 문화의 이해중요성을 제시하였고 또 국내 전문대학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낭비적 요소의 제거를 피력하였다.

정진화(2002)는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방안에서 시장개방이 이미 세계적 추세인 교육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류 분석하였고 국내와 국외에서의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개방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시장개방의 긍정적 기대효과로 ①교육소비자의 후생증대 및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제고, ②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본격적인 국제경쟁체제도입은 국내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촉진, ③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입으로 해외유학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유학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수지개선효과, ④국제교류확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및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들었다.

부정적 효과로는 ①외국교육기관의 사회 인력수급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고학력실업의 악화 및 질 낮은 교육기관의 진출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인적자원경쟁력 저하 초래위험, ②우수 교육기관의 국내 시장 잠식에 의한 경쟁력 낮은 국내교육기관의 도태와 교육산업 기반 붕괴 우려, ③일방적인 국내진출 및 국내 교육수요 흡수로 인한 교육서비스 무역적자 확대우려, ④외국대학이나 학위 선호에 따른 국내 교육문화의 종속화 가능성과 과열 입학경쟁과 교육의 편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분야별로 득실을 따져 개방속도와 방법을 결정할 것과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회발전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남철외(2000)는 학생유치, 전문분야 국제교류 확대, 외국과의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원교류를 통해 국제화, 세계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자극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 단기적 국제교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고자 전문대학에서의 국제교류 현황 및 문제점과 주요국 전문대학의 교류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하였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의 제안사항으로 비자발급과 같은 행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법에 근거한 국제교류에 어려운 점 해소 등을 건의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학생과 교직원의 어학실력과 전공실력 배양고조, 외국학생과 국내대학간의 정보공유와 협의체 구성 등과 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상대대학선정 등을 학교 측에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교류현황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배경

-
1.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와 정책적 쟁점
 2. 정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
 3. 전문대학 교육에서의 국제화 배경
 4.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주요 요소
-

II.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배경

1.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와 정책적 쟁점

가.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대학교육과정이 개방되고, 원격교육을 통하여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학은 자기 학생만을 교육시키려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이 되어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국제화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른 국가의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자국을 떠나 타국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UNESCO의 예측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그 수는 500,000명이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는 1,500,0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UNESCO,1997). 미국이 이들 학생들 중 30%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이 타국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나라이다. 프랑스가 11%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며 독일이 10%, 그리고 영국이 9%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들 학생들 중 46%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왔으며 또한 이들 학생 중 63%가 영어를 쓰는 국가로 이동하였다. 호주의 IDP Education의 예상은 국제 학생의 수가 2010년까지는 2,750,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 학생들의 국제적인 이동은 대학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외국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한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제학생

3) Blight, 1995, p.9

프로그램은 대학과 그 지역에 다양성을 준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교수들의 연구를 이끌어 내기도하며 그 지역에 다양성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은 교수들의 연구를 이끌어 내기도 하며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다른 국제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을 짓기도 한다. 1990년대의 국제화는 국제학생 프로그램보다 그 범위가 더 크다. Knight(1997)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국제적 또는 다른 문화의 영향이 대학의 교수, 연구와 봉사에 통합되는 과정이다”⁴⁾라고 하였다.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 볼 때, 국제화라는 것은 국경이 없이 사람과 돈, 물건 그리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학생과 교수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국제화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로서의 원격교육의 내용이 국경 없이 그 나라를 드나 들 수 있다는 데 원격교육이 대학의 국제화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Knight (1997)는 국제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여러 나라의 정부는 지구적 경제와 사회에 헌신, 세계를 향한 개방, 지역과 세계를 위한 협조를 개발하려는 정치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교육의 가치를 서비스의 수출로 보며, 지역사회를 위해 국제적 또는 국제 문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개개의 대학으로 볼 때에는 외국학생들이 내는 납입금에 의한 재정적인 보상이 있다.

셋째, 대학과 기업, 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국제화를 위한 교육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교수, 연구, 봉사에 국제적인 차원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 제도의 질에 부가적인 가치를 주게 되는 것이다.⁵⁾ 국제적인 학문적 접근은 지역적인 편협성을 피하게 해준다.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대학교는 다른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들 간에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혹은 변화하는 현상에 대

4) Knight, 1997, p.8

5) Knight, 1997, p.11

해 이해하고 알게 된다.⁶⁾ 자국의 학생들은 국제적인 교과과정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국제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학생인구의 국제화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오며, 국제적 교환에 대한 요구를 일어나게 하며 자국의 학생들을 다른 지역과 세계에 대해 가깝게 한다.

해외 원격교육은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열린 원격교육은 네 가지의 국제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한 국가에서 개발된 접근이나 방법은 다른 국가의 제도에 순응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전략상으로 유럽연합은 열린 원격교육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원격교육 기관의 확장은 지방적이고 국가적인 것으로부터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넷째, 원격교육 자료나 접근은 짝을 이루는 프로그램(twinning programs)으로 사용되거나 해외 캠퍼스에서 사용된다.

정부가 원격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Daniel(1995)⁷⁾이 지적한 바와 같이 100,0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대형대학교(mega universities)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낮은 비용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것이다.⁸⁾

원격교육 기관의 영역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넓어져 갔다. 이 확장은 대학을 국제화로 이끈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가적이고 또한 중요한 요인은 근래에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국개방대학교는 국제 시장에 관심을 두어왔으며, 1994년에는 영국 밖에 있는 13,000명의 학생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유럽연합,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구소련 블록에 있는 학생들이었다.⁹⁾ 오늘날 그 숫자는 94개의

6) Knight and de Wit, 1995, pp.12~13

7) Daniel. J.(1995), *Mega-Universities and Knowledge Media: Technology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8) Daniel, 1995, p.17

국가의 25,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400개의 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에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세워진 영국연방 학습공동체(Commonwealth of Learning)의 구체적인 임무는 영국 연방국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원격교육자료, 전문성 그리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기관의 장기적인 목적은 영국 연방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나 영국 연방 안에 있는 어느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가능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은 유연 교육의 범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통적인 원격교육 모델은 격리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원격교육은 먼 대 먼 교수가 거의 없는 자료중심의 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 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캠퍼스에 올 기회를 가지며 그 때 캠퍼스에서 집중적인 수업을 받는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어떤 원격교육은 자료 중심적이었으나 다른 대학교들은 다른 모델을 받아들였다. 이 다른 모델에서는 학생들을 위성 캠퍼스의 시설에 하나의 클래스에 모아 놓고 원격화상강의(Video-conferencing)로 강의하는 것이다.¹⁰⁾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의 조합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그 지방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과 일초도 되기 전에 E-mail이나 위성 비디오의 연결로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구촌이 도래한 것이다. 정보의 지구촌 전달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전달되는 학습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정보기술과 원격통신은 학생들을 그런 학습경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제화에 기여하며 현존하는 원격교육 과목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¹¹⁾

9) Cunningham et al., 1998, p.30

10) Cunningham et al. 1998. p.24

11) Alexander and Blight. 1996

나.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정책적 쟁점

열린 학습과 원격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정책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의 문제, 교육 과정의 내용과 형태의 문제, 지적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학교육의 인정과 접근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

국제 학생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의 국제화는 관계가 있다. 학생 인구의 국제화는 연구주체의 국제화를 가져오며 광의의 국제화로 유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많은 외국 학생 인구가 있는 곳에 교수들의 전문적 책임성이 교과과정의 국제화를 가져오게 하며 경쟁적인 교환품목을 찾는 대학교는 교과과정이 국제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한다.

국제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학생이나 혹은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면접하는 것을 통해 혹은 다른 국가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인 내용을 교과과정에 수용 할 수 있다. 해외 파트너를 가진 대학교들은 직원의 국제교류를 할 수 있으며 파트너 기관과 새로운 생각이나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것을 교환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외국어 습득을 학위프로그램에 포함시키거나 해외 현지연구나 국제 봉사여행을 장려함으로써, 그리고 해외 교환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을 증진시킴으로써 더 국제화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교과과정의 형식을 가상 국제화(virtual internationalization)로 유도하게 된다.

(2) 지적종속과 대학의 세계화

대학사회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그 변화의 진행을 관찰하여 볼 때 역동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¹²⁾ 세계화는 촉진제로 생각되어 질 수 있으며 반면에 국제화는 반응으로 생각될 수 있다.

국제화라는 말은 중요한 요소는 국가들이나 혹은 문화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어떤 국가의 독특한 역사, 고유한 문화, 자원, 가치의 우선순위 등이 그 국가가 다른 국가와 갖게 되는 관계와 그 다른 국가에게 하는 반응 형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이나 문화는 국제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문화의 동질화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내적 상황에서 보면 세계화는 때로 그 나라의 정체성에 심각한 우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는 차라리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지지방 또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우선순위와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한 강하게 해줌으로써 세계화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고등교육의 세계화는 문화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국가들의 국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초국가적 개념인 것이다. 정보 기술이 때로는 위협적으로 세계화와 함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로부터 나타나는 우려는 국제적인 대학인정제도의 가능성이다. 증가하는 인적자원의 이동, 고등교육기관의 상호인정과 고등교육의 세계화의 요구는 각 국가의 제도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인정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정제도는 국가의 경계선에 걸터 앉아있으며 문화적 제국주의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세계화와 대비해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고등교육의 상호교류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가간, 국가의 제도 간, 인정제도 간 혹은 기관 간에 공동협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공동협력이 없이는 국제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12) Knight. 1997. p.6

(3) 국경 없는 교육으로의 접근

여러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요구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도 그렇게 범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21세기에는 범세계적 열린 원격교육제도가 생길 것이다. 그 제도는 반드시 공적 자금에 의해 세워질 필요는 없으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나 학생운동이나 학생이 택하는 코스나 학습자료, 성적 등을 방해하지 않는 공적자금으로 세워진 기관과 공동협력으로 일하는 창의적인 기업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 21세기의 이 같은 공동협력은 학생인구의 크기, 경제사정, 학습자 선택과 자율성, 일자리와 인적자원의 이동,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상호의존성과 보편성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

가. 대학교육의 국제화 정책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 대 중반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¹³⁾ 이전 까지는 주로 기관차원에서 필요에 의한 부분적인 교류차원이었다. ‘문민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었다.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도되어진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국제화 관련 정부 정책을 조사하는 것은 대학 및 대학원 교육에서 국제화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13) ‘문민정부’의 제1차 교육개혁안(1995년. 5. 31)에서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문민정부(1993-1998)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국제화에 관련된 방안으로는 ① 국제관련 전문 인력 양성, ② 외국인 유학생 정책개선, ③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④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 육성을 들 수 있다. 이 방안들 중 ‘국제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국제학부와 국제대학원이 탄생하는 모체가 되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 육성’은 다음 정권의 사업인 ‘BK21’사업의 기초가 되었다.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통해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를 주창하고 실천한 것은 ‘문민정부’ 고등교육 개혁의 성과로 볼 수 있다(서정화 외, 1998:428-457).

(2) 국민의 정부(1998-2003)

‘국민의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국립대학의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을 주로 하는 ‘국·공립대 1단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두뇌한국21’(BK21)사업이었다. 7년간 1조 4천억원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장기연수 2,330명, 단기연수 46,131명, 석학초빙 4,568명의 실적을 가져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6.5).

대학교육의 국제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공학인증원과 같이 공학교육을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고자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계속하였다. 대학원 교

육의 국제화 관점에서 BK21사업이 연구 분야의 국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 분야의 국제화에 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의 주요 대학에 국제대학원 설립을 유도하여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교육과정을 갖추게 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국제화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추진방식 이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깔려 있었다(신현석, 2006)

(3) 참여정부(2003-현재)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정부의 초반부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교조개혁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후반부 들어서는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2단계 BK21 사업과 법·경영전문대학원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조 30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지향적인 대학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2단계 BK21사업은 참여교수 및 학생의 국제학술지와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실적을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여 이에 대한 달성 여부를 실적평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성과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실적 및 계획’을 각 사업단에 부과하여 ① 대학원 개설 강좌중 외국어 강좌 비중, ②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 비중, ③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계획, ④ 국제학술대회 개최/참석 등의 실적 및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1).

‘참여정부’에서는 선진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국내 대학에 도입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상의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의해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한 외국대학의 학점이 상호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복수학위(Dual degree)뿐 아니라 공동명의학위(Joint degree)취득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수업방식·수업언어·운영주체 및 연계전공 등 모든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취지는 외국 대학의 우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함으로써 교육 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고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5.) 이외에도 ‘참여정부’는 국제적 전문평가 기관으로 설립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국제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고, 공학·의학 등 민간의 학문분야별 평가를 활성화하여 평가과정을 전문화하며, 평가에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뿐 아니라 평가결과를 정보공시제에 의하여 공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신현석, 2006).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으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12.)

전문대학 재학생을 위한 해외 인턴십 사업을 2005년부터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년 간 20억원으로 326명의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였다.

나. 정부의 개방 시나리오¹⁴⁾

교육부가 96년 7월 30일에 확정 발표한 ‘고등교육 부문 대외 개방계획’을 보면 97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의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을 허용하고, 98년부터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을 부분 허용하며,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학설립

14) 고태용(2000), 대학의 개방과 대응전략, 조선일보

을 더욱 확대하고 단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내외 여건상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국내 대학들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부문 대외 개방 계획안에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제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는 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UR 최종의정서에 서명을 했고, 이 의정서의 서비스 협상대상 14개 업종에는 교육도 포함돼 있으므로 방법과 시기와 범위만 남겨 놓았을 뿐 개방은 93년 12월 서명당시에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둘째, 세계화 전략 및 교육개혁 추진사업과 관련, 선진외국의 교육내용과 대학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국내 대학의 침체된 교육·연구 분위기를 일신하여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넷째, 10만 여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 수와 이에 따른 유학비용이 연20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당규모의 유학 대체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대학 진학문호의 확대 및 다양화로 대학 입학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앞서 언급한 개방의 순기능과 일치하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클로즈업시킨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만이 발생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개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3회, 세미나 1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이들 행사 참석자 대부분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4년제 일반대학을 우선 개방하고 전문대학 등은 개방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거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개방대

상은 그래서 교육법상 고등 기관인 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가운데 우선 대학으로 한정시켰다는 것이 교육부측 주장이다.

구체적인 개방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의 경우, 그 범위는 언어과정 등 개별과정, 단위 학과·학부설치 등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 등 일체의 교육활동이다. 다만 성인 대상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제외시켰다.

운영주체 허용기준은 국내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으로 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대학이고, 외국 대학은 평가인정기구가 없는 경우는 국가의 공인 또는 추천을 받은 대학으로 하였다. 이 밖에 운영 근거는 학칙에 반영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운영주체간의 역할 분담 또는 참여비율은 당해대학이 결정토록 하였다. 또 재정 운영방식은 교비회계 처리방식을 준수토록 하였고, 외국 대학이 국내의 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하였다.

이를 테면 일정수준에 달한 대학에만 제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허용함으로써 대학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수준이 낮은 외국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국내 진출을 차단하며, 재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정적 과급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외국대학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거, 학교법인에 한하기로 하였다.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의 대학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개인 및 상사 법인도 대학설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기준을 보면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한 설립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별적으로 설립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선별적’이란 표현에서 설립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설립을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지역별 허용 학교 수도 시·도별 1교씩으로 제한하였다. 이 인가기

준에는 기존대학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개방의 성과 및 국내·외 환경변화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허용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대학설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전문대학 교육에서의 국제화 배경

가.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전략

대학들에게 있어 대학교육의 대외개방은 이제 ‘발등의 불’ 만큼이나 화급을 요하는 대응과제이다. 당국이 비록 점진적·단계적·제한적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충격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국내대학들에게 결코려운 경쟁 대상이 새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련이 가중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개방 파고에 직면하게 되면 자칫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우리대학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OECD의 권고안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교육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의 문호확대를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어도 한국 교육이 OECD의 수준은 돼야한다는 전제아래 대학교육의 질, 대학의 교육 방법도 바꾸거나 개선토록 건의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에 기반을 둔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려면 한국의 대학졸업생들은 적어도 OECD 수준은 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외국어 교육, 학생·교원간 국제 교류, 외국인 교수 초청, 외국 교과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기술도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 대학의 연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

원금이 대폭 늘어나야 하고 일부 교수들은 상당기간 동안 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연구수행에만 매달려야 한다. 또 정부지원연구기관 등 여타 연구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교수·연구원간, 교육부와 과학 기술처, 대학과 기업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OECD는 대학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복수전공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기계적인 평가방법을 개방적 시험방법으로 고쳐야 한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이동이 쉬워야 하고 훈련 이수기간을 교육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대학 간 학점인정도 쉽게 해야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훈련방법이나 전자우편 원격교육 등을 도입해야 한다. '93년 현재 4년제 대학 교원 18%, 전체대학의 교원의 14.6%가 학사학위 또는 그 이하의 교육수준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 대학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교직원·교육과정·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 같다.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거나 프로그램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대학의 경우,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될 외국의 대학들이 어떤 수준이며 우리 대학에 비해 뛰어난 교육기술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파악한다는 것은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교수 개발프로그램의 경우 미국대학들 중에서도 연구중심이나, 교육중심이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위권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미시간대, 일리노이대 등 연구중심 대학들은 부설기관인 연구개발부나 단과대학 단위로 설치된 교수개발센터의 주도로 '교수'보다는 '연구개발'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 기법, 연구 지원신청 관련절차, 협동연구의 효율성, 대학 내의 자원 활용방안, 대학 내의 교육자원의 효율적 연계방안, 전공 영역별 외부 지원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현황, 국가기관과 지역정부의 중점사업과 정책방향, 컴퓨터 관련 내용, 대학 내의 연구소의 활동 등이 포함된다.

교육중심 대학들은 각기 독특한 교수프로그램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수와 강의 기법 개발 및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치중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주 단위, 또는 몇 개의 주 단위로 대학 간의 교수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방에 대비한 대학들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이어야 하겠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론으로 말해 때는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치중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첫째, 구성원 즉 대학인들이 개방의식을 확고히 갖추고 이에 대비토록 하는데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조직이나 기구를 이끄는 것은 사람이고 따라서 그 성패 역시 사람이 좌우하게 마련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고 따라서 그 성패 역시 사람이 좌우하게 마련이다. 대학을 이끄는 사람은 교수다. 그런 만큼 교수들부터 달라져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거나 반발하는 교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교수들은 아직 개방에 대비한 대응자세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둘째는 대학 경영의 혁신이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 대학들의 경영체제나 경영방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상당수 대학이 ‘닫힌 세계’에서 ‘열린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대학총장이 학교 발전기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회전의자에 앉아서 권위를 자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경영인으로서 일선에 직접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학경영의 민주화·자율화·효율화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의 전문화, 행정권한의 분산, 자율적인 재정확보 체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법의 도입 및 개발을 부단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수방법의 개선이다. 우리대학의 교육과정은 매우 경직돼 있고, 그 내용은 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교수방법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고 이에 따라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특히 통신매체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한 다중매체 교육방법,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등을 집중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넷째, 대학재정의 확충이다. 우리 대학들의 재정이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종래에는 폭발적인 교육 수요와 대학인들의 자구노력 등으로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해 왔지만, ‘개방 이후’에도 빈약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재정확충으로 대학의 제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국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체적으로 기부금 유치, 재단 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등록금 인상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밖에 없다. 빈약한 재정 상태를 방치하면서 대학교육의 질만을 강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등록금을 올리려는 대학측의 재정 확충계획과 학생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긴 하지만, 우리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대학의 질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의 문제를 고려해 성적보다 가정형편에 바탕을 둔 장학금의 확충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들이 대내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공조체제로 대응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할 외국의 대학들은 초현대식 시청각 기자재와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교육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그리될 때 우리 대학들 대부분은 경쟁력의 열세로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대학들이 공동전선을 편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며 개방물결에 대응하게 된다면 개별적인 상태에서 대응할 경우에 비해 몇 배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학시장의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일대 시련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는 의외로 쉽게 선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¹⁵⁾

15) 김우중(1993), 한국대학의 국제화 교육 방안, p.111

나.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교육의 수준이 세계 다른 나라의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 대등한 기반을 갖추어, 우리가 개발한 전문대학 교육내용·방법·교육과정 등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세계의 직업시장에서 전공 분야의 지식·기술을 소유하고, 더불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제도 등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 내용, 방법, 교육과정, 시설, 교수진 등과 비교해 볼 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는가? 물론 학교에 따라 특정 전공 분야는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외국의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 비교해 보아도 경쟁력이 있는 전공 분야도 있을 것이다.

2002학년도 전국전문대학편람에 수록된 정보를 단순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의 전문대학 중 70%에 가까운 110개 대학이 외국의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의 내용을 보면 대개 교수교환(교환교수제), 학생교류(전공학습 학생의 교환, 어학연수 학생의 교환, 학생의 작품교류전), 교수 공동연구(교수의 학술활동), 정보교류, 교직원 교류 등이 주요 분야로 나타날 만큼 영역이 아직 다양하지 않고 또한 교류의 내용도 부실한 상황이다.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류의 수준과 내용의 질적인 측면, 다양성, 상호 호혜성 등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성적인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인력자원을 세계 각국으로 진출시켜 우리의 것을 세계에 전파하고 이식하는 방법과 반대로 세계 각국의

인력자원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우리의 것을 배워가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학생 자원이 우리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제화’의 실천이 가능한 교수진 확보, 우리나라보다 앞선 국가의 교육내용, 방법, 교육과정에 익숙한 교수진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신대식, 2002)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학생교류, 교환교수 및 교수의 학술활동 등을 살펴 볼 때, 유관 교육기관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학생 자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의 학생자원보다 숫자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진출하는 인력자원의 경우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의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문대학 교육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 진출에 초점을 둔 인적 교류이든지 국내 유입에 중점을 둔 인적 교류이든지, 공히 이러한 교류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의 확보와 이러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국제 감각이 있어야 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의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협상기술, 의사소통능력 등이 뛰어나야 한다.

둘째, 외국의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의 구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학생이 매력을 느낄만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수요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과목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고, 외국의 학생이 접근 가능한 정보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국제업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70% 가까이 되는 대학에서 국제교류 진흥을 통한 인력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상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가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 체결을 실적으로 삼는 과시형 자매결연을 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⁶⁾

다. 전문대학의 국제화 SWOT분석

SWOT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reat) 요인의 약어로서 한 기관 및 제도가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 및 전략을 찾기 위한 차원에서 수행되는 분석 틀이다. 즉 내부 환경으로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요인으로서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내적인 요소와 4년제 대학과 외국 대학들의 외부 요소를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 같은 환경 분석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국제화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국제화교육체제의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I-1 참조).

16) 이기성(2004),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력자원개발, p.2

<표 II-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를 위한 SWOT 분석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발전과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유학생 관심도 증가 정부의 해외교류 관심도 증가(study korea 프로젝트) 청년실업의 심각화에 따른 직업교육 및 해외 취업 관심도 증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대학교육 국제화 요구 증가 산업체에서 국제화를 위한 인력개발 요구 전문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미충원률 증가로 전문대학 경쟁력 및 인지도 하락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입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 참여 4년제 일반대학 중심의 국제화정책 추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기능/기술근로자 확대 국가의 경직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동남아 유학생의 학교 이탈 불법 취업 호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해외유학생 적극 유치 전략 	
	강점[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중심의 실용학과위주로 구성되어 선호도가 높음 4년제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아 변화가 용이함 산학연계 교육경험 축적 및 높은 취업률 보유(산업사회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 전문대학 대부분이 사립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기간산업 인력 공급 중심대학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학과의 요구 조사와 개발 외국 산업체의 고용 조건 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반영 국내 산업체의 국제화 인력 요구 수준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화를 위하여 전문대학 내부적 혁신과 직업교육 특성화를 강화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직업교육체제의 미비 준학사 학위과정으로 유학생 기피 및 외국과의 불평등 교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역할과 정체성 미비 직업교육의 현장성 미비 해외교류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의 부재 국가 지원체계의 부재 중국유학생 유치 등 극히 제한된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학생의 적극 유치로 입학자원 확보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외국 직업중심대학들과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위한 장점 강화 전략 국내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국제화 전략 수립 유학생 관리와 국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분야의 국제화 교육기관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수업연한 자율화를 통한 완성형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다양화 실시 기업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한 전문대학의 퇴출을 지원하여 전문대학 질관리 및 위상 확립 전략 외국 유학생의 적극 유치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의 개선 추진 직업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시스템 운영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하는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전략 	

(1) 외부 환경 분석(기회, 위협)

(가) 기회 요인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하기 위하여 당면하고 있는 외부 환경 중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70년대 이후 2000년대에 걸쳐 눈부신 경제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경제성장을 벤치마킹하고자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된 성장 동력중의 하나가 뜨거운 교육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한류 열풍은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호감이 가는 국가로 인식되어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제조업 중심의 공업계, IT계열 및 문화 산업 분야 등이다. 특히 중국도 그동안 학문 숭상의 사회적 배경으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제조업의 급부상으로 중간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이 한국의 전문대학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둘째, 최근 정부에서도 해외 유학생의 유치 등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BK21 사업은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대학원의 국제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6년에는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급기야는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셋째, 갈수록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자가 늘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이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싼 인건비를 찾아 떠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인력 공동화 현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업체의 진출과 함께 우리의 인력도 해외에서의 취업시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 현지 협력업체 등 외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

넷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직업교육기관의 국제적 진출 가능성이다. 최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해 대외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는 교육의 국제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국제화의 당위

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올바른 가이드라인과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가속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외국어 실력 등 최소한의 국제적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문대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육환경을 타파하고 생존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의 경쟁과 외국대학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대학자체의 경영혁신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위협 요인

한국 전문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 환경 중 국제화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미충원률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입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문호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 전문대학 등이다. 이 같은 추세로 계속 진전될 경우, 직업교육 전반의 퇴조와 전문대학의 해외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양적 확대에 목표를 둔 직업교육 환경에서 외국의 우수한 직업교육기관이 국내 시장에 들어 올 경우 국내 직업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도산될 위협에 놓일 수 있다.

셋째, 4년제 대학들의 직업교육참여가 위협요소중의 하나이다. 해외로부터의 유학생도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같은 전공의 유학이라면 이왕이면 4년제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어서 전문대학은 불법 위장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의 비자 제공기관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넷째,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층 실업 대책과 국제화 정책을 직업교육 부문보다는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BK사업이나 산학연계 지원

사업 등이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 외면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기능 및 기술인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200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한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정식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및 숙련기능·기술인력의 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되고 포기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여섯째, 국가의 경직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가 위험요소가 된다. 유학생 유치 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사증의 발급의 기준이 까다롭다. 학생의 비자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비자발급의 문제는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곱째, 최근 호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가 매우 적극적이다. 자국의 국위 확보와 경제적 수입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부에선 유학생 유치 실적에 따라 대학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생 유치가 매우 적극적이다. 과거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같은 준학사 수준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석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된 각국의 Non-University 들에서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2) 내부 환경 분석(강점, 약점)

(가) 강점 요인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국제화교육의 강점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은 출발 때부터 직업교육에 대한 목적을 두고 왔기에 모든 구성 전공 및 학과가 취업을 위한 실용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교육의 국제화에선 4년제 대학과 외국의 대학들에 비하여 강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기에 공업계, 간호·보건계, IT계열 등은 타국의 이 분야 교육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

둘째, 전문대학의 규모가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작은 편이므로 구조조정 등 변화가 용이하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국제적 수요에 민첩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여겨진다.

셋째, 전문대학은 그동안 산업인력수요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주문식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등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의 차이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도가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체의 주문식교육의 성과에 대해 산업체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정태화 외, 2005). 또한 전문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이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핵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전문대학 법인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사립이므로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대학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와야만 생존할 수 있으므로 소모적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국립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대학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인력 공급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기계, 건축·토목, 전기·전자, 화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전문직업기술 인력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문대학이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화 추세와 연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심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 이것을 강조하면 이 분야 국제화교육에서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앞장서야할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약점 요인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국제화교육의 약점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미비를 들 수 있다. 교육체제 내에서 개인의 전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개인적·국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

타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들이 상위과정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편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가 준학사이기에 기피하는 유학생이 많다. 이들도 이왕이면 유학 와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에서의 직업교육도 학사과정으로 이루어지기에 유학 대상국으로 한국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문대학들을 꺼리거나 격하된 가운데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역할과 정체성 미비를 들 수 있다. 현재 직업교육의 목표나 방향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수준별, 영역별 차별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년제 대학들의 직업교육참여는 전문대학교육 영역의 잠식으로 볼 수 있으며, 정체성 자체를 혼드는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의 현장성 미비를 들 수 있다. 현재 전문대학은 산업계의 수요나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산업계의 직업교육 참여가 매우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현장과의 연계도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교육의 현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해외교류를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단위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 국제교류를 해왔다. 전체적인 전문대학 국제화를 위한 조직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대학 내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할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어 영문 제증명발급부터 교류협정의 체결, 유학생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와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 2005년 첫 시행된 해외인턴사업은 이러한 갈증을 증명하듯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외국에서의 국가지원과는 대조적이다.

일곱째, 그동안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그 범위가 중국유학생 유치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 그나마도 잦은 교육현장 이탈로 부정적 이미지를 국·내외에 주고 있어 전문대학교육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라.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한국 전문대학교육 국제화 방안을 위한 SWOT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도출하였다.

(1) SO(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첫째, 해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학과를 조사하여 학과 개설에 적극 반영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계, IT계, 간호·보건계의 전통적인 학과와 한류와 연관된 문화산업의 학과를 적극 개발하여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운다.

둘째, 외국 산업체 및 국내의 해외현지 법인의 고용조건을 조사하고 전문대 졸업생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셋째, 국내 산업체의 국제화 인력 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정규 수업이외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넷째, 전문대학교육의 수준이 국제적일 수 있도록 내부적 혁신과 직업교육의 특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ST(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첫째,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이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유치 전략을 협의회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한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공동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해외 대학 전시회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호주 일본, 영국 등 경쟁국들 Non-University 들과 비교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 전문대학의 장점을 발굴하여 이를 극대화 한다.

셋째, 전문대학교육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여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국제화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넷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며 비자 발급과정의 개선과 졸업 후 국내외 취업이 바로 가능하도록 한다.

(3) WO(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첫째, 전문대학이 직업교육분야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수업연한 자율화를 통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직업교육을 시행하며 동시에 학사학위도 수여하는 전문대학으로 발전하여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마케팅개념을 도입한 유학생 유치 전문기관과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한다.

(4) WT(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첫째, 입학생 감소에 의해 부실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질 높고 특성화된 직업교육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나갈 수 있는 전문대학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지원하고, 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 한다

셋째, 전문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증체제를 도입한다.

넷째, 대학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국제화 공동업무를 추진한다.

SWOT 분석을 통해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실천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발전 전략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셋째, 정

부의 지원 및 제도 정비 방안이다.

4.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의 주요 요소

지금까지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영역들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동향과 정부의 국제화 추진정책, 정부의 교육시장 개방화 정책, 전문대학에서의 국제화 방향, 전문대학 국제화 측면에서의 SWOT분석 등에서 전문대학교육 국제화를 추진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용주 외(2001)는 국제화의 주요 요소를 원천요소와 일반요소로 구분하였다. 원천요소란 매우 중요한 것이나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요소로서 대학경쟁력을 말한다. 일반요소는 대학교육 국제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별 대학이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서 국제 교육의 인프라(infrastructure), 국제화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인적 요소(human resources)를 가리킨다.¹⁷⁾

학부 수준 교육의 국제화 특성 중 하나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점으로서 (이용주 외, 2001) 이른바, 원천요소인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궁극적 목적인 국제적 인재 양성은 점진적이면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인적교류, 교육프로그램, 국제무대 인력 양성의 순서로 초점이 두어진 바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또 교수, 학생, 일반인들에게 국제화는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이면에는 문제와 갈등적 측면, 정치적 속성

17) 일반요소의 현황 조사 지표로 국제교육 인프라의 경우 ① 국제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 담당 기구나 부서의 설치, ② 국제화 관련 기구나 부서의 수행 업무, ③ 외국인 학생의 관리 및 지원, ④ 대 외국인 학생 홍보를, 국제화 프로그램 지표로는 ① 상호학점인정제도, ② 외국대학과의 강의 교류, ③ 외국어 강의, ④ 외국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 ⑤ 국제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인적요소 지표로는 ① 국제 관련 담당 부서/기구의 직원 수와 훈련 정도, ② 외국인 교수(강사) 채용 여부 및 구성, ③ 교환학생 파견 여부 및 구성을 제안하였다. (김혜숙, 2006년, 학부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에서 재인용)

도 내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다양한 시각을 종합할 때 대학교육의 국제화의 의미 혹은 개념이 내포하는 바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김혜숙 2006).

①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쌍방향 인적교류 확대

한국 학생의 해외 유학·연수(out-bound)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한국 유입(in-bound)이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영어 사용 강좌, 국내외 대학간 학점 인정, 학위 및 자격증의 국제화, 분교 설립 등을 말한다.

③ 국제무대 활동 인력의 양성

국제학부, 지역학, 전공학과 등을 통하여 외국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학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는 본질적으로 학부교육의 국제화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목적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본적인 전문대학교육의 위상 강화와 국제적 수준으로의 교육내실화 제고 문제 등이 방향에 추가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와 추진 요소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교육 내적 역량의 강화

전문대학 교육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전문대학(non-university)들과 국내 전문대학의 현실을 비교하여 약점과 강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약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교육의 내실화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공교과의 수업시간이 외국의 교육기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축제, 체육대회, 중간고사 등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운영으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어 내실 면에서 외국 교육기관과의 격차가 심하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학습 관련 수업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전공교과의 내용 및 수준, 수강생수 등이 적절하지 않아 대다수 전공과목의 수업 행태는 대부분이 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수학능력 부족 현상과 맞물려 대다수가 전공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사 운영에서 유연성과 자율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대학 중앙집중 행정이지만 외국 대학은 학과·학부에 인사 및 재정 등 많은 권한을 주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전공영역별로 사정이 서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과 유사한 전통적인 학과·학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 많은 고등직업교육기관들에서는 모듈식 전공코스제 운영하고 이질적인 전공을 융합하여 새로운 직업교육 영역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영+무용, 토목+영어, 생물학+음악 등 다양한 전공 융합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육의 출발은 비교적 외국에 비하여 늦지 않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의 빠른 경제 성장과 전문대학의 성장은 동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전문대학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문식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중 제일 앞서가고 있다.

둘째,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수하다. 우선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캠퍼

스는 외국의 외국대학들의 시설 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외국의 많은 전문대학은 캠퍼스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복수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또한 교육을 위한 실습 시설이 우수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계 전문대학 육성 정책으로 많은 국고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IT학과, 건설관련학과 등에서의 시설은 외국 기관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교수의 현장적응성 등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어떻게 외국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위수준이 매우 높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수는 자격 및 호봉에서 4년제 대학과 이미 단일화가 되었다. 이러한 교수진들은 상위 수준의 직업교육도 가능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국제화를 위한 전문대학의 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나. 쌍방향 인적교류의 확대

먼저, 학점교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전문대학들은 많은 해외 전문대학들과 자매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외국 전문대학들과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외 학생들 간의 학점교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전문대학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1999년 12월에 신원보증서 폐지, 재정입증서류 간소화 및 표준입학허가서 보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유학생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출입국 절차 등의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입학허가서에 보면, 전문대학이란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는 전문대학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에 전문대학 항목이 명시되어 출입국시 간소화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내 전문대학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국내 전문대학이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와 전문대학의 교육에 관하여 연구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전문대학 및 기업체 등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 네트워크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국제교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들이 국제교류를 실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대학간 컨소시엄 협력체제 운영, 전문대학간 전문가 풀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법정화 된 시설의 확충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소수의 정부 장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의 운영자금이 학생의 수업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들이 사립학교라는 점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유치한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정부가 일부보조해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제교류기금의 조성이 선행되어

야 한다. 또한 자비 유학생을 위한 수업료 감면, 강의조교 또는 연구조교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제무대 활동인력의 양성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리제이션의 기초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즉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언어능력을 키우는 일에는 우리의 것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어 관련 전공과 다른 전공과의 학제 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인력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여 이질적 문화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외국으로부터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전문대학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인력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외국 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 개발이 덜 된 분야라든가, 유행이 지나간 분야를 다시 찾아내어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글로벌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하고, 국제교류가 가능한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간의 교육을 받을 정도로 학문적 깊이를 요하지는 않지만, 수개월간의 단기교육으로는 전문성을 충분히 함양하기 어려운 분야를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이 국제화하는데 장벽으로 인식하는 부분, 즉 ‘재정적인 어려움’, ‘전문 인력의 부족’, ‘학교 당국의 국제화에 대한 준비 소홀’ 등

에 착안하여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직접 해결해야 할 분야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담체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산하에 두고 있는 유관 연구기관 내지 관할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위치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 국제화 교육 관련 교양과목, 국제 홍보활동,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대학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요소

분석기준	상세기준	대응일반요소
국제화교육을 위한 기구, 시설 및 이용도	국제화 교육 혹은 국제교류 및 협력담당 기구나 부서의 설치여부 및 계획 국제교육원 혹은 어학원의 설치 유무 및 계획 국제 전산망과의 연결 및 이용도 국제적인 영상회의 시설 유무 및 이용도	국제교육의 인프라
도서관의 외국도서 및 자료	도서관 소장 외국서적 수 도서관 구독 외국 학술지 종수 외국어로 된 홍보용 자료 외국어로 발행하는 학술지 종수	국제교육의 인프라
국제협력 프로그램	외국대학과의 상호학점 인정 외국대학과의 강의 교류 외국 대학 혹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국제 학술행사의 개최	국제화 프로그램

	기타 국제협력 프로그램	
교수 및 행정직원	교수의 외국 학술지 게재 논문수 교수의 외국 학회 참여 교수의 외국 연구 프로젝트 참여 교수의 국제 단체/기관운영 참여 교수의 해외 교환/파견/교류 외국인 교수 유치 계획	인적요소
학생	재학생의 해외파견/교류 외국인 학생 유치	인적요소
교육과정 또는 교육프로그램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 국제화 교육 관련 교양과목 국제 홍보활동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제화 프로그램

마. 교육 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향후 전문대학 교육 및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같은 교육 선진국의 많은 대학교에서의 교육을 늘 주시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이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외국 대학들과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열린 원격교육에 해외 캠퍼스 전략은 고등교육 국제화에 있어서 필수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술을 통해 국경 없는 교육을 넓게 퍼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격교육을 통한 선국교육문화를 전문대학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직업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요구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의 공동협력이 필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은 그렇게 범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21세기에는 범세계적 열린 원격교육제도가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은 원격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 나라일수록 교육을 발전시켜나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Ⅲ.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분석

-
1. 외국의 사례분석
 2. 국내의 사례분석
 3. 시사점
-

Ⅲ. 대학 교육 국제화 사례분석

1. 외국의 사례분석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생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제화’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화’이지만 21세기의 국제화는 이전 역사적 상황과는 달리 다차원적인 변화를 동반한 역사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의식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개별 국가의 내부 고착성을 뛰어 넘는 국가 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나아가 세계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곧, 국제화의 조류는 개별 국가에서 능동적인 자기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도태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진화론적인 경고 또한 보여주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이제 세계는 국제화의 거친 파고 위에서 개별 국가 나름대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산성과 그것의 원천이 되는 내부요소들이 유기적 연관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요소는 사회 각 부분의 인적·물적 자원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신장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제고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육 개혁 방안을 속속 발표하면서 국제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북경대학은 지난 5월 개교 105주년을 맞아 ‘교수 초빙 및 직무승인제도 개혁안’을 통해 교수사회에 철저한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전격

발표했고, 이는 사회주의식 평등교육에 안주했던 중국 대학이 철저한 시장주의 원리를 수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은 북경대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학문 연구나 기술 개발에서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하에서 학문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철저히 연결시키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중국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만대학을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아시아 지역 교육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면서 GDP의 3~5%를 교육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을 천명했으며, 말레이시아도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면서 연간 1조 5백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¹⁸⁾

전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기 전에 가까운 아시아 주변국만을 둘러보아도 대학교육개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히 달성할 과제이다. 전면적인 국제간 교류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교육시장의 개방은 이제 곧 시행될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 여건변화는 국내 환경 변화에만 치중한 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국제적 교육 환경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교육개혁은 국제적인 시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가. 중국

(1) 중국 교육의 국제 협력 및 교류 현황

18) 교육정책포럼, ‘경쟁력 국제화로 승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1978년 이후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의 실시에 따라, 교육의 대외 개방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학 업무도 발전하여 중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점차로 증가하였고, 국제 학술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의 대외 교류를 통하여 외국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였고, 중국의 교육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중국과 협력 국가 간에 상호 이해와 우의가 돈독하게 되었다.

20여 년간 중국은 세계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그 수가 약 32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 각국 160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한 각 분야의 유학생 수는 34만 명에 이르렀다. 외국에서 재직하는 학자 및 전문가는 800명이고, 초청된 외국 전문가 및 학자는 4만 명에 달한다. 중국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학자 및 중국으로 요청한 국제학술회의 참가자는 11,000만 명이다. 1996년 중국은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파견한 각 분야의 유학생 수는 1만 여 명에 이르고, 267개 대학에서 160개 국가와 지역에서 33,000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장기 혹은 단기로 중국에 유학을 왔다. 각국에서 양성하는 과학기술, 문화 혹은 통역인재를 돕기 위하여 30여개 중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에 중국어 교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각국에 파견 연수 혹은 단기강좌의 강사를 파견한 교사 수는 5,000여명이 넘는다. 중국 대학은 1년에 3,760여명의 외국 전문가를 초청하고, 외국 전문가 및 교수가 중국에 와서 강의를 담당한다. 1996년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학자는 2,099여 명에 이르고, 참가한 국제학술회의 수만 해도 1,316여 회에 이른다. 중국 대학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140여 회, 중국의 초청을 받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학자 및 유관 인사는 5,000여명에 이르고,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체는 130여개이다. 중국의 대외 교육 지원사업도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단순한 학교 시설에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지원하게 되어, 학교 운영 방식을 지원하며, 운영상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들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여 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 조직이 중국 교육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한 것

이 양호한 성과를 가져왔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기구로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아동기금회, 인구기금회, 개발계획국, 세계은행 및 기타 국제조직이 있었다. 세계은행은 중국 교육 발전 항목으로 미화 14.7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기타 국제조직은 지원금으로 미화 총1억 달러 이상을 제시하였다. 최근 홍콩, 하문, 대만 지역은 중국 대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으며, 교육 교류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http://moe.edu.cn/edoas/website18/info4009.htm> ,中國教育發展概況)

(2) 중국의 외국과 학교 합작 경영

《중외합작경영조례¹⁹⁾》 및 시행령 공포이래로 중국의 개방 확대, 설립 규범, 법적 관리, 발전 방침의 지침 촉진 하에 중국은 외국과 합작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규범에 의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다 나은 중외 합작 경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면한 중외 합작 경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중국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외 합작 경영에 있어 공익성의 원칙을 견지한다.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숭고한 사회공익사업이 근본 목적이다. 교육 서비스는 무역이 아니며, 일반 서비스 무역과는 다르기에, 중외 합작 경영의 취지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외 합작 경영을 빙자하여 고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교육 산업화의 경향을 철저하게 방지, 제지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 경영, 규범 관리를 견지한다. 정치적 민감성, 교육 주권 의식 수립의 견고, 국가 안전의 유지, 사회 안정과 교육 질서의 정상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외 합작 경영자, 중외 합작 경영 기구와 교사, 학생의 합법적인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중외 합작 경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19) 中外合作辦學條例

교육기구의 주도적 지위를 강화하도록 주의하며, 중국의 교육 방침 관철을 견고히 하도록 한다.

셋째, 우수한 교육자원을 도입하도록 하여 능력 향상의 정책 방향을 강화한다. 중외 합작 경영을 실시하는데 있어 국가, 지방 및 지역 경제 발전이 각종 인재의 수요 및 학교 학과 개설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중국 내에서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 미약하거나 공백이 있는 학과 영역과 외국의 수준 높은 대학 및 우수한 학과를 구비한 학교와 합작 경영을 실시하도록 하며, 중외 합작 경영이 점차적으로 중서부지역을 향하여 발전을 유도하도록 장려한다.

중국 교육기구는 마땅히 본연의 역할과 목표가 중외 합작 경영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맹목적으로 우후죽순 나타나는 상승 기류와 낮은 수준의 중복 현상을 방지한다. 국가 중점으로 설립된 대학은 합작 대상을 더욱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대상 선정, 합작 모형 및 합작 내용을 잘 선정하여 대학의 전체적인 수준과 종합 교육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

넷째, 중외 합작 경영의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 영역 합작 경영의 질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합작 경영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입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외 합작 경영 기구와 항목은 고등교육 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응당 국가가 시달한 대학 모집 계획에 산정되어야 하며, 학교의 매년 학생 모집 규모는 전공 모집 규모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반드시 같은 지역의 동일 수준 신입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동일 수준에서 모집 정원에 미달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수준의 신입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원 단계에 있어서는 응당 중국내 대학원 신입생 모집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중외 합작 경영 기구와 항목은 외국 교육기구의 학력, 학위교육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그 입학 기준은 응당 외국 교육기구의 기준에 비해 낮아서는 안 된다. 즉, 합작하는 외국 교육기구의 수준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양성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구와 항목은 본과이상(대학을 지칭)의 고등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습계획, 양성방안, 학제연한의 제정과 집행은 당연히 중국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본과 전공 개설은 전문 바코드가 있어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구와 항목은 외국교육기구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교육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공동 제정된 학습계획과 양성 방안, 교육과정 개설, 학습 내용은 당연히 외국교육기구가 속한 국가의 기준과 학술요구에 비해 낮아서는 안된다. 즉,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 기구와 항목은 중국 고등교육과 외국 학위교육에서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 학력, 학위증 및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이 동시에 발급되어야 하고, 그 양성 목표, 양성 요구, 교육과정 개설, 교학 내용 등이 당연히 양국의 학술 요구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중외합작경영기구와 항목은 외국교육기구가 석사 과정 중에 각 항목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학과 전공 계획과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외 합작 경영의 전공, 국가의 정책적 장려, 지원, 제한 및 금지된 학과와 전공 제정을 연구한다.

□ 학위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구와 항목은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중국 학위증 발급은 응당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구와 항목은 외국교육기구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교육기구 학위증을 발급하고, 중국 교육기구는 응당 유관 단계 및 유형별 학위 수여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외국교육기구가 발급한 학위증은 응당 유효한 원칙을 준수하여, 해당 교육기구는 그가 속한 국가가 발급하는 학위증서와 상동하고 아울러 국가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두개 교정’ 채용 경영 모형으로 중외 합작 경영의 관리를 강화한다. 중외 합작 경영은 응당 중국교육기구 내에서 완비된 혹은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두개 교정’의 설립 모형으로 중외 합작 경영을

실시하는 것은 응당 법적 행정허가에 의한다. 중국 교육기구는 마땅히 이러한 항목을 실시함에 외국교육자원을 끌어들이고, 아울러 도입된 외국교육기구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중국 교육과정을 대용하여 진행하며 평가한다. 도입된 외국 교육과정과 전공 핵심 교육과정은 마땅히 중외 합작 경영 항목의 전체 교육과정과 핵심 교육과정의 3/1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국 교육기구 교사가 전담하는 전공 핵심 교육과목의 수와 수업시간은 응당 중외 합작 경영 항목의 전체 교육과정이 전체 수업시수의 3/1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당 외국교육기구 명의를 국제적으로 초빙된 교수로 하고, 그 수준은 마땅히 외국 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의 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외 합작 경영의 등록금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자는 설립 혹은 중외합작경영기구 주최 혹은 항목에 마땅히 상응하는 재원 투자를 해야 한다. 중외합작경영자는 응당 합리적으로 중외합작경영기구 혹은 항목의 평균 양성 자본을 예산하여 원본 보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관 부문 보수는 정부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항목과 기준을 확정한다. 등록금 기준은 여전히 해당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준과 피교육자의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립과 사립의 적정한 균형에 주의한다. 학점 인정 형식으로 학생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은 중국내 학습기간에 마땅히 중국 고등교육의 정상 등록금 항목과 표준 등록금에 의거하여 납입한다. 중국이 통일된 정책 규정을 제시하기 전에 각 지역은 현행 관리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외 합작 경영 등록금의 관리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중외 합작 경영은 중국 교육사업의 주요한 부분이다. 각 지역 교육행정은 중외 합작 경영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연구하여 계속적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이 완성되어야 하며, 본 행정 지역 내에 중외 합작 경영 업무의 총괄적 계획, 중합 협력 및 거시적 관리가 강화되고, 중외 합작 경영으로 하여금 중국 교육 발전과 개혁을 보장하고, 중국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教育部²⁰), 2006.2.7, <http://moe.edu.cn/edoas/website18/info18331.htm>)

나. 호주

(1) 호주 전문대학의 국제화 정책

호주 전문대학들은 그동안 국제화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재학생의 감소추세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화의 정책의 내용은 주로 해외 교육 시장 진출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는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AQTF)에 의해 이미 호주 전체가 통일되고 모듈화된 공통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의 향상보다는 해외로의 진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호주 전문대학들이 보여주고 있는 국제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가) 외국 유학생 유치

우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이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 3년간 사립 기술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VET 분야가 전체 호주 교육기관 중 가장 큰 유학생 유치 신장율(매년 20~30%)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는 기존의 공립 TAFE가 중심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고도로 전문화 시킨 사립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해외 교육 시장 진출

호주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TAFE는 전통적으로 원격교육 개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 왔고 현재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매우 강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20) 教育部關於当前中外合作辦學若干問題的意見 教外綜〔2006〕5号

최근 들어 호주의 RMIT를 비롯한 대규모 대학들이 동남아 국가에 분교를 설치하는 동안 TAFE는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을 통해 국제화의 활로를 찾고 있다.

이미 NSW의 TAFE에서는 TAFE Global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hina, Hong Kong, Fiji, Papua New Guinea, New Zealand, Singapore, Malaysia and United Arab Emirates 등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현재 TAFE에서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4대 시장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교육 제공자의 지위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현재 전체 TAFE 등록 학생의 1%만이 해외 온라인 학생인데, 이 비율을 단기간 내에 2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운영

사립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동안 공립 TAFE들은 다국적 기업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 예로 Box Hill Institute TAFE의 경우 동남아권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Adidas Footware 의 5개 아시아지역 공장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 개발 프로그램 교육 운영
- P.T Freeport Indonesia 에 대한 연간 1,000여시간의 주문식 교육 (무역 교육 프로그램) 및 주문식 교재 개발 사업
- Singapore 노동개발원과의 싱가포르 노동능력 검증 시스템 개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태국정부 기술개발부와의 작업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교재 개발

(2)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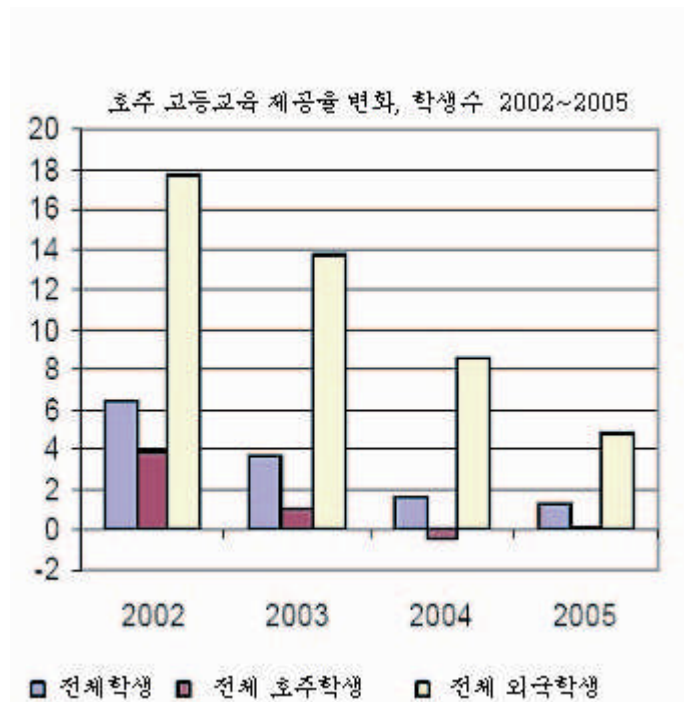
(가) 호주 대학의 유학생 현황

호주의 유학생수는 2000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급격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그 성장 속도에 있어 세계 1위임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호주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정원의 20%이상을 외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호주내에서 제4위의 산업으로 성장한 유학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지원 그리고 호주 내 교육기관의 일치단결하는 노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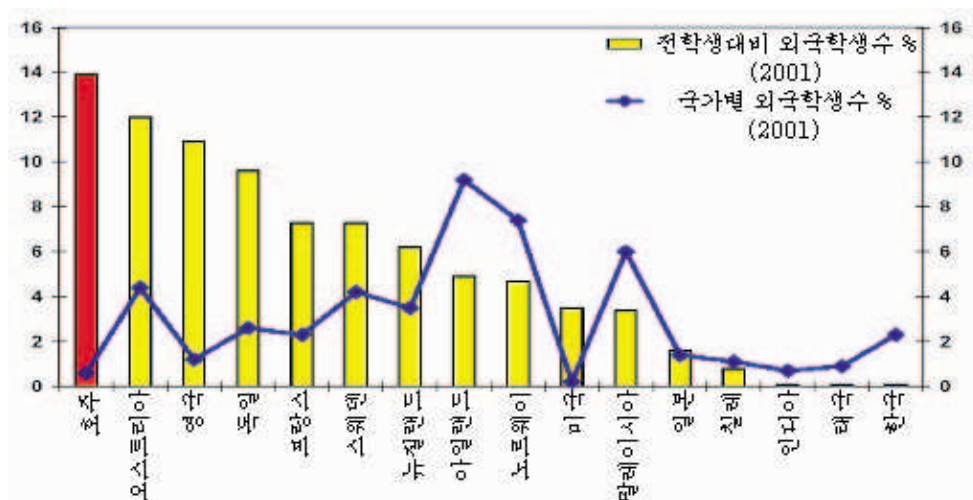
<표 III-1> 출신 국가별 호주 유학생 증가 추이

국적			연간변동률	연간점유율
	2005	2006	2005	2006
중국	71,389	79,086	10.8%	23.8%
인디아	24,265	32,738	34.9%	9.8%
한국	21,845	26,321	20.5%	7.9%
말레이시아	18,722	18,547	-0.9%	5.6%
홍콩	19,133	18,175	-5.0%	5.5%
기타	147,346	157,574	6.9%	47.4%
모든 국가	302,700	332,441	9.8%	100.0%

특히 호주는 동남아권 유학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학/대학원과정의 Higher Education 분야에서 2002년까지 두드러진 학생 증가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아시아권 국가들의 지속적인 자국 내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 2002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국내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수가 2001년 기준 14% (2003년 기준 1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해외로 나간 유학생 비율은 미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교육 수지 부분에서는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III-1> 호주 내 대학의 유학생 수 증가추세



<그림 III-2> 국가별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 및 해외 유학생 비율

호주 내에서 2002년 이후 전문대학과 타 교육과정간의 해외 유학생 변동

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2> 호주 내 직업교육과정과 타 교육 과정의 해외 유학생 변동
(2002~2005)

교육 및 훈련 부	2002 ('000)	2003 ('000)	2004 ('000)	2005 ('000)	%	2004-2005 변동율
고등교육	116.2	135.7	151.3	163.9	47.5	8.3
직업교육 및 훈련						
- 공립부분	17.4	17.2	16.8	17.2	5.0	2.3
- 사립부분	36.6	39.3	41.2	48.9	14.2	18.6
직업소계	53.9	56.5	58.0	66.1	19.2	13.9
학교교육	23.8	27.6	27.8	25.5	7.4	-8.2
외국인을 위한 어학코스	57.8	61.0	61.1	65.0	18.8	6.3
기타	21.8	23.6	23.9	24.3	7.0	1.5
전체	273.6	304.3	322.2	344.8	100.0	7.0

호주 직업교육 및 훈련, 통계 : 국립 VET 제공

<표 III-3 > 호주 내 학위과정별 유학생 수 증가 추세 (2005~2006)

구분	입학년도			졸업년도		
	2005, 7	2006, 7	변동율	2005, 7	2006, 7	변동율
고등교육	157,684	166,721	5.7%	60,368	63,995	6.0%
직업교육	55,284	69,069	24.9%	27,619	35,612	28.9%
Elicos	43,836	51,442	17.4%	28,752	33,672	17.1%
학교	23,741	22,866	-3.7%	8,997	9,403	4.5%
기타	22,155	22,343	0.8%	18,219	18,324	0.6%
호주내계	302,700	332,441	9.8%	143,955	161,006	11.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의 유학생 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전문대학에서는 공립과 사립 두 섹터에서의 변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FE와 같은 공립에서는 2002년 이후 유학생 수의 큰 변동이 없으나 특성화 된 사립 전문대학에서는 전체 교육기관들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VTE가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호주의 유학생 추이를 요약한다면, 2002년 이전까지 4년제 대

학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 2002년 이후부터는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나 그 틈새를 사립 직업 전문대학들이 파고들어 전체 교육 기관 중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 호주 전문대학의 전공분야별 학생 수 변화 (released July 2006)

교육 분야	2002 ('000)	2003 ('000)	2004 ('000)	2005 ('000)
자연 및 신체과학	8.2	6.4	6.3	5.7
정보기술	82.3	72.5	62.1	57.5
공업 및 관련기술	268.3	260.9	257.8	262.9
건축	90.5	100.4	101.5	104.1
농업 환경관련 연구	94.7	82.5	79.3	80.8
건강	87.8	103.4	81.0	77.7
교육	56.2	58.1	51.0	47.9
경영 및 무역	365.8	368.0	329.2	313.5
사회 및 문화	168.4	183.3	163.5	163.0
창작, 미술	58.2	58.2	48.4	44.1
식품, 호텔, 개인서비스 혼합 프로그램	141.0	158.9	151.3	150.6
단과과목	160.9	165.0	188.3	190.7
과목(전공 없음)	100.6	100.3	75.4	142.7
전체학생	1,682.9	1,717.8	1,595.2	1,641.3

호주 직업교육 및 훈련, 통계 : 국립 VET 제공

호주 전문대학에서도 국내 전문대학과 유사한 몇 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 전문대학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공분야별로 보면, IT, 경상분야, 예술분야 전공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복합 분야 프로그램만이 증가 추세에 있다.

(나) 호주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

호주는 2003년 교육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국제 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국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육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서비스 무역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호주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호주 교육 조건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다른 국가정부와 협력
-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써의 호주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 호주 교육의 질적인 명성의 보호
- 호주 국제 교육의 미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주정부의 협력 강화

예산측면을 보면 호주 정부에서는 2004 회계연도에 유학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13만 달러를 투입하고 향후 4년간 추가적인 예산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예산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해외 유학 홍보, 교육의 질 관리, 이민법 개선 항목들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 관련 사업 (\$5.1 백만)
- 신흥 유학시장에 대한 정부간 교류 확대 및 프로모션 행사(\$41.6백만)
- 호주 5개 대학에 대한 우수교육센터, 우수과학센터, 우수혁신센터 신설 (\$35.5백만)
- 우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기금 설정과 호주 영어교사들의 단기간 해외 연수 (\$7.9백만)
- 해외로 파견하는 호주인들의 언어와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국립 언어 연수센터 설립 (\$46백만)
- 호주대학 해외 캠퍼스 현지 재학생들에 대한 호주 교육의 질 보장 프로그램 개발 (\$10.5백만)
- 호주 유학/연수 예정자에 대한 신규 비자 제도 홍보 및 호주 이민국 시스템 개선 (\$7.8백만)

호주의 유학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세 가지 정책적인 중심축인 유학 자원의 다변화, 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과 비자 제도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정부와 학교가 긴밀한 협조 관

계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학 자원의 다변화

유학자원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생 출신국가의 다양화로 아시아는 현재의 유학생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미주 출신 학생들을 더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학생들의 전공 분야의 다양화로 현재 경영과 IT분야에 80%이상의 유학생이 몰려있는 현상을 개선하여 전 학문 분야에 걸쳐 유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학생들이 분포해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현재는 주로 학사학위과정에 대부분의 학생이 분포해 있으나 이것을 단기 영어 연수, VET(직업교육과정), 중고교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전달방법 다양화로 현재의 호주 내 대학 직접 유학 구조를 점차 낮추고 온라인 강의, 해외 현지 캠퍼스 수업 등을 강화해 학생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RMIT 등 여러 대학이 현지 캠퍼스를 설립했고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을 호주에서 공부하게 된다.

또, 호주 정부는 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를 위해 AEI를 비롯한 여러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 조직이 더 많은 나라들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국가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유학생 유치 국제 네트워크 구성뿐 만 아니라 IDP와 같이 대학들로 구성된 조직 역시 각 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유학자원의 다변화를 위해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교수나 교사, 학생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현지의 새로운 잠재적 유학 희망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 해외의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교재의 무상 지원 프로

그램을 통해 호주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힘쓰고 있다.

호주 정부는 유학 자원의 다변화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호주에서의 교육 기회에 관해 신빙성 있고 공정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 상담관, 호주 정부 교육원 그리고 교육 상담원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전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AEC, AEI, IDP 등이 그 구체적인 조직들이다.

□ 호주정부 교육원 (AEC)

각국 대사관내에 설치된 호주 정부 교육원(AEC)은 호주 연방 정부 교육부 (DEST)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호주의 교육 및 연수, 유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호주 정부 기관이다.

호주 정부 교육원은 호주 교육 및 유학에 관한 다양한 홍보물 편찬, 유학 박람회 및 세미나 주관, 교육관련 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호주 교육 설명회 개최, 호주 유학에 관한 각종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원 전용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수준 높은 호주의 교육, 연수과정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 교육원은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을 위하여 학위 및 학교 확인서도 발급해준다.

□ 호주정부 국제 교육부(AEI)

호주 정부 및 호주의 교육 연수 기관들은호주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연수 및 연구 과정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같이 협력하여1994년에 호주 정부 국제 교육부(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 AEI)를 설립하였다.

AEI 설립의 바탕이 된 정부와 교육 기관들과의 관계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국제적 학문 연구에서의 도약을 추구하는데 있어 매우 이상적인 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AEI의 목표는 세계적, 지적, 문화적, 기

술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의 추구를 위해 해외의 상대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호주 교육 및 연수 제공자들의 기여를 장려하고 돕는 것이다. 현재 AEI 사무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 설립되어 있다.

AEI의 역할은 호주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교육과 연수 면에서 타국 정부들과 연계 활동, 호주 인들을 위한 국제적 교육, 훈련 및 연구 기회의 향상 그리고 해외 현지의 호주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 호주정부 국제교육재단 정부 교육원(AIEF)

호주 정부의 교육기관이므로 우선 재정적인 면은 호주 교육부에서 50%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호주내 대학교와 컬리지, 언어연수기관, TAFE, 중,고등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호주정부나 각 학교에서는 해당국가의 교육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교육변화와 교육제도, 교육시장에 대하여 수시로 호주교육부에 보고한다. A.I.E.F는 대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AEC(Australian Education Center, 호주교육원)를 통해 호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IDP

IDP Education Australia는 호주 대학교 총장 협의회에 의해 1969년 창립되었고 현재 56개국, 101개 지사를 둔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 교육 홍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호주내 38개 대학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IDP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호주 유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유학 정보와 수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모든 IDP 사무실에는 호주 교육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카운슬러들이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알맞은 과정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호

주의 교육 기관들은 IDP를 통해 교육 과정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IDP에는 각 학교에 대한 최신 안내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에 대해 유학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갖게 되는데 IDP의 경우 호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해 크게 의문을 갖는 경우는 없다.

미국 Forbes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호주의 유학생 수는 221%나 증가한 반면 미국내 유학생 숫자는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러한 호주 유학생 수의 경이적인 증가는 IDP Education Australia 의 커다란 역할 때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IDP는 또한 호주유학 가이드 출판, 호주 유학 박람회 개최, 국제 교육 컨퍼런스, IELTS 시행, 각종 프로젝트 및 계약 수행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IDP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는 물론, 영어권 국가의 교육 기관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식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IELTS를 캠브리지 대학과 영국 문화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IDP는 호주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관이지만,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정부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DP는 또한 호주 정부 외에도 세계 은행 (World Bank),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을 비롯한 국제 민간 기업과 외국 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국제 교육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② 호주 유학의 질적인 우수성 유지

호주 정부는 유학생 유치 조직의 구성과 함께 호주 유학의 질적인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스템을 만들어 유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그 질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 정부의 관리 하에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은 유학생 수용을 위해 교과과정, 교사 자격증, 전문가 기구를 포함한 시설들을 일정 수준이상 구비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SOS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PRISM(The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CRICOS(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등은 이러한 호주 정부의 ‘유학의 질’ 유지를 위한 정책들이다.

□ AUQA(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ssurance)

호주의 대학들은 독자적인 학업, 성적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비영리 독립기관인 AUQA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AUQA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호주 내 고등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관리 감독하고 표준 교육과정의 운영여부와 해외에 설치된 캠퍼스, 현지 협력 교육기관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호주의 대학교가 해외 캠퍼스에서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은 호주에서 제공되는 코스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코스를 제공해야 하며 코스의 모든 범위를 전적으로 보증한다.

□ ESOS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호주교육부가 호주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등록과 감독은 물론 비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화 한 제도이다. ESOS는 외국 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호주의 종합 법령으로 ESOS 법령은 유령사기 교육기관으로부터 외국 학생들을 보호하고, 유학생들이 최고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는 유학생 교육 서비스(ESOS) 법 2000 및 관련 법률을 통해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교육부)에 의해 정해지는데, 법률규정의 목적은 수업료 및 재정 보증을 제공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자(학교) 등록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함으로써 학생 비자로 호주에 오는 모든 유학생들의 이익을 보

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유학생 수용 가능 학교의 범위 및 정부 등록 방법
- 유학생 교육 제공자의 의무
- 유학생 수업료 관리 방법
- 유학생 기록 관리 방법
- 유학 경비에 대한 환불 규정
- 유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사유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보상 을 위한 공동 기금의 운영

□ PRISM(The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유학생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록상태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CRICOS(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호주연방정부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유학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의 모든 대학과 학위과정을 등록시켜 학교와 학위과정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유학생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다닐 수 있는 모든 학교와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모든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CRICOS의 리스트는 학생 비자가 발급 가능한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보여 준다.

□ 연방정부 유학생 보호기금

2000년 외국유학생 지원제도의 출발과 함께 호주로 오는 유학생의 등록금 지불 이후에 등록한 교육기관이 도산하거나 기타 사유로 교육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때 이를 보장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학생 보호기금을 비축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로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사실 어학연수원이나 영어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그 기관이 연방 정부 등록 교육 기관(CRICOS)인가를 확인하면 교육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장학제도

호주는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1997년 한 해의 경우 10,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 과정의 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학금은 연구 중심 대학원생에게 주어지고 있다. 학부과정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학업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25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유학하는 외국유학생은 학기중에 1주일에 20시간까지, 방학 동안에는 시간 제약 없이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어 있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도 이 범주에 속한다. 처음 받은 학생비자는 취업허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도착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학생비자에 대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이후라도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비자는 취소된다. 호주 이민국은 정해진 고용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호주 정부 이민국의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리 정책은 규정이내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과 규정초과시의 엄격한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③ 투명하고 유연한 비자제도 운영

호주 정부는 확실한 유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확히 비자를 발급하되 그렇지 못한 학생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 석박사 과정등 상급 교육과정이나 비자 규정을 잘 준수하는 국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의 발급이나 유지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제도의 유연성으로, 유학 실패시장으로 부각되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하고,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마다 새로운 비자 클래스를 만들어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기업들에게는 정책적으로 호주의 대학/대학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호주에서 유학한 졸업생을 고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호주 대학의 해외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고급 두뇌와 숙련된 기술 인력이 호주의 대학에 남아 호주 산업 발전과 수출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교육정책

IMF의 경제대란을 1995년에 겪은 말레이시아는 2년제 4년제 대학이 거의 부도위기에 당면하여 외국에 유학중이었던 중국계(26%), 말레이계(56%), 인도계, 기타 등의 유학생들이 귀국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교육은 대 전환을 하게 된다. 이때까지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중국계가 중심이 되었고 따라서 상당수의 사립대학은 중국계의 영향권에 있었고 국립대학은 말레이계가 중심이 되어 교육언어로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귀국한 중국계 학생은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였고 말레이시아 대학은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레이 정부는 자국 학생들이 유학하던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영어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교육문제 해결은 물론 외국의 유학생까지 유치하는 주요 유학국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는 말레이시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 영어, 과학, 경제 등의 주요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있으며 말레이의 법대와 의대는 모

든 강의를 영어로 하고 있다.

□ Limkokwing University of Creative Technology의 유학생 유치 위한 마케팅 전략

- 국제화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2+2 또는 3+0로 운영
- LUCT의 4000명 학생정원 중 유학생이 85개국으로부터 40%인 1600명
-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문인력; 국제처의 직원이 30명중 말레이시아 국내 마케팅 7명, 유학생담당 23명
- 유학생을 해외담당직원으로 재고용하여 유학생 리쿠르트에 적극 활용

라. 캐나다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외국학생유치를 하고 있고 또한, 부족한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취업이민을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학위를 이수하는 졸업생에게 졸업 후 일정기간의 인턴쉽을 마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이용하고자 캐나다에 들어오는 유학생은 학습기간 동안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취업현장의 인턴쉽까지 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가진다. 또, 서비스학과의 강도 높은 실습 위주의 수업은 산업체와 연계 뿐 아니라 서비스 훈련을 학교기업으로 활용하여 실습기회를 주고 또한 학교 주변에 봉사의 기회로 활용한다.

(1) BCIT

항공학과, 자동차학과 등에서는 샌드위치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학교의 수업과 현장수업이 연계를 중요시 하고 있고 수료 후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졸업장은 다시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주어 많은 외국학생들이 취업이민의 수단으로 유학을 이용하고 있고, 대학은 이를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정부는 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나다 오리엔테이션을 이민자 자비로 교육시킴으로써 취업이민 희망자에게 일정교육비를 지출토록 하면서 캐나다에 부족한 인력수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 Commons 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학생 수업 지원

- Commons란 도서관의 열린공간으로 학생들이 그룹으로 최고 3시간까지 빌려 그룹스터디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으로 학생들이 토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지칭함. 이방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설비가 되어 있고 이때 프린터는 유료로 운영함
- 선배들이 수강했던 과목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 지도
- 수학 등의 어려움이 많은 과목의 경우 지정된 학습공간에서 담당교수가 시간을 정하여 과제와 어려운 문제풀이 등의 과외공부를 지도함

□ 실습환경을 산업현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

- 현장에서 최신 기술장비를 기증받고 이 시설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교육함

(2) VCC

미용학과의 경우 홍콩에 학과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10개월 과정의 프로그램과 2개월의 영어 연수를 시킨 후 VCC에서 1주간의 intensive시험 준비과정을 이수하고 미용자격시험을 응시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시험을 중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텔경영학과는 2년 과정 프로그램이었으나 졸업 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그레йд 과정의 교육을 받고자하는 졸업생과 현장의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2005년부터 4년제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어 운영하고 있다. 물론 2년

과정으로 마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또는 2년 과정 후 현장에서 근무 후 필요에 의해 4년 과정을 이어서 수학할 수 있다.

치위생과는 캐나다에 부족한 직업인 양성기관이다. 학생들은 학점이수와 필수 임상실습을 마치고 졸업 후 면허시험을 통하여 치위생사 자격을 얻고 치위생사로 좋은 대우에 취직할 수 있다. 이는 취업이민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치위생과 역시 2007년부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2년,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치위생과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2. 국내의 사례분석

가. 4년제 대학

(1) 한양대학교

(가)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외국유학생을 유치함에 있어 학생들의 관리와 질의 보장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한양대학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학생의 입학부터 장학,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유학생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I-5> 국적별 외국인 학생 수 (2005년 4월 1일 기준)

국 가	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	계
중국	132	42	15	59	248
일본	32	6	5	42	85
대만	8	2	3	6	19
말레이시아	19	-	1	-	20
미국	19	3	2	7	31
우즈베키스탄	4	2	-	10	15
기타	44	10	22	62	138
계	258	65	48	186	557

<표 III-6> 단과대별 중국 학생 수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	법학과	기 타	소 계
학 사	57	9	16	24	1	16	123
석 사	9	15	7	3	2	19	55
박 사	2	4	2	2	1	9	20
소 계	68	28	25	29	4	44	198

<표 III-7> 연도별 정규학생 증가 현황 (어학연수생 제외)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외국인 학생 수	107명	128명	175명	231명	350명	540명
전년대비 증가율		20%	37%	32%	52%	54%

(나)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

단기적인 학생유인 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문화행사, 강좌를 도입하는 등의 한양대학교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쌓고 대학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III-8 > 한양대 학이 참여하는 유학박람회와 특징

주 관	내 용	장 점	단 점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대학단독 박람회 개최 또는 국제유학박람회 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한국대학단독박람회 개최로 시너지 효과 높임 - 교육부 국제화 평가 점수 반영	단기간 유치 어려움 지속적인 참여 필요
해외 박람회 전문 업체	국제 유학 박람회 전세계 수백개 대학 및 업체가 참여	- 좀더 많은 학생에게 학교 홍보가 가능	- 부스임대료 등 비용이 높음 -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어려움
자체 박람회 실시	현지 단독 박람회, 고등학교 방문등	- 마케팅 그룹이 정확해 대상에 따른 정확한 홍보 가능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로드가 많음
해외유학원 주최 박람회	해외 유학원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 한국유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유학원을 통한 학생 질에 대한 사전 검증 가능	유학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함 학생들은 유학 시 유학원에 수수료를 내야 함

(다) 해외 홍보 사무실 개설

한양대학교는 계속적으로 우수한 유학생유치를 위하여 현지에 ‘중국상해한양문화원’을 개설하였다.

- 설립목적 : 한국 및 한양대학교 홍보, 문화 전파, 유학생 유치.
- 설립 : 2004년 11월
- 장소 : 중국 상해 중산로 회은광장
- 규모 : 강의실 1실, 홍보실 1실로 운영
- 직원 : 현지 팀장 1명 + 현지 직원 1명

- 사업내용 : 한국어 강의(현재 진행 중), 한국어 경시대회, 영화상영, 유학설명회, 유학생 면접 및 시험 실시, 한중 청년의 밤 등 의 행사 개최 예정.
- 기대효과 : 중국 내 한국 및 한양대학교 홍보, 연 50여명 유학생 유치

(라) 외국인 입학 및 관리 (One-stop service)

한양대학교는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서류접수, 자격심사, 학사관리, 장학관리, 생활상담, 행사지원, 취업알선까지 외국인 학생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한 부서에서 입학에서부터 보험, 장학, 기숙사 등 생활 부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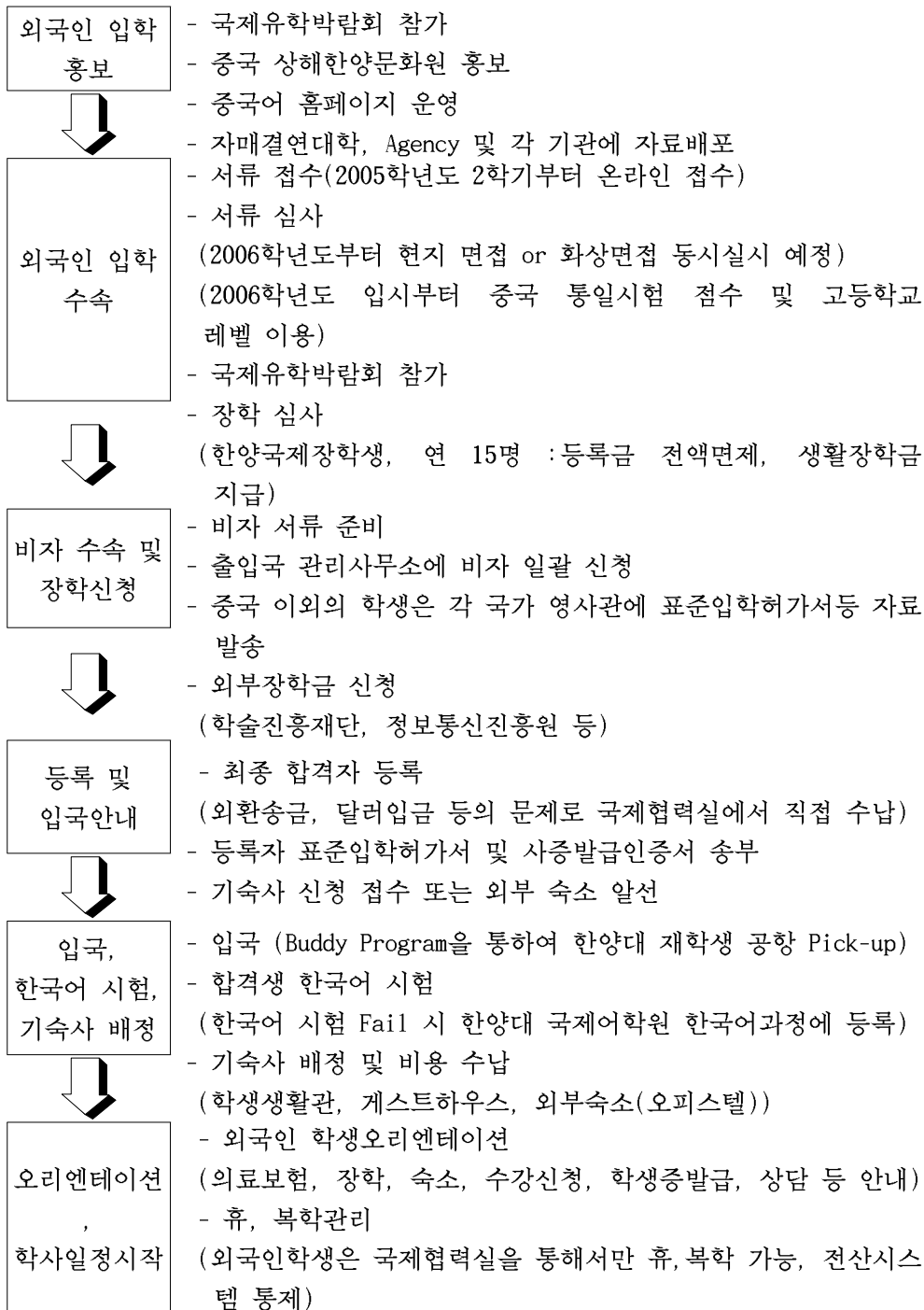
(마) 외국인 학생 관리 전문화

한양대학교는 외국인 입학과 더불어 외국인 학사지원 및 생활지원의 대부분 업무를 국제협력실에서 일괄 관리한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단일화된 창구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상호간 유대감 증진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 3월 :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 5월 : 외국인 학생 바베큐파티
- 9월 : 외국인 학생 체육대회
- 10월 : 외국인 학생 한국문화탐방
- 12월 : 크리스마스 파티 및 졸업생 환송회



<그림 III-3>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 외국인 학생 관련 입시 흐름도

○ International Zone 운영

장소: 학생회관

운영: 총학생회 산하 국제학생회에서 관리

행사: 외국인 학생과의 Buddy Program, 외국 음식 Festival 개최,
외국어 공부방 운영 및 세미나실시

□ 엄격한 학사관리 및 지원

외국인 학생의 학사적응 지원 및 이탈방지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에서는 매학기 출석을 체크 및 휴,복학 전산관리를 맡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사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과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학기말 전체 수강과목 출석을 보고 : 모든 외국인 학생은 수강과목별 출석율을 각 교수님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함.
- 휴, 복학 관리 : 휴학과 복학은 비자문제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학내 정보통신원과 협조하여 모든 외국인 학생 휴,복학 및 학적변동은 국제협력실에서만 신청 가능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범위반이나 이탈을 최소화 하였다.
※ 현재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 발생 후 15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위반시 벌금부과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경영학, 물리, 수학강의 실시

- 내 용 : 외국인 학생들은 출신국가 또는 출신지역의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인하여 학과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 무료강의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각 수업 당 10여명씩 수강)
- 과 목 : 영어, 기초경영학, 물리, 수학, 중국어

- 강 사 : 해당과목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석,박사 재학생 (자원봉사자)
- 운 영 : 주 2회 2시간씩 진행
- 특 징 : 주로 영어 과목은 중국 학생이 수학, 물리 과목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음(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과목 개설, 변경 등 자유롭게 운영)

□ 외국인 숙소 관리

외국인 학생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국제협력실에서 모든 외국인 관련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숙소:

- 제 1학생 생활관: 16실 64명 수용 (4인 1실)
- 제 2학생 생활관: 14실 28명 수용 (2인 1실)
- International House : 74실 142명 수용(2인 1실) (2005년 7월 완공)
- 게스트 하우스 : 16실 운영
- 오피스텔 : 외부 숙소로 30채 운영

□ 외국인 학생 생활 상담

- 내 용 :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유학생 생활 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상담을 실시. 학생들은 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이용
- 운 영 : 서울, 안산캠퍼스에 각각 외국인 학생 지도교수를 두어 주 1회 5~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
- 계 획 :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라 단과대학별 외국인 학생 지도교수 배정

(바) 장학제도

□ **HISP (Hanyang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

- 내 용 :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미래 국제사회에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한, 친한 인사 배출을 목적으로 한 장학 제도. 2001년부터 실시하여 30여명 졸업생 배출. (현재 외국인 졸업생 동문회 구축을 위해 준비 중)
- 지원내역 : 정규과정동안 등록금 전액 감면, 생활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 선발 인원: 연 15명 내외
- 선 발 : 제 3세계 출신자, 해외 명문 학부 졸업자, 영어 및 한국어 능통자를 우선 선발

□ **HIEA (Hanyang International Excellence Awards)**

- 내 용 : 외국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장학 지원 (외국인 학생간 경쟁)
- 지원내역 : 급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감면 (100%감면 ~ 30%감면)
- 선발인원 : 학기별 30명 내외
- 선 발 :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

□ **이공계 활성화 지원 장학금**

- 내 용 :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부족한 이공계 연구인력 충원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교원추천을 받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 지원내역 : 정규과정동안 등록금 50%감면, 기숙사 제공

□ **교내,외 기타장학제도**

- LG 전자- 한양대학교 산학 외국인 장학금 (2006년 실시, 협약 완료)
- 학과 성적 및 배정장학제도
- 개나리 장학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심사하여 장학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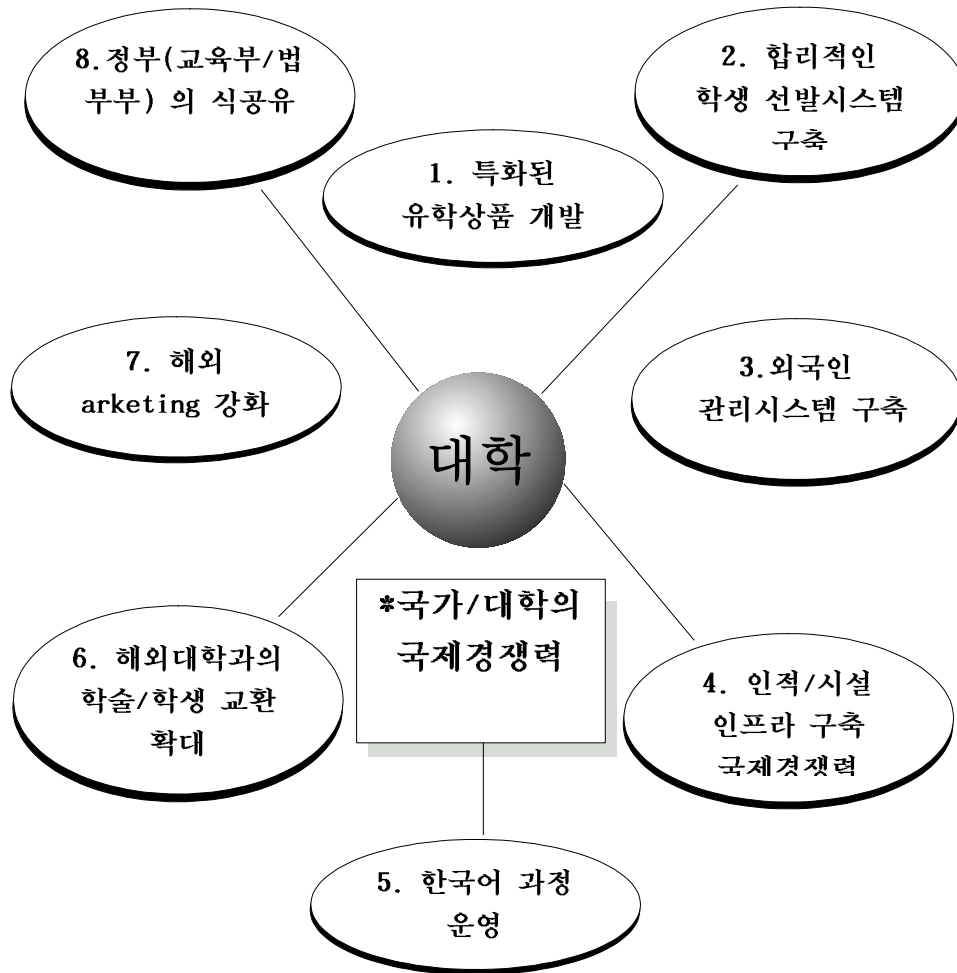
- 학술진흥재단 장학제도
- 정보통신진흥원 장학제도
- 정부초청장학제도
- 외국 정부지원 장학제도
- 한일문화협회, 재외동포재단 장학제도

(사)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타 방안

- ☐ **유학상품의 특화** : -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중점학과 선정 및 지원
 - 영어 전용강좌 증설
 - (국제학부, 국제학대학원 강좌의 영어로 진행)
- ☐ **유학원 활용** : 신뢰성이 높은 유학전문기관 선정 및 장기적 파트너 관계 정립
- ☐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의 연계**
 - 해외 진출 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장학 및 취업에 대한 MOU 체결)
 - 예) LG전자와 협약 체결,
 -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 ☐ **대학간 공동마케팅 실시**
 - 해외 공동 홍보
 - (박람회 공동참여, 공동 설명회 개최, 공동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
 - 전문대 + 4년제 대학간의 MOU 체결을 통한 공동 교육
 - 예) 한양대 + 동양공업전문대학/ 한양대 + 공주영성대학
- ☐ **교육부, 법무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 교육부 Study Korea Project (외국인 5만명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 하에 유학생 유치 (순수외국인 2학기 입학제도, 가을학기 편입

등 실시)

- 법무부와 비자 문제 개선 노력을 통한 유학생 비자 발급을 개선
출입국사무소와 대학 외국인 입학 담당자 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그림 III-4>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핵심 요소

○ 문화사업

- 2006년 하계봉사단을 파견 중국전역에서 온 5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악기 '북', 태권도 등 강좌를 개설하였다.

- 상해에 매주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현지 중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노래, 한국영화 시사 및 토론, 한국사, 한국어 등을 강의하고 있는데 현 지인의 호응이 매우 높고 한양대학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1855년 설립 이래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대학교육을 추구하고 실천해온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은 우수한 학업과 국제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이룬 최고의 국제교육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여 국제교류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가) 주요 학생교류 프로그램

<표 III-9> 2005년 국제프로그램의 개요 (학생교류 인원 및 파견국가)

외국 교환학생	465명 24개국
방문 교환학생	549국33명
Tailor-made 프로그램	39명 2개국
자비 외국연수Study Abroad Program	103명 4개국
외국 자매기관	550기관 및 대학 33개국

교환학생의 경우 외국인 학생과의 1: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약 1년간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수교류 및 학술교류는 학사처에서 관장하고 국제교류는 학생교류 업무만을 지원한다.

<표 III-10 >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

분 야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계
Korean Studies	17	21	18	56
East Asian Studies	6	12	9	27
Politics Law and Culture	29	4	42	75
Business& Engineering	15	9	21	45
Science and Engineering	123	-	108	231
Korean Language Course	1	1	1	3
Total	191	47	199	437

*Korean Language Course는 8단계로 제공됨.

<표 III-11 > 연세대학교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생교류 프로그램	대상학교 / 등록금	교 류 학 점
교환학생	-자매협정교인 57개국 516개 대학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생활비는 자비 부담	1~2학기동안 15~32학점인정 졸업 필요 최소학기 인정 협정 안 된 대학의 경우 휴학 후 지원 할 수 있음
Study Abroad Program	-자매협정교 또는 대학이 인정하 는 대학 -휴학 후 자비 부담으로 유학	1~2학기동안 15~32학점인정 휴학 후 자비유학 귀국 후 학점인정하나 최소 졸 업학기 학기인정안함
계절학기	-자매협정교 -유학대상교에 등록금 납부	6학점 인정
어학연수	-4년제 종합대학을 원칙으로 함 -유학대상교에 등록금 납부	3학점 인정

(나) 국제교류프로그램

<표 III-12> 연세대학교 국제교육 프로그램 및 특징

	교과과정	특징
언더우드 국제학부	문학과 문학, 경제학, 정치학, 국제학, 생명과학과 기술, 한국학과정	-500여개 대학 간 네트워크 활용 -어학연수기회 확대 -해외 석학 초청강의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한국학, East Asian Studies, 정치학, 법학, 문학, 경영학, 한국어 등 50여 과목을 설치하여 탐험하고 배우는 기회부여 입학자격:대학 대학교에서 최소 1학기 2 쿼터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2.5 (4.00scale)이상, 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외국인, 영어 사용하지 않는 국가 학생은 550 TOEFL이상	-5주간의 국제 경영 인턴십 -문화체험여행 -한국체험 프로:태권도, 도예, 사물놀이, 한국요리 등.. -연세동문 장학금, 김숙희&도심 장학금
국제어학원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과정 Foreign Language Only Zone운영 최종단계이수 후 연대총장명의 수료증수여	-4주~10주과정 -Level Test에 의한 반배정 -IBT Toefl, New Toeic, IELTS 과정 등

□ 언더우드 국제학부(UIC,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설립

연세의 국제화와 미국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언더우드 국제학부(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도 출범하였다. 학과의 벽을 허물고 기초교육 중심, 외국인 교수 강의로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연세와 게이오의 대학원 공동학위제도 시행하고 있어 게이오대학과 연세대학은 상호간의 대학캠퍼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내외의 주요 대학, 기업 및 연구소와의 교류, 외국 주요 거점대학의 설정,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연계 등 각종 글로벌 네트워킹이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교환학생 파견 중심의 외향성 국제화를 벗어나 연세글로벌주간 행사처럼 연세캠퍼스 자체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6학년도 3월, 세계 명문대학과 국내외 고급두뇌 유치 경쟁을 위하여 국내외의 높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학교육 개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는 독립된 단과대학인 언더우드 국제학부(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이하 UIC)를 설립하였다. UIC를 통해 국내외 최우수 학생 유치와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세계 명문대학과 정면 경쟁을 선언하였다. 그 동안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국제화의 방향이 우리 학생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 UIC를 통해 세계를 연세 캠퍼스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교육 분야의 세계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수한 외국 학생유치를 위해 UIC는 12월부터 해외고교 방문, 미국지역 학교설명회 및 미주지역 일간지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의 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국내 첫 전 교과과정을 영어로 이수하는 영어전용과정이라는 점 이외에도, 외국인 전임교수 임용, 최우수 교수의 참여, 해외대학과의 교환교수 및 학생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파격적인 장학금 지원,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선진적 교과과정 등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교육시스템으로 출범하였다.

○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교과과정 및 특징

- 한국 최초로 전 과정을 영어로 강의하는 단과대학 개설
-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국내외 최우수학생 유치
- Oxford/Cambridge의 Honors Program 벤치마크
- 1년간 해외 파견 및 학생 교환을 통해 교과과정 공동 운영

- 해외 유명대학과 복수학위제 추진 (일본 게이오대학과는 2005학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 해외 석학 석좌교수 영입 및 해외 자매대학 교수 강의 참여
-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본사 등 해외 취업시장에 졸업 후 직접 진출
- 일반학생의 영어 우등과정(Honors Program)과 연계
- 연세대의 세계적인 우수 전임교수 활용
- 10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20명의 신규 전임교원 임용
- 학제간 분야 등 선도적 전공분야의 개발 및 운영
- Study Abroad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한국학 과정 개설
- 문학과 문학, 경제학, 정치학, 국제학, 생명과학과 기술, 한국학과정
- 500여개 대학 간 네트워크 활용

□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한국학, East Asian Studies, 정치학, 법학, 문학, 경영학, 한국어 등 50여 과목을 설치하여 이를 배우는 기회를 부여한다.

입학자격: 대학교에서 최소 1학기 2쿼터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2.5(4.00scale)이상, 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외국인, 영어 사용하지 않는 국가 학생은 550 TOEFL이상을 요구한다.

여름학기가 부여하는 기회

- 원하는 경우 5주간의 국제 경영 인턴쉽
- 문화체험여행
- 한국체험 프로:태권도,도예,사물놀이,한국요리등..
- 연세동문 장학금, 김숙희&도심 장학금

□ 국제어학원 운영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과정을 각 9단계로 나누고 Level Test에 의

한 반 배정을 통하여 국가공인 영어회화 자격시험, 교육자를 위한강의, 기업체 위탁연수, 어린이영어캠프 등에서 수준별 회화와 이론을 교육하고 평가 내용은 청취력과 회화능력(40%), 문법 및 작문(40%), 기타(20%) 등이다. 시험은 총 평가의 80%를 차지하며 기타는 학생의 참여도와 학습태도에 의하여 평가된다. 단, 총 수업 시간의 15%이상 결석한 학생은 그 등급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각 언어과정의 최종단계이수 후 연대총장명의 수료증을 수여 하고 각 단계프로그램은 4주~10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어학원의 과정을 마친 대다수의 외국학생은 연세대학과 대학원 본 과정으로 진학 또는 편입을 희망하고 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 연세대학 학생회관내에 Foreign Language Only Zone운영

연세대학 학생회관내에 Foreign Language Only Zone운영하여 이 지역에 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영어 리더쉽 포럼 등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세이 작문 Q&A도 실시하고 있다.

(다) 교수·학술교류 프로그램

연세대학의 교수·학술 프로그램은 각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서는 공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교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 III-13> 공과대학 해외교수 초빙지원사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해외교수요원 초빙지원 사업	
사업목적	국내 대학이 IT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우수 인재와의 연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 산업체 및 연구소등이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도록지원함. 또한 본 대학이 추진하는 inbound 국제화에서도 적극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해외우수 인재들의 강의를 수강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운영방법	인건비 및 국제공동연구비 포함 정부지원금으로 연간 3억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대학 재량껏 사용 가능함. 각 대학은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 해외교수 체재비, 숙소, 기자재, 사회보험 등을 대응 투자해야 함. (이는 요구조건이기는 하나 필수조건은 아님)
초빙조건	<p>-6개월 이상 강의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 최소 3명 이상 초빙해야 함;</p> <p>해외 우수대학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강의 및 연구(논문지도 포함)를 할 수 있는 자 • 재외동포의 경우 중,고,대학을 해외에서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한국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강의중심교수: 주당 6시간(2과목) 이상 강의 • 연구중심교수: 주당 3시간(1과목) 이상 강의 <p>각 학기 별로 해외교수 강의 과목이 5개 이상 개설 되어야 함.</p>

<표 III-14 > 교수초빙사업 연도별 실적

	초빙 해외교수	초빙/활용 내용	초빙 기간 (개월)
1차년 도 (우수 대학 및 개별 초빙)	V. John Mathews	적응신호처리 및 디지털신호처리 강의 국제공동연구 1건 완료 (Adaptive Audio Equalization and Cross-talk Cancellation for 3-D Sound Reproduction)	10
	Francis Neelamkavil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강의 및 국제공동연구 1건 완료 (Research on Interactive 3D Data Visualization)	6
	Thomas Eriksson	정보이론 강의 및 국제공동연구 1건 완료 (Development of Robust Speaker Verification Algorithms)	6
	Ikuo Awai	마이크로소자특론 강의 완료	1
	Anders Host-Madsen	통신시스템특론 강의 완료	2
	Jin U. Kang	광섬유소자 강의 완료	2
2차년 도 (우수 대학)	Lim Nguyen	대역확산통신 및 디지털신호처리 강의 국제공동연구 1건 완료 (Research on Subcarrier Multiplexed Optical Links for Optical Access Network)	12
	Vason P. Srini	임베디드 시스템 및 컴파일러 설계 강의 국제공동연구 1건 완료 (Research on Embedded System for Next Generation Smart Device)	12
	Hiroyuki Arai	마이크로파 해석 특론 강의	2

3차년도 (개별 초빙)	Vason P. Srini (계속지원)	소프트웨어공학 강의 및 자체 프로젝트 공동수행	6
	Sukumar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전력전자 강의 전력전자 교과과정 개편 작업에 허용	6
4차년도 (우수 대학 및 개별 초빙)	Tho Le-Ngoc	광대역무선통신 강의 및 국제공동연구 진행	6
	Hocine Cherifi	시각인식특강, 이산수학 강의 및 국제공동연구 진행	6
	Amos Omondi	디지털신호처리, 연산 회로설계, 데이터구조강의 완료 및 전자회로, 프로세서특론 강의 진행 중	12
	Abraham Ajith	디지털논리회로 및 인공지능 강의 진행중	6
	Sukumar (계속지원)	디지털논리회로 및 컴퓨터구조 강의 완료	6

연세대학교는 NURI, BK21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학술교류와 교수교류의 연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대학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생 부족과 학생들의 대학 선호가 우선되고 있는 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대학의 국제화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 외국대학 교류 관련 2005년 교육부사업 예산 지원현황

아래의 표와 같이 4년제 대학의 경우 BK21, NURI사업은 물론 학술진흥재단과 학술진흥과 등에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대학의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그 범위와 대상, 프로그램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표 III-15 > 2005년 외국대학 교류 관련 예산현황(교육부사업)

(백만원)

주관부서 (기관)	사업명	사 업 개 요	예 산	비 고
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 교류활동지원	°지원분야-전학문분야: DAAD(독일 학술 교류처) °05년실적(8월말 기준)	800	
	대학교수해외 방문 연구지원	°지원대상: 대학전임교원(연구비) °지원분야: 전 학문분야 °05년실적: 95명 지원	1,975	
BK21 기획단	글로벌캠퍼스 프로그램(2단 계 BK21)	MS사등 해외 우수 기업에 대한 현장 체 험을 통해 Global Campus 프로그램 추 진 °지원대상: BK21사업단 소속 석·박사, 대학원생(졸업생 포함) °지원분야: IT·BT 분야부터 우선추진, 향후 타 분야로 확대 °지원내용: 해외인턴십, 해외인턴십전문 과정 지원(인턴십+기술경영과정 (비학위)) *과학기술부와 공동추진	2,000	
NURI 추진팀	참여대학의 국제화노력	°지원대상: 누리사업단 소속학생 °지원내용: 외국인학생유치·지원, 교육 과정국제화, 대학국제교류 등		평가 항목 에 반영
학술진흥과	박사 후 해외연수과정 (학술연구조성)	°지원대상: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중 소속이 있는자(체제비등)	12,000	

	사업)	°지원분야: 과학기술 전 분야(의학은 기초의과학만 지원) °05년실적: 443 과제 수행		
학술진흥과	국제공동연구 (학술연구 조성사업)	°지원대상 -해외공동연구지원사업: 국내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 또는 자연계열 대학(원)생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용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및 기업체 기술력 향상 기여 과제중 러시아, 중국등 현지인력의 집중 활용을 통한 단기 실용화가 유망한과제 °지원분야 -과학기술전분야 및 차세대 성장동력 80개 분야 등 국가가 정하는 핵심기술 분야 °05년실적: 143 과제수행	3,800	
학술진흥과	국제인력교류 (학술연구 조성사업)	°지원대상 -박사학위 5년이상 경력자, 해외유수대학 석좌교수,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및 석·박사과정 외국학생·연구원 °지원분야: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초과학 기술 및 핵심전략 기술 분야 °지원내용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 사업), 해외석·학사단기유치활용사업, 외국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수 °05년실적: 321과제 수행	10,000	

나. 전문대학

여기서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진전문대학

영진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 대학 교수들에 대한 연수 실시

□ 영진전문대학의 외국 대학 교수들에 대한 연수는 필리핀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IT연수에서 시작되었다. 이 IT연수는 2002년 5월 필리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의 칼리토 푸노(Carlito S. Puno) 위원장과 일행이 영진전문대학을 방문하여 교육협력 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되어, 지금까지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 62명이 3차에 걸쳐 8주간의 IT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I-16>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 IT 연수 추진내용

구 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비	비 고
1차	2002. 10. 24 ~ 12. 18	17명 (6개 국립대학)	1인당 \$1,300	컴퓨터정보기술계열에서 IT일반과정 및 6개 분야 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
2차	2003. 2. 14 ~ 4. 8	22명 (14개 국립대학)	1인당 \$1,300	
3차	2004. 7. 9 ~ 8. 31	23명 (6개 국립대학)	1인당 \$800	

□ 영진전문대학은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들의 IT 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5월에는 필리핀 카비테 스테이트 대학(Cavite State University) 총장 루페르토 상갈랑(Ruperto S. Sangalang)을 비롯하여 국립대학교 총장단 19명이 참가한 주문식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영진전문대학에서 1인당 100달러씩 받고 실시한 이 연수교육은 주문식 교육의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국내 대학들의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 주문식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 내 현장 견학 등에 이어 경북 구미의 LG필립스 LCD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필리핀 국립대학교 총장단을 대상으로 한 주문식 교육 연수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2004년 9월에는 2차로 필리핀 조세 리잘 대학(Jose Rizal University) 총장 비센테 파벨라(Vicente K. Fabella)를 비롯한 사립대학교 총장단 17명이 영진전문대학을 방문하여 주문식 교육 연수를 받았다.

<표 III-17> 필리핀 대학 총장단 주문식 교육 연수 추진내용

구분	연수기간	연수인원	교육비	연수내용
1차	2004. 5. 19 ~ 5. 22	19명 (8개 국립대학)	1인당 \$100	-주문식 세미나 (기본이론강의) -주문식 교육 토론회 (질의 & 응답)
2차	2004. 9. 5 ~ 9. 9	17명 (10개 사립대학)	1인당 \$100	-대학내 현장견학 -산업체 방문(LG필립스 LCD 구미 사업장)

□ 2004년 4월에는 베트남 국립 호치민과학기술대학교(UTE : University of Education) 기계공학전공 교수 10명으로 구성된 기술연수단이 3주에 걸쳐 1인당 500달러씩 총 5,000달러를 내고 CAD/CAM 분야에 대한 주문식 교육과정 연수를 받았다.

<표 III-18> 베트남 호치민기술교육대학 교수 CAD/CAM 연수 추진내용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비	교육과정	
			내용	시간
2004. 4. 12 ~ 5. 3	10명	1인당 \$500	3차원 CA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활용 과정	70
			CNC 실무 및 CAM 실습	20
			시제품 제작 및 역공학	20
			3차원 측정 및 나노 공학 이해	12

(나) 필리핀 대학교수들을 위한 대학원 설치·운영

한편 2004년 8월에 영진전문대학은 경북대학교와 함께 필리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와 국제협약서를 체결, 필리핀 국립대 교수들을 위한 IT분야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석사과정의 이론수업은 필리핀 현지로 파견된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진행하며, 실습교육은 필리핀 교수들이 영진전문대학에 와서 받고, 학위수여식은 경북대학교에서 갖게 된다. 이 같은 교육수출은 앞서의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IT연수와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총장단을 대상으로 한 주문식 교육 연수 등에서 보여준 교육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

□ 영진전문대학은 주문식 교육을 해외 현지업체로 확대한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학생 양성방식을 현지 산업체와 산학협력에 의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체제로 특성화한 것으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립시키고 전공능력은 산업체 요구에 맞추어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그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현재 영진전

문대학은 LG전자 중국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에 120명의 인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I-5>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의 흐름도

□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인력을 예비사원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둘째, 해외진출 산업체는 한국을 잘 아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지 중간관리자로 육성이 용이하다.

셋째, 현지 산업체-현지고교-국내대학 간 Win-Win 협력으로 국제적인 위상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라) 해외 연구교수제

영진전문대학은 전임교원에 대해 국제화 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어 향후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연구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연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해외연구 교수에 대한 처우는 연구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함과 아울러 왕복 항공료

와 체제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연구기간을 재직년수에 포함하고 있다.

(마) 테마파크형 영어마을 조성(대구시 영어마을 추진기관)

영진전문대학은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따라 ‘영진 글로벌 2010’ 목표 아래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어교육원에 30여명의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여 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교내에 글로벌 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곳에서 외국인과의 직접 대화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해외학기제, 해외인턴십, 해외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외국의 문화를 직접 현지 체험을 통해 터득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교내 모든 사인(sign)을 영문표기화 하고, 수업시간 중에 Classroom English를 통하여 수시로 영어를 활용하게 하는 등 캠퍼스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영진전문대학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대구시 영어마을 조성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선정과정에 지역 4년제 대학과 당당히 경쟁하여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진전문대학이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2007년까지 1차 완성, 2012년 최종 완성을 목표로 English Village를 건설할 계획인데 현재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과는 달리, 학습과 체험을 겸한 테마파크형으로 건립하게 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이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초·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돼 지역 영어 교육향상과 지역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2) 동양공업전문대학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 및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외국 유학생 입학 현황

<표 III-19> 년도별 입학 현황

입학 년도	학과(전공)												합계
	기계	기계 설계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응용 화학	건축	전산 계열	실내 건축	시각 디자인	자동 화 시스 템	경영 계열	
1988	5	-	2	2	-	-	-	-	-	-	-	-	9
1989	4	-	2	4	-	-	-	-	-	-	-	-	10
1990	5	-	2	2	-	-	1	-	-	-	-	-	10
1991	3	3	2	2	-	-	-	-	-	-	-	-	10
1992	2	-	9	2	-	1	-	-	-	-	-	-	14
1993	5	-	2	4	4	-	-	-	-	-	-	-	15
1994	6	-	2	5	2	-	-	-	-	-	-	-	15
1995	2	-	4	4	4	-	1	-	-	-	-	-	15
1996	-	-	2	9	3	-	1	-	-	-	-	-	15
1997	1	4	4	4	2	-	-	-	-	-	-	-	15
1998	3	2	2	7	1	-	-	-	-	-	-	-	15
1999	-	-	-	-	-	-	-	1	-	-	-	-	1
2002	2	4	-	11	2	5	1	1	-	-	-	-	26
2003	6	6	3	6	6	8	-	7	1	-	1	-	44
2004	8	6	5	10	8	10	-	1	-	-	2	-	50
2005	21	10	5	15	3	10	-	4	2	-	4	1	75
2006	21	13	6	15	-	10	-	-	-	2	-	3	70
합계	94	48	52	102	35	44	4	14	3	2	7	4	409

<표 III-20> 국가별 입학 현황

국가별	말레이 시아	중국	베트남	터키	온두라 스	일본	필리핀	계
입학인원	395	7	2	1	1	2	1	409

(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운영 현황

□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연계 편입제도 도입 시행

- 국내 취업목적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므로 전문대학으로서는 순수 유학 목적의 외국인 유치가 매우 곤란한 과제임
- 동양공업전문대학은 이러한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써 4년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연계 편입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아울러 실무중심교육으로 학습언어에 대한 적응기간을 둘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도모하였음

□ 유학생 대상 학사 운영

- 4년제대학 편입을 전제로 유학생을 유치 운영함에 따라 수학과 물리 등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편입 후 학습 수월성을 제고하는 특화된 유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유학생에 대하여 교내의 각종 스터디그룹 가입을 권유하여 우리나라 학생들과 공동으로 학습 및 작품활동 등을 통하여 전공 학습능력과 외국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음
- 학기별로 민속촌 등 국내 문화유산이나 사적지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 알리기 및 지한과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표 III-21> 연계편입 협약 대학 현황

대학명	편입 사항	협약 체결 년도	비고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대학장 추천 편입	2002년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대학장 추천 편입	2002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장 추천 편입	2002년	
한양대학교	대학장 추천 편입	협약 체결 추진중	추천 편입은 시행하고 있음

<표 III-22 > 유학생 진로 현황

연도별	입학인원	진로현황
1988학년도	9	한양대학교 진학 9명
1989학년도	10	한양대 6명, 아주대 3명, 본국귀향 1명
1990학년도	10	한양대 6명, 아주대 4명
1991학년도	10	한양대 8명, 아주대 1명, 본국귀향 1명
1992학년도	14	한양대학교 진학 13명, 본국귀향 1명
1993학년도	15	한양대학교 진학 14명, 제적 1명
1994학년도	15	한양대학교 진학 15명
1995학년도	15	한양대 13명, 본국귀향 2명
1996학년도	15	한양대 4명, 본국귀향 11명
1997학년도	15	한양대 4명, 본국귀향 11명
1998학년도	15	한양대 9명, 본국귀향 6명
1999학년도	1	제적 1명
2002학년도	26	고려대 16명, 한양대 9명, 본국귀향 1명
2003학년도	44	고려대 26명, 한양대 16명, 본국귀향 2명
2004학년도	50	고려대 19명, 한양대 20명, 11명 재학중
2005학년도	75	74명 재학중, 1명 제적
2006학년도	70	재학중
계	409	고려대 61명, 한양대 146명, 아주대 8명, 본국귀향 36명, 제적 3명, 155명 재학

(다) 말레이시아 유학생 개요

□ 유학배경 및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의 Look East Policy 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말 경제 교류 협약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차원에서 1988학년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액 학비지원**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말레이시아 유학생의 학업 이수과정

고교 졸업 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을 거쳐 3개월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8월말에 입국하여 1년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및 공학 기초과목을 습득한 후 동양공업전문대학 입학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3학년 편입과정을 거쳐 학사학위 취득 후 귀국 함



<그림 III-6> 말레이시아 유학생 학업 이수과정 모형

(3) 인덕대학

인덕대학의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중국 북경 지질대학에서의 ‘임베디드 AVR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로봇’ 교육 실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모교이며 명문 국책 대학인 중국 북경의 지질대학이 인덕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이 교육은 단순히 몇 시간 강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규과정의 과목으로 편성을 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은 지질대학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검증하여 수여하는 객좌교수로 인덕대학 교수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였으며, 인덕대학 교수가 개발한 교재 및 교육과정, 시뮬레이터, 로봇을 가지고 ‘Doctor Kim’s Robot’이라는 명칭하에 정규교과목으로 교육을 하였다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가) 추진과정

2006년 1월에 인덕대학 교수가 개발한 ‘임베디드 AVR 마이크로프로세서 시뮬레이터 및 물체인식 추종 로봇’과 교재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홍콩의 ‘국제 전자기기 및 게임’ 전시회에 전시를 하였다. 그때 이를 본 지질대학의 관계자가 해당교수를 2월초에 정식 초청을 하여 북경 지질대학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방문시 지질대학의 공과대학 및 대학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과목을 정규과목에 편성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2월 17일 인덕대학과 지질대학간의 학술 교류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협의 내용 및 추진결과

□ 객좌교수 임명

국책대학인 지질대학에서의 객좌교수 임명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해당교수의 이력 및 면담을 통한 검증 후 지질대학에서 객좌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6년 7월 19일 오전 9시에 중국 공산당 교육부 서기, 지질대학 총장 등 여러 요인들이 참석하여 임명식을 가졌다. 객좌교수는 우리나라의 석좌교수에 해당되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지질대학의 경우

해외의 인사에게 수여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객좌교수로 임명 받음으로써 향후 지질대학의 Faculty로서 강의 및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덕대학과 지질대학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학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주간의 여름학기 정규교과목 개설 및 강의

교육은 해당교수의 편의상 여름학기에 6학점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6주(7월 3일부터 8월 11일) 240시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수강 학생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대학원생 중에서 교육에 적합한 20명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였다. 6주의 교육은 인덕대학의 해당교수가 지명한 지질대학의 교수가 3주에 걸쳐서 이론 및 기초교육을 하고, 응용부분의 3주 교육을 인덕대학의 교수가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교수가 개발한 교재 및 교육기자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과목을 개설하였다는 점과 교육내용 및 과정을 전적으로 자신이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대학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이러한 예는 중국대학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 중국국제교육박람회 초청 참가

이번 교육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중국 국제 교육 박람회 (2006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에 초청을 받아서 지질대의 교육에 사용된 모든 교재 및 교육 기자재 그리고 해당교수가 지도하고 있는 인덕대학의 마이크로로봇동아리의 그동안 실적물을 박람회에 전시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마이크로로봇동아리의 회장 등 3명이 전액 지질대학의 비용으로 초청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초청은 전문대학의 동아리가 중국 국책대학의 초청으로 국제 박람회에 초청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단순 대회 참가가 아닌 국제 박람회의 초청 참가로 국내 동아리의 국제화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생 및 학문 교류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인덕대학 졸업생의 지질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에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질대학생의 인덕대학 연수 및 학점 인정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기로 잠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류의 일환으로 중국의 업체에 인덕학생의 취업 알선 및 연수를 하여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 지질대학내의 교육 공간 및 공동 교육장 개설

200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질대학에서 건축 중인 IT 종합 건물에 인덕대학의 이름으로 상설 교육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합의되었다. 우선 이 교육장을 통해서 지질대학의 어느 학과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청을 하여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며, 향후 지질대학에서는 중국 전역의 대학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시범적인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 교재 한중 공동출판

지질대학의 후원으로 해당교수가 집필한 교재를 한중 공동으로 9월중 출판하기로 하였으며 지질대학의 공식교재로 채택하고, 중국에서 교재를 판매하기로 협의하였다.

□ 중국 EBS 방송에 방영

이번에 교육한 내용은 편집되어 중국 EBS 방송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식 방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9월중에 중국 EBS 방송 및 인민일보에 해당교수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

□ 향후 협력방안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중국 칭화대 및 교통대에서도 지질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왔다. 특히 중국 교통대의 경우는 학장이

직접 찾아와서 인덕대학이 독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0명 모집의 학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학회에서는 해당교수의 교육프로그램을 유료화 하여 개설하고 ‘한중기사자격증 및 로봇대회’를 만들자는 협의를 가진 상태이다. 그리고 지질대학과는 향후 지질분야, 보석분야, 동영상 애니메이션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 시사점

위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유치는 더 이상 대학 내의 국제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산업으로 확대되었고 국가 간에 산업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를 보면 유학생 유치는 더 이상 교육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분야 개발 분야 뿐 아니라 상무성에서 대학홍보와 유학생 유치 마케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및 선진 유럽으로 편중되었던 유학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개발도상국으로서 유학생 및 교육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유학선호 국가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과 국내 우수 대학들은 대학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중점을 두는 분야도 다르지만,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부 및 학교당국의 국제화에 대한 목표 설정과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교육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유연한 비자발급정책과 상공부의 교육홍보와 마케팅 예산지원 그리고 노동부와 산자부에서 산업 연수생의 확보까지도 교육정책과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국제교류 정책은 관련기관과의 공조시스템을 통해 상호연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 등의 정책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전문대학은 교육수출, 교육산업 정책에 따라 주로 해외 교육 시장 진출에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고도로 전문화시킨 사립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VET 분야가 전체 호주 교육기관 중 가장 큰 유학생 유치 신장율(매년 20~30%)을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산업 전반의 필요 인력 수급 리스트를 정하고 필요 인력을 일정 기간의 수업이 끝나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이민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제도는 취업 및 이민을 원하는 이들의 취업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연수생의 무작위 입국과 그들의 언어 및 기술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산업 연수 희망자들을 근무 희망지역의 전문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켜 한국어와 일정수준의 해당 기술을 익히고 산업현장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대학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동시에 현장 근무 준비가 된 연수생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실습과 인턴쉽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질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의 질’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는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AQTF)에 의해 이미 호주 전체가 통일되었고 모듈화 된 국제화 교육 공통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호주의 대학들은 독자적인 학업, 성적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비영리 독립기관인 **AUQA(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ssurance)**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표준 교육과정의 운영여부와 해외에 설치된 캠퍼스, 현지 협력 교육기관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교가 해외 캠퍼스에서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은 호주에서 제공되는 코스와 최소한 동일한 수

준의 코스를 제공해야 하며 코스의 모든 범위를 전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셋째, 국제교류가 활발한 대학은 유학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학사 관리가 엄격하고, 학생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BC주의 VCC와 BCIT대학은 'Commons'라는 도서관의 열린학습 공간에서 학생들 간의 Tutoring과 정해진 시간에 교수가 과목을 표시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형태의 그룹과외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멀티교육시설을 갖춘 작은 스튜디오 형태의 그룹스터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이 학생중심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학생들의 대학적응을 도우면서 엄격한 수업관리와 상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효율적 유학생관리를 위하여 One Stop System을 도입하여 유학생의 입학허가에서부터 입국, 입학, 수강신청, 학점관리, 숙소, 상담, 정보교류 등의 모든 과정을 국제협력실에서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입학한 유학생들이 중도 이탈하거나 수업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One Stop System 도입 이후로부터는 전체적으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국제협력실과 친숙해지고 따라서 학업 뿐 아니라 문화정보 등의 교류가 활발하고 소속감이 생겨 대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넷째, 다양하고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교육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RMIT와 국내 연세대학교 등을 비롯한 대규모 대학들이 동남아 국가에 분교를 설치하였고 말레이시아 LUCT는 4000명 학생정원 중 유학생이 85개국으로부터 40%인 1600명을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유학생들에게 아시아 내에서 보다 저렴한 유학비용으로 유학하는 것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유학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졸업 후 수학한 나라에 취업 기회확대 및 취업이민과도 연계시킬 수 있어

학생들의 유학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진전문대학은 해외를 겨냥한 주문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을 통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확립시키고 전공능력은 산업체 요구에 맞추어 양성하고 있다. 현재 LG전자 중국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에 120명의 인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연계 주문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학생의 진로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경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해외 교육 시장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미래학회는 미래의 대학교육 중심이 온라인교육으로 옮겨진다고 예측하고 세계 속의 교육 콘텐츠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인하여 온라인이 일찍 발달되었고, 호주대학의 국제화 교육 인프라는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AQTF)에 의해 이미 호주 전체가 통일되고 모듈화 된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므로 검증된 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호주의 프로그램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예고되었다. 호주는 TAFE Global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hina, Hong Kong, Fiji, Papua New Guinea, New Zealand, Singapore, Malaysia and United Arab Emirates 등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TAFE의 경우 해외 원격 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교육 시장 진출을 통해 국제화의 활로를 찾고 있고 외국대학들은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에서 손꼽는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간파한 외국대학들은 우리나라 케이블 TV에까지 그들의 온라인 교육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시장에 선점에 참여하여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홍보경쟁을 위해서는 체계적 마케팅시스템 구축과 이를

운영할 국제교류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련정부기관, 대학 산업체들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대학 및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유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말레이시아 LUCT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문인력인 국제교류처 직원 30명중 국내 마케팅은 7명이 맡고, 23명의 직원이 유학생 유치를 맡고 있으며 LUCT 졸업한 유학생을 마케팅인력으로 채용 고국담당으로 업무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고 유관 정부기관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현재 국내 상당수의 대학들이 해외 현지 1인 사무실 혹은 지사 설립을 통하여 외국인 유치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홍보 사무실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들어가고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조사 및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제교류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이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교류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하고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국제교류를 담당시킴으로써 공신력을 가지고 정보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동 마케팅으로 비용절감을 이루고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형된 장학금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료 덤핑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의한 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강점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공동 유학생 모집단이나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여 각 대학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를 통한 외국과의 신뢰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교육프로그램, 교육인프라, 교육인적요소에 이르는 공간적인 프로젝트로서 국제교류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았고 여기에 시간적 요소가 하나 더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교류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과 정부와 대학의 지원 하에서 만이 성공적인 국제교육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현황분석

-
1.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2.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3. 국제 협력 학제 프로그램
 4.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5. 교환 교수 프로그램
 6. 분석결과의 요약
-

I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현황분석

본 현황조사는 전국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조사서가 회수된 전국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73개 대학 중 국제 교류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없다고 응답한 4개 대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69개 대학의 조사 결과가 분석에 반영되었다.

1.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전체 대학 중 설문 대상 대학의 분포는 다음 <표 IV-1>과 같다. 대상 대학 수에 있어서는 경상권(경남북, 대구, 울산, 부산)이 26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20개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 분석 대상 전문대학 대학 현황

(단위 : %, 개교, 명)

지역구분	대학 수(개교)
1.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	28% (20)
2. 충청북, 대전	8% (6)
3. 강원	5% (4)
4. 전남북, 광주, 제주	18% (13)
5. 경상북, 대구, 울산, 부산	36% (26)
계	100%(69)

국제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 과정, 유학생 대상 정규 전문학사 학위 과정, 공동 학위 및 복수 학위, 학점 교류, 교환학생, 해외 인턴쉽, 교환 교수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지며 <표 2-2>와 같이 한국어 과정은 조사대상 69개 대학 가운데 31%인 22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은 약 62%인 42개교였다. 이는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중 약 52%정도(22/42)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교육 과정운영이나 복수학위제의 운영 등 국제 공동 학제는 전문대학에서도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점교류나 교환 학생 제도는 국제 공동 학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외 인턴쉽은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 의해 조사대상 대학의 42%에서 참가할 만큼 확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 개교, 명)

프로그램 구분	운영 비율	참여인원(명)
1. 한국어과정	31%(22)	676
2. 유학생 정규학위과정	62%(43)	1,232
3.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21%(15)	634
4. 학점 교류	13%(9)	335
5. 교환 학생	15%(11)	189
6. 해외 인턴쉽	42%(29)	403
7. 교환 교수	18%(13)	28
계	100%(69)	3,497

※ 참여인원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참여자임

또, 각 대학에서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말까지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특정 항목에 편중되지 않고 각 항목마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학들이 국제화를 상당히 폭넓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3> 국제교육 프로그램 실행 계획

(단위 : %, 개교, 명)

프로그램 구분	계획중인 대학
1. 한국어과정	34%(24/69)
2. 유학생 정규학위과정	34%(24/69)
3.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27%(19/69)
4. 학점 교류	30%(21/69)
5. 교환 학생	34%(24/69)
6. 해외 인턴십	39%(27/69)
7. 교환 교수	21%(15/69)

학과 신설, 통폐합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 조정 시 외국인 유치를 위한 학과나 공동학위, 복수학위 등 국제 교류가 결정인자중의 하나로 검토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인 52%의 대학들이 구조조정 요소 중의 하나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24%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결정인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5%정도의 대학에서는 이미 결정인자로 작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29%의 대학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대학 구조 조정시 국제교류의 영향

(단위 : %, 개교)

반영 수준	계획중인 대학
1. 구조조정 요소중의 하나로 검토되지 않음	52%(36)
2. 구조조정 요소중의 하나이나 결정인자는 아님	24%(17)
3. 결정인자로 작용한 적이 있음	5%(4)
4. 기타	10%(7)
5. 무응답	7%(5)

구조조정 요소 중의 하나로 검토된 17개 대학 중 8개 대학(47%)이 경상권

소재 대학이었고 결정인자로 작용했던 4개 대학 중 3개 대학(75%)이 경상권 소재대학으로 설문조사 대상대학에서 경상권 대학 비율(36%)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별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5>는 대학의 총 예산 대비 국제교류 예산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72%의 대학에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비중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국제화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투자는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84%의 대학에서 국제교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고 변화 없다고 답변한 15%를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그 절대금액은 적지만 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 IV-7>의 결과를 보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는 예산의 증가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권역 소재 대학에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가 대부분이고 ‘변화없다’는 응답을 한 10개 대학 중에는 1개 대학만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5> 대학 총 예산 대비 국제교류 예산 비율

(단위 : %, 개교)

국제교류예산 비중	해당 대학
1. 1%미만	72%(47)
2. 1%~3%	18%(12)
3. 3%~5%	6%(4)
4. 5%~7%	0%(0)
5. 7%~10%	0%(0)
6. 10% 이상	3%(2)
계	100%(65)

<표 IV-6> 대학의 국제 교류 예산의 증가

(단위 : %, 개교)

대학 국제교류 예산의 증가	해당 대학
1.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7)
2.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74%(50)
3. 변화 없다	15%(10)
4.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1%(1)
5.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0%(0)
계	100%(68)

<표 IV-7>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증가

(단위 : %, 개교)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의 증가	해당 대학
1.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6%(11)
2.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67%(46)
3. 변화 없다	15%(10)
4.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1%(1)
5.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0%(0)
계	100%(68)

2.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유학생의 유치목적은 대학의 국제화 이미지 형성(62%)이 가장 높았고 학생자원 부족현상에 따른 안정적 대학 재정 확보 목적(33%)과 한국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고취(30%)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정부 정책에 의한 영향(3%)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덜 한 수도권 대학들이

속속 유학생 모집 대열에 동참하면서 그 목적이 ‘재정기반확보 차원’에서 ‘국제화 된 이미지 형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IV-8> 유학생 유치목적

(단위 : %, 개교)

유치목적 구분	비율
1. 한국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고취	30%(21/69)
2. 학생부족현상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33%(23/69)
3. 대학의 국제화 된 이미지 형성	62%(43/69)
4. 졸업생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19%(13/69)
5.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개선 기여	12%(8/69)
6. 정부의 정책변화로 대한 대응	3%(7/69)
7. 기타	10%(2/69)

과정별 유학생인원을 보면 전체의 29%가 비학위과정인 한국어 과정에 재학하고 있고 나머지 71%는 정규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교환학생은 제외되었다. 우선 총 유학생 인원은 조사대상 69개교(실제 유학생 재학 53개교)에 1725명이다. 실제 설문지를 회송하지 않은 대학들까지 포함하면 2500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유학생 인원의 증가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1학년이 전체의 43%(736명)로 2학년의 28%(476명)에 비해 1년 사이에 55% 가까이 인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정별, 학년별 절대인원은 모두 증가하였다. 전체 유학생 수에서는 27%, 가장 많이 증가한 한국어 과정에서는 83%가 늘었고 상대적인 비중은 한국어 과정의 비중이 20%에서 29%로 9% 가까이 증가한 반면 1,2,학년은 각각 5%, 4% 감소하였다.

<표 IV-9> 과정 및 학년별 유학생 인원

(단위 : %, 명)

학년 구분	인원(2004)	인원(2006)
1. 비 학위과정 (한국어 과정 포함)	269명(20%)	493명(29%)
2. 1학년	648명(48%)	736명(43%)
3. 2학년	430명(32%)	476명(28%)
4. 3학년	13명 (1%)	20명(1%)
계	1360명(100%)	1725명(100%)

한국어 과정 학생의 증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에 따른 증가분과 한국어 교육이 필요 없던 재외동포 유학생의 비중 감소에 따른 한국어 과정학생 증가분이다. 한국 내 전문대학 유학에서 필수적인 어학 교육의 강화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중국동포 등 재외 동포를 위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던 대학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파생 문제로 인해 그 구도를 순수 외국인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과 재학생 수의 정체 현상이다.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10%정도의 증가는 있으나 그동안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은 수치이다. 또, 재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기 입학생의 수가 보존되지 못하고 2, 3학년 재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표 IV-10>은 최근 3년간의 유학생 졸업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졸업인원 역시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4년 2월 졸업생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표 IV-10> 유학생 졸업인원

(단위 : 명)

졸업년도	인원	증가율
1. 2002년 2월 졸업 (2004년 연구결과)	35명	-
2. 2003년 2월 졸업 (2004년 연구결과)	50명	43%
3. 2004년 2월 졸업	129명	158%
4. 2005년 2월 졸업	240명	86%
5. 2006년 2월 졸업	270명	13%
계	724명	

유학생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에 대한 유학생 의존도의 완화 현상이다. 2년전 연구 통계에서 전체 인원의 89% 수준이었던 중국 출신 유학생은 올해 83%까지 감소하였다. 말레이시아(9%)의 경우는 특정한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로 중국 학생과 함께 전체 인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가 수에 있어서는 2년 전 16개국에서 올해 21개국으로 증가하였고 베트남(5%), 몽골 등이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이 97%를 점유하고 있어 유학생 출신지역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데이터의 분석은 대상 학생 1,725명중 국적이 확인된 1,7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3년간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계획을 보면 전체 대상 대학의 61%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33%는 현 상태 유지, 6%는 중단 또는 축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현 상태 유지 의견(33%)과 매년 10~30%의 증가 의견(30%)이 두 축을 이루고 있고 전체의 10%는 매년 30%이상의 빠른 속도 증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추진하자는 의견은 대체로 이미 50명이 넘는 많은 학생을 보유한 대학이거나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여러 난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대학

일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수는 많지 않지만 2개 대학에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유학생 유치를 중단할 계획(3%)을 가지고 있었다. 2년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급속한 증가를 희망하는 대학은 줄어들고 10%미만의 완만한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11> 유학생 출신국가 분포 (어학연수생 포함)

(단위 : 명, %)

국가구분	2004		200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중국	1181	89%	1412	83%
2. 일본	12	≤1%	12	≤1%
3. 베트남	2	≤1%	89	5%
4. 말레이시아	97	7%	147	9%
5. 대만	11	≤1%	5	≤1%
6. 러시아	5	≤1%	5	≤1%
7. 미국	3	≤1%	9	≤1%
8. 우즈베키스탄	2	≤1%	1	≤1%
9. 카자흐스탄	3	≤1%		
10. 헝가리	2	≤1%		
11. 네팔	1	≤1%	5	≤1%
12. 몽고	4	≤1%	6	≤1%
13. 잠비아	2	≤1%		
14. 아르헨티나	1	≤1%		
15. 파키스탄	1	≤1%	1	≤1%
16. 캐나다	1	≤1%	2	≤1%
17. 호주			3	≤1%
18. 터키			2	≤1%
19. 이란			1	≤1%
20. 인도네시아			1	≤1%
21. 라오스			1	≤1%
22. 캄보디아			2	≤1%
23. 멕시코			1	≤1%
24. 타지키스탄			1	≤1%
25. 스리랑카			1	≤1%
총 계	1328	100%	1707	100%

<표 IV-12> 향후 3년간 유학생 유치 계획

(단위 : %, 개교)

유치 계획	2004년	2006년
	비율(응답수)	비율(응답수)
1. 매년 30%이상의 빠른 증가를 목표로 함	16%(10)	10%(7)
2. 매년 10~30%정도의 증가를 목표로 함	30%(18)	30%(20)
3. 매년 10% 미만의 완만한 증가를 목표로 함	15%(9)	21%(14)
4. 현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추진	33%(20)	33%(22)
5. 여러 문제로 인해 유학생 유치 중단 계획	5%(3)	3%(2)
6. 기타	1%(1)	1%(1)
총 계	100%(61)	100%(66)

최근 정부의 Study Korea 프로젝트나 유학생 프로그램의 대학 평가 요소 반영 정책이 대학의 유학생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IV-13>과 같은 의견이 조사되었다. 전체의 52%에서는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정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검토의 계기를 제공(11%)하거나 실제 유학생 유치의 계기(7%), 유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기 (29%) 등 정부의 정책이 대학 정책 변화에 유효하였다는 의견도 47%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경로에 있어서는 해외 현지유학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한 유치가 31%로 가장 많은 대학들이 이용하고 있고, 자매대학 연계 방법은 3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조사는 각 대학별로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조사한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간 각 대학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했던 국내 에이전트들에 대한 의존은 11%에서 3%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21%에서 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외국학생을 모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를 돌며 보다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박람회를 통한 공개적인 유학생 확보는

2%에 불과하나 국내에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을 학생으로 유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7%로 나타났다.

<표 IV-13>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따른 영향

(단위 : %, 개교)

대학의 영향	비율 (응답수)
1. 이전에는 유학생 유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심도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됨	11%(7)
2. 실제로 유학생 유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됨	7%(4)
3.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	29%(17)
4. 정부 정책과 관련없이 대학의 일정과 계획대로 진행	52%(32)
5. 이전이나 현재 모두 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없음	1%(1)
총 계	100%(61)

<표 IV-14> 외국인 유학생 주요 유치 경로

(단위 : %, 개교)

유치 방법	2004년 비율(응답수)	2006년 비율(응답수)
1. 해외 현지 유학원 또는 에이전트 활용	21%(13)	31%(20)
2. 국내 에이전트 활용	11%(7)	3%(2)
3. 현지 고교 연계	15%(9)	22%(14)
4. 자매 대학 연계	30%(18)	30%(19)
5. 현지 한국어 학원 연계	0%(0)	0%(0)
6. 외국 지자체 및 정부 기관 연계	3%(2)	5%(3)
7. 유학 박람회	3%(2)	2%(1)
8. 국내 기존 입국자 모집	8%(5)	7%(4)
9. 기타	8%(5)	2%(1)
총 계	100%(61)	100%(64)

<표 IV-15>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시스템

(단위 : %, 개교)

유치 시스템	비율(응답수)
1. 해외현지사무소 - 대학 직접 운영	7%(5/69)
2. 해외현지사무소 - 위탁 운영	9%(6/69)
3. 해외 한국어 센터 운영	1%(1/69)
4. 해외 고교 3+2 (유학반 운영)	6%(4/69)
5. 해외 고교 연계 (졸업생 선발)	29%(20/69)
6. 해외 대학 1+2	6%(4/69)
7. 해외 대학 2+2, 2+1	12%(8/69)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 최근 들어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16%)가 늘고 있으며 해외에 한국어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나 고교 연계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활성화 된 것은 해외 고교와 졸업생 유학에 대한 협정을 맺는 것(29%)으로 나타났다.

교내 유학생 중 재외 동포 자녀의 비율은 10%미만인 대학들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재외동포 자녀 비율 50%를 초과하는 대학이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의 69%가 이 두 그룹에 속한다는 결과는 대학들이 조선족을 비롯한 재외 동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대학과 거의 받지 않는 대학으로 양극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어학 과정 개설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2년 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2년 전에는 재외동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대학이 54%로 최고였으나 현재 이 대학들중의 대다수가 재외동포 비중을 10%이하로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간접적으로 대학의 재외동포 유치사업이 일반 비동포 유학생 유치사업에 비해 높은 이탈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 수에 있어서는 재외동포 자녀 유학생이 50%를 초과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조사대상 정규과정 유학생 1232명중 218명으로 18%에 불과했고 재외동포 자녀 유학생 10%미만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953명으로 77%에 달했다. 이 결과 역시 각각 62%, 20%를 나타냈던 2년전의 연구결과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룹별 대학당 평균 재학 유학생인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초과 그룹의 대학당 평균 유학생 인원은 19.8명이고 10%미만 그룹은 4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고 있는 유치하고 있는 대학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년전에는 50%이상 그룹에서 19명, 10%미만 그룹에서 12명으로 오히려 재외동포 유학생 비중이 50%이상인 학교의 평균 재학인원이 50%정도 더 많았다. 정확히 보면 2006년 결과에서는 재외동포 자녀 비중과 평균재학생 수가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다. 즉, 지난 2년간 조선족 등 해외 동포 유학생 유치는 많이 위축되었고 상대적으로 일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V-16> 유학생 중 재외동포 자녀 비중

(단위 : %, 개교)

재외동포 자녀 비중	2004 응답비율 (응답수)	2006 응답비율 (응답수)	2004 평균재학인원	2006 평균재학인원
1. 50% 초과	54%(33)	22%(11)	19	20
2. 31~50%	10%(6)	20%(10)	12	31
3. 10~30%	10%(6)	10%(5)	20	35
4. 10%미만	26%(16)	47%(23)	12	41
총 계	100%(61)	100%(49)	-	-

<표 IV-17>은 재외동포 자녀비율별로 대학의 어학과정 개설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재외동포자녀 유학생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대학 6개교 중 1개

교에 어학과정이 개설되어 전체의 17%에 어학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재외동포자녀 유학생비율이 10~50%인 대학 11개교 중에는 7개교(64%)에 어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자녀 유학생 비율이 10%미만인 대학인데 전체 23개교 중 재학 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5개 대학을 제외한 18개 대학중 7개 대학만이 어학과정을 개설하여 39%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자녀 유학생 비율이 10%미만이라면 이미 해외에서 한국어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아닌 한국내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상적인 정규과정 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9%만이 어학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은 유학생의 졸업 후 유학 만족도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표 IV-17> 교내 유학생중 재외동포 자녀비율별 어학과정 개설비율

(단위 : %, 개교)

교내 유학생중 재외동포자녀 비율	대학의 어학과정 개설비율 (재학생10명이상)
1. 50% 초과	17%(1/ 6)
2. 31~50%	57%(4/ 7)
3. 10~30%	75%(3/ 4)
4. 10%미만	39%(7/18)
총 계	43%(15/35)

재외동포 유치에 적극적인 대학들의 경우 그 이유는 한국어 과정 개설에 대한 부담 없음(39개교 중 27개교, 52%)과 많은 유학 희망 수요 (13개교 33%), 높은 정규과정 수업이해도 (11개교 31%)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소수의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는데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재외동포 자녀들의 경우 유학 대기 수요가 많아 학생 모집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유학생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면에서 재외동포 유학생들이 한국어 과정 교육 없이도 쉽게 정규과정에 적응 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8> 재외 동포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

(단위 : %, 개교)

사유	응답 비율
1. 한국어 과정 개설에 대한 부담 없음	69%(27/39)
2. 높은 정규과정 수업 이해도	28%(11/39)
3. 많은 유학 희망 수요	33%(13/39)
4. 학부모의 높은 경제 지원 능력	8%(3/39)
5. 기타	3%(1/39)

각 대학의 유학 담당자가 보는 중국 출신 유학생의 향후 유치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51%(32개교)의 대학 담당자들이 완만한 증가를 예상했고 27%(17개교)는 큰 폭의 확대를 예측했다. 전체적으로는 78%의 대학 담당자가 중국 출신 유학생의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도 2004년과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전혀 없었던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3% 나타났고 17% (11개교)의 일부 대학에서는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2004년의 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유학담당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긍정적이기는 하나 점차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감을 알 수 있다.

향후 중국 이외의 유학생 유치 유망 국가로 생각되는 국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3%(30개교)가 베트남을 표기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4년에 비하면 매우 큰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데, 2004년의 경우 28%가 중국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여 대다수의 대학들이 중국에서의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28%에서 9%로 급감하였다. 이 결과는 <표 IV-19>의 중국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

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IV-19> 향후 중국 출신 유학생의 유치전망

(단위 : %, 개교)

유치 전망	2004	2006
	응답 비율	응답 비율
1. 크게 확대될 것이다.	38%(23)	27%(17)
2.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54%(33)	51%(32)
3.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는 어렵다	8%(5)	17%(11)
4. 크게 위축될 것이다.	0%(0)	3%(2)
5. 기타	0%(0)	0%(0)
계	100%(61)	100%(63)

2004년의 유학생 유치 실적을 보더라도 중국이외에는 특별한 유학생 유치 국가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유학생을 보낼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으나 최근 들어 두드러진 베트남으로의 대규모 기업 이전 현상과 동남아시아의 한류열풍에 영향을 받아, <표 IV-11>의 결과처럼 일부 대학에서 베트남 학생 유치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국가로는 전체의 7%(4개교)가 각각 일본과 중앙아시아를 꼽았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관리 측면에서 이탈의 가능성이 적은 선진국 학생을 선호하게 마련이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결과를 통해 보면 일본 유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대학들의 생각도 그 한계를 인정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일본,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라들은 크게 두드러짐 없이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20> 향후 중국이외의 유학생 유치 유망 국가

(단위 : %, 개교)

국가구분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미주	5%(3)	2%(1)
2. 대양주	0%(0)	0%(0)
3. 동유럽	0%(0)	2%(1)
4. 일본	11%(7)	7%(4)
5. 베트남	25%(15)	53%(30)
6. 말레이시아	3%(2)	0%(0)
7. 인도네시아	0%(0)	2%(1)
8. 태국	3%(2)	2%(1)
9. 필리핀	5%(3)	4%(2)
10. 대만	7%(4)	2%(1)
11. 중앙아시아	5%(3)	7%(4)
12. 러시아	3%(2)	4%(2)
13. 중국이외 관심 없음	28%(17)	9%(5)
14. 기타 또는 무응답	5%(3)	9%(5)
계	100%(61)	100%(57)

다음은 유학생 유치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유학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현지의 유학 설명회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국내의 교육제도와 대학의 상황, 교육 환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현지 에이전트나 자매대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의 관련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실제 유학생활이 시작된 이후 아르바이트 제공 등 사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전체의 14%(8개교)는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47%(27개교)는 부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전체 약 61%(35개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39%(22개교)는 설명회 없이 현지 에이전트나 연계학교 학생을 받고 있었다. 2004년의 경우 부분적으로라도 개최하고 있는 경우가 53%였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47%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개선이 있었고 대학들의 유치방법이 점차 적극성을 띄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유학 설명회 개최 여부

(단위 : %, 개교)

개최 여부	응답비율
1. 반드시 설명회 개최	14%(8)
2. 부분적으로 설명회 개최	47%(27)
3. 설명회 없이 현지 에이전트나 연계학교 학생을 받음	39%(22)
계	100%(57)

입학허가서 발급 전 유학생 현지 인터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70%(38개교)가 반드시 진행한다는 결과를 냈고, 22%(12개교) 부분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총 92%의 대학이 사전인터뷰를 하는 반면, 7%의 대학(4개교)는 에이전트나 연계학교의 인터뷰 결과를 신뢰하고 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연구결과에서는 44%만이 인터뷰를 반드시 하고 있었고 부분적인 개최를 포함하면 82%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입학허가서 발급은 대학 입장에서 마지막 학생 선발 과정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하고 유학 희망자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IV-22>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인터뷰 진행 여부

(단위 : %, 개교)

진행 여부	응답비율
1. 반드시 인터뷰 후 입학허가서 발급	70%(38)
2. 부분적으로 인터뷰 진행	22%(12)
3. 현지 에이전트나 연계학교의 인터뷰 결과를 믿고 입학허가서 발급	7%(4)
계	100%(54)

나. 외국인 유학생 유학 비용 실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비용은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현지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유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의 부담을 크게 하고 심할 경우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반대로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다.

우선 어학연수 과정과 정규과정의 수업료 수준을 어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생활비를 제외한 어학연수 과정의 순수 수업료 수준은 연간 200만원~300만원이 60%(18개교)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은 연간 300~400만원대가 27%(8개교)를 나타냈다. 연간 400만원 이상인 대학도 13%(4개교)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유학생 유치 국가보다는 약간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4년 조사 결과 보다 평균 연간 수업료는 약간 더 낮아졌다. 이는 대체로 전문대학의 유학시장이 대학간 경쟁 체제로 들어서고 있고 지방 4년제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전문대학들 사이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가르치는 유학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 IV-23>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 수준 (생활비 제외)

(단위 : %, 개교)

연간 수업료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250만원/년 이하	28%(9)	43%(13)
2. 250만원/년~300만원/년	28%(9)	17%(5)
3. 300만원/년~350만원/년	16%(5)	17%(5)
4. 350만원/년~400만원/년	16%(5)	10%(3)
5. 400만원/년~450만원/년	12%(4)	10%(3)
6. 450만원/년 이상	0%(0)	3%(1)
계	100%(32)	100%(30)

정규 학위 과정의 등록금 수준은 2004년 조사시 약 절반가량의 대학이 국내 학생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3수준 이하로 내려갔고 나머지 대학들은 국내 학생 대비 50% 미만~90%에 이르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각 등록금 수준별 대학의 평균 유학생 수에 있어서는 국내 학생 대비 등록금 수준 50% 미만의 대학에서 두드러진 학생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학의 평균 유학생 수는 61.5명인데 반해 여타 비교군의 평균 유학생 수는 1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비 수준이 학생들에게 대학을 결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학비 감면을 통한 유학생 유치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4> 정규 학위 과정의 등록금 수준 (국내학생 대비)

(단위 : %, 개교, 명)

국내학생 대비 유학생 등록금 비율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평균 재학생 수
1. 50%미만	6%(4)	11%(6)	61.5
2. 50~59%	13%(8)	15%(8)	18
3. 60~69%	5%(3)	11%(6)	35.5
4. 70~79%	14%(9)	24%(13)	32.3
5. 80~89%	5%(3)	9%(5)	43.4
6. 90~100%	52%(32)	30%(16)	21.7
7. 미응답	5%(3)	0%(0)	-
계	100%(61)	100%(54)	

유학생들이 유학을 위해 등록금을 제외하고 현지에 지불한 수수료 수준은 평균 99.75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금액은 2004년 조사 당시의 133만원보다 약 25%정도 낮아진 것이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그룹은 50만원~100만원 대로 전체 1696명의 34%(581명)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은 50만원 미만으로 29%(485명)였고 많이 지불한 경우는 300~400만원으로, 2004년 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대학 담당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유학생 대상의 조사와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수수료는 대학측의 유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유학 이탈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적정한 수준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조사의 경우 한국내 유학생 유치의 주력시장인 중국내에서 많은 불법 유학원들이 난립을 하여 불법 모집이 횡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내에서도 많은 유학원을 정식으로 인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 대학들도 고교연계나

대학 연계 등 비유학원 형태로 유학생 유치경로를 다변화하면서 이러한 수수료율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5> 유학생들이 현지에 지불한 수수료 수준 (등록금 제외)

(단위 : %, 명)

수수료 지불 금액	2004년 조사 학생비율	2006년 조사 학생비율	비고
1. 50만원 미만	31%(424)	29%(485)	2004년 평균 수수료 133만원/인 2006년 평균 수수료 99.75만원/인
2. 50만원~100만원	16%(213)	34%(581)	
3. 100만원~200만원	35%(465)	28%(483)	
4. 200만원~300만원	9%(115)	3%(59)	
5. 300만원~400만원	4%(58)	5%(88)	
6. 400만원 초과	5%(68)	0%(0)	
계	100%(1343)	100%(1696)	

유학생의 외부 장학금 수혜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에서 외부장학금의 범위는 출신국가, 외부단체, 국내기관, 국제기구,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통해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한정하였다. 조사결과 61개 대상 대학 유학생 중 단 한 명이라도 외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은 15%(9개교)에 불과했다. 또, 각 대학 내에서 외부 장학금 수혜인원이 전체유학생 대비 10%미만인 경우는 56%(5개교), 30%이내인 경우는 78%로 실제 수혜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유학생의 외부장학금 수혜여부

(단위 : %, 개교)

수혜학생 유무	응답비율
1. 수혜자 있는 대학	19%(10)
2. 수혜자 없는 대학	81%(41)
계	100%(51)

<표 IV-27> 재학기간 중 학비 조달 형태

(단위 : %, 명)

학비 조달 형태	2004	2006
	응답비율	응답비율
1. 전액 아르바이트로 조달	7%(88)	11%(176)
2. 일부 아르바이트로 조달	39%(521)	41%(659)
3. 전액 본국 송금 의존	54%(718)	48%(762)
계	100%(1327)	100%(1597)

재학기간 중 학비 조달 형태로는 전액 본국 송금에 의존하는 학생이 48%(762명)로 가장 높았고 일부 아르바이트로 조달하고 있다는 응답이 41%(659명)로 그 뒤를 이었다. 본국 송금 없이 전액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11%(176명)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각 대학 별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비율을 유학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후 유학생 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것이다. 대상 범위는 정규 학위 과정 학생과 어학연수생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2004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액본국송금이 줄어드는 대신 전액 아르바이트 조달이 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데이터에는 전액 국비유학생인 말레이시아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이 학생들을 제외할 경우 일선 대학의 유학담당자들이 체감하는 학비조달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조달에 더 치우치게 된다.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학의 대응은 2004년 조사때 보다 많은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필요에 의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는 D-2 비자를 소지하고 대학입학 후 6개월이 경과한 학생에 한해 주당 20시간(방학기간 무제한)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어학 연수생의 아르바이트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조사대상 2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응답을 하였는데 이중 33%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과정 학생의 주20시간 아르바이트 제한에 대해 응

답한 45개교 중 22%(10개교) 에서는 수업에 영향만 없다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1%의 대학에서는 외부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알선하고 있었고, 8%의 대학에서는 아르바이트의 편의를 위해 수업시간을 오후나 야간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30%(14개교)의 대학에서는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를 떠나 아르바이트 근무지에 체류하는 학생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학의 대응

(단위 : %, 개교)

질문내용	그렇다	아니다	소 계
1. 한국어 과정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33%(7)	67%(12)	100%(19)
2. 수업에 영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10)	78%(35)	100%(45)
3. 대학측에서 외부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51%(18)	49%(27)	100%(35)
4.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편의를 위해 수업시간을 변경해 준다.	8%(2)	92%(22)	100%(24)
5.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를 떠나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체류하는 학생이 50%를 넘는다.	30%(14)	70%(32)	100%(46)

유학생의 생활비 수준도 유학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식비를 제외한 유학생의 주거비용 수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대다수의 대학이 유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어 주거 비용의 부담은 과도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구간은 월 10만원~15만원 구간 (34%, 17개교)과 5만원~10만원 구간 (28%, 14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조사 결과에 비해 평균 생활비는 20%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대도시 지역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평균 생활 비용의 상승을 주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29> 유학생 주거비용 수준 (식비 제외)

(단위 : %, 개교)

금 액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5만원/월 이하	16%(9)	10%(5)
2. 5만원/월 ~ 10만원/월	27%(15)	28%(14)
3. 10만원/월 ~ 15만원/월	24%(13)	34%(17)
4. 15만원/월 ~ 20만원/월	13%(7)	10%(5)
5. 20만원/월 ~ 25만원/월	13%(7)	12%(6)
6. 25만원/월 이상	7%(4)	6%(3)
계	100%(55)	100%(50)

다.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업 인원 편성은 조사 대상 22개 대학 중 27%인 6개 대학에서 16~20인 정도의 규모로 클래스를 편성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14.8인을 한 클래스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서는 한 클래스당 약 2.5인의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한국어 과정의 손익개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과정 수업 시간 구성은 대부분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실시하고 있었고 주당 20~24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75%(15개교)에 달했다. 10%의 대학에서는 주당 10시간 이하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하루 6시간의 수업이나 주4일 수업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과정의 운영은 100% 모두 외부 위탁 없이 대학에서 자체 운영 하고 있었다.

<표 IV-30> 한국어 과정 한 반의 수업인원 편성

(단위 : %, 개교)

클래스당 인원 구성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평균
1. 1~5 인/class	13%(3)	9%(2)	2004년 12.3인/class
2. 6~10 인/class	21%(5)	14%(3)	
3. 10~15 인/class	33%(8)	23%(5)	
4. 16~20 인/class	21%(5)	27%(6)	
5. 21~25 인/class	4%(1)	9%(2)	2005년 14.8인/class
6. 25 인/class 이상	4%(1)	9%(2)	
7. 무응답	4%(1)	9%(2)	
계	100%(24)	100%(22)	

<표 IV-31> 한국어과정 수업시간 편성

(단위 : %, 개교)

수업시간 편성	응답비율
1. 주당 10시간 이하	10%(2)
2. 주당 10시간~14시간	0%(0)
3. 주당 15시간~19시간	5%(1)
4. 주당 20시간~24시간	75%(15)
5. 주당 25시간 이상	10%(2)
계	100%(20)

한국어 과정 강사진의 구성은 40%인 8개교에서 외부강사진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40%인 8개교에서는 전임강사진과 외부강사진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전임교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은 20%였다. 2004년과 비교해보면 전임교수만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외부강사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줄고 있고 대신 전임교수의 관리 하에 외부강사진이 참여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표 IV-32> 한국어과정 강사진의 구성

(단위 : %, 개교)

강사진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전임교수만으로 구성	29%(7)	20%(4)
2. 외부강사만으로 구성	46%(11)	40%(8)
3. 전임교수 + 외부강사	25%(6)	40%(8)
계	100%(24)	100%(20)

한국어과정의 운영상황을 재정적으로 보면 27%의 대학에서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14%에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외국 대학의 경우 어학과정의 수업료를 충분히 책정하여 프로그램이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입학에 대한 예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과정에서 적자 운영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학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어 과정 등록금 감면, 사업 초기에서의 학생수 과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대학의 어학과정 수업료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약 30%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V-33> 한국어과정의 수익상황

(단위 : %, 개교)

수익 상황	응답비율
1. 적자운영	27%(6)
2. 수입 지출 균형	59%(13)
3. 수익 발생	14%(3)
계	100%(22)

한국어과정에서 어학 교육이외에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제대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91%에서 이러한 목적을 갖는 특별 활동이나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4년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 탐방과 관광 및 한국 학생과의 공동 교외 활동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다.

<표 IV-34> 한국어과정에서 수업외 특별 활동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단위 : %, 개교)

운영 여부	응답비율
1. 운영하고 있음	91%(21)
2. 운영하지 않음	9%(2)
3. 무응답	0%(0)
계	100%(23)

프로그램 내용	응답비율(중복응답)
1. 박물관, 사적지 탐방	86%(19/22)
2. 산업체 방문	36%(8/22)
3. 관광	59%(13/22)
4. 사회 봉사 활동	9%(2/22)
5. 한국 학생과의 교외 활동	59%(13/22)

운영 빈도	응답비율
1. 연 2회 초과	64%(14)
2. 연 1회 ~ 2회	36%(8)
3. 연 1회 미만	0%(0)
계	100%(22)

우리 나라에서 정규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교육기간이 적정한지의 질문에 대해 79%의 대학이 1년이 적정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5> 정규과정 진학에 필요한 적정 한국어 연수 기간

(단위 : %, 개교)

적정 언어 연수 기간	응답비율
1. 6개월	12%(5)
2. 1년	79%(34)
3. 1년 6개월	9%(4)
4. 2년	0%(0)
계	100%(43)

유학생이 한국어과정 수료후 타 대학 입학에 희망할 때 동의여부에 대해 절의한 결과 54%의 대학에서 동의는 해주고 있지만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3%의 대학에서는 동의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 사항에 대해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으나 유학생의 유학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대학 간 이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IV-36> 한국어과정후 타 대학 진학 희망시 동의여부

(단위 : %, 개교)

동의 여부	응답비율
1. 본인이 희망하면 동의해 주고 이에 따른 서류 발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33%(8)
2. 동의는 해주고 있지만 그 이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음	54%(13)
3. 동의 해 주지는 않음	13%(3)
계	100%(24)

정규과정 유학생들만의 별도반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12%(8개교)에서 별도반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4년과 비교하면 250%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 편성사유는 한국학생과 동일 커리큘럼을 운영하기는 하

지만 수업능력 차이로 인해 별도반을 편성하거나 외국과의 주문식 교육 실행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 IV-37> 정규과정 유학생의 별도반 편성 여부

(단위 : %, 개교)

유학생 별도반 편성 여부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예	5%(3)	12%(8)
2. 아니오	64%(39)	57%(39)
3. 무응답	31%(19)	32%(22)
계	100%(61)	100%(69)

외국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는 전략학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8%인 19개교가 있다고 응답하여 이미 특성화된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대학들은 국내에서 특정분야로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들이거나 많은 수의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대학들이었다. 이들 대학이 숫자에서는 28%(19/69)이지만 전체 유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07/1908)로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표 IV-38> 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학과 존재 여부

(단위 : %, 개교)

전략학과 존재 여부	응답비율
1. 예	28%(19)
2. 아니오	46%(32)
3. 무응답	26%(18)
계	100%(69)

라. 유학생 생활 환경

유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69개 조사대상 대학 중 55개 대학이 응답한 기숙사와 관련하여, 대학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85%(47개교)였고 15%(8개교)는 기숙사가 없었는데 주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었다. 기숙사를 보유한 대학의 경우 내외국인 학생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대학이 38%(18개교),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가 62%(29개교)로 나타났다.

<표 IV-39> 대학 기숙사 보유 및 유학생 수용 방법

(단위 : %, 개교)

대학 기숙사 보유 여부 (내국인용 포함)	응답비율	내외국인 분리수용 여부
1. 대학 기숙사 보유	85%(47)	분리수용 38%(18)
		공동수용 62%(29)
2. 대학 기숙사 없음		15%(8)
계		100%(55)

유학생 숙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기숙사(72%, 1234명)와 학교가 임대 후 제공하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21% 359명)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도 학생이 임대하는 원룸 및 오피스텔, 하숙, 홈스테이, 친지집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기숙사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도시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가세하면서 기숙사를 건립하기 보다는 대학 주변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4년제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화의 이질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유학생들에게 많은 생활의 자율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유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학들이 아직 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보다는 임대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 투자를 해

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IV-40> 유학생 숙소의 형태

(단위 : %, 개교)

주거 형태	응답비율
1. 기숙사	72%(1234)
2. 원룸 또는 오피스텔 (학교 임대후 제공)	21%(359)
3.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자가 임대)	6%(96)
4. 하숙	1%(15)
5. 홈스테이	0%(6)
6. 기타	0%(0)
계	100%(1710)

유학생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보험에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90%이상이 우리나라에 비해 물가 수준이 낮은 국가들 출신이기 때문에 큰 상해 또는 중대 질병 발생 시 자비부담으로 비용을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구권의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 가입을 유학생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국내 대학들은 유학생의 국내 입국 시 보험가입여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경향이 있어왔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33%(17개교)의 대학들이 학생의 보험 가입여부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학은 23%(12개교)으로 늘었다. 기존의 유학생 입학이 한 대학에 1~5명 수준의 개별적인 입학에서 해외 고교, 대학과의 연계에 의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유학생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실태이다.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대학이 8%에서 25%로 4배 이상 확대되었고 대신 대학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에서 33%로 떨어졌다.

<표 IV-41> 유학생 국내 입국시 유학생 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개교)

가입 여부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유학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8%(5)	23%(12)
2.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2%(1)
3.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권유	38%(23)	40%(21)
4. 대학에서 관여하지 않음	51%(31)	33%(17)
5. 기타	3%(2)	2%(1)
계	100%(61)	100%(52)

유학생회나 유학생 전용동아리의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73%(35개교)가 둘 다 없음을 대답했고 유학생 동아리 구성 비율이 10%, 유학생회 구성비율이 15%로 조사됐다. 유학생 동아리나 유학생회에 대해서는 55%의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대학에도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생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2004년 연구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IV-42> 유학생회 또는 유학생 전용 동아리 활성화 여부

(단위 : %, 개교)

유학생회나 동아리	응답비율	유학생회, 유학생 동아리에 대한 지원	
1. 둘 다 있음	2%(1)	재정적 지원 있음	55%(10)
2. 유학생동아리 있음	10%(5)		
3. 유학생회 있음	15%(7)	재정적 지원 없음	45%(8)
4. 둘 다 없음	73%(35)		
계	100%(48)		

유학생의 내국인 학생 동아리 가입비율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 대학의 84%(41개교)에서 유학생의 내국인 학생 동아리 가입이 전혀 없거나 10%미만이었고 50%를 넘는 유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한 대학은 전혀 없었다. <표 IV-42>의 결과에서처럼 유학생회나 유학생 전용 동아리의 구성도 활발하지 않고 한국 학생들의 동아리에 대한 가입도 저조한 편이어서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수업이외의 대학생활에 다양성을 부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유학생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학생 유치를 통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표 IV-43> 유학생의 동아리 가입비율

(단위 : %, 개교)

동아리 가입비율	응답비율
1. 전혀 없다	49%(24)
2. 10% 미만	35%(17)
3. 10~50%	16%(8)
4. 50% 초과	0%(0)
계	100%(49)

마. 유학생 진로 지도

우선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만족도에 대해 대학 담당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학 담당자들은 ‘보통’일 것으로 보는 경우가 47%(24개교)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만족’이라고 보는 경우로 43%(22개교)로 나타났다. 즉, 대학 담당자들이 기대하는 유학생들의 평가는 최대만족을 5, 최대 불만족을 0 이라고 할 때, 3.51 정도였다. 이는 대학 담

당자들이 나름대로 그 대학이 제공하는 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만족’일 것으로 보는 2개 대학의 경우 그 이유를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유학생들의 본과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데서 찾고 있었다.

<표 IV-44> 유학생의 만족도에 대한 대학 담당자 견해

(단위 : %, 개교)

유학 만족도	응답비율
1. 매우 만족	6%(3)
2. 만족	43%(22)
3. 보통	47%(24)
4. 불만족	4%(2)
5. 매우 불만족	0%(0)
계	100%(51)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수와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방향이다. 정부에서도 Gold Card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방향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541명에 대한 진로를 조사해본 결과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4년제 대학 편입으로 41%(222명)가 나타났고 귀국 후에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4%(58명), 국내 불법 체류가 8%(41명) 순이었다. 이외에도 귀국 후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국내 기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전문대학으로의 유학이 직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졸업한 학생의 사례에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실현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들의 연장체제 욕구를 해소시킬 만한 방법이 편입이외에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는 하나, 전문대학 유학이 단순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유학 창구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45>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단위 : %, 명)

졸업생 진로	응답비율
1. 4년제 대학 편입	41%(222)
2. 국내 기업 합법적 취업	6%(32)
3. 국내 불법 체류	8%(41)
4. 귀국 후 한국어 강사	0%(0)
5. 귀국 후 현지 한국 기업 취업	4%(20)
6. 귀국하였으나 이후 자료 없음	38%(205)
7. 기타	4%(21)
계	100%(541)

유학생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처리에 있어서는 40%(19개교)의 대학에서 적합한 대학 소개와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었고, 48%(23개교)에서는 대학교 정보 제공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71%(35개교)에서 집중적으로 유학생 졸업자를 진학시키거나 진학관련 협약을 체결한 4년제 대학이 없는 상태였고, 16%(8개교)에서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2>에 나타났듯이 전문대학에 유학하는 외국 학생 중 많은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4년제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학생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그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보장하는 방안은 유학생의 유치와 이탈 방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6> 유학생 졸업자가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의 처리

(단위 : %, 개교)

처리 방법	응답비율
1. 유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	13%(6)
2. 대학교 정보 제공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다	48%(23)
3. 적합한 대학을 소개해주고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40%(19)
계	100%(48)

<표 IV-47> 진학 협약을 체결한 4년제 대학의 유무

(단위 : %, 개교)

집중적으로 진학시키거나 진학 협약을 체결한 4년제 대학의 유무	응답비율
1. 있다	16%(8)
2. 없다	71%(35)
3. 무응답	12%(6)
계	100%(49)

졸업 후 국내외에 걸친 취업을 개선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51개 대학 중 22%(11개교)는 아직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이었고 18%(9개교)는 이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61%는 취업을 개선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004년(9%)과 비교해 보면 2006년(18%) 들어 취업률 개선 프로그램이 여러 대학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프로그램의 성격은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소개가 59%(13개교/22개교), 현지 한인기업 취업 알선 18%(4개교/22개교)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취업지도에 대한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지 한인기업 취업 알선이나 국내 취업 지도에 대해서는 그 추진 대학 수가 현

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유학생 취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 전문대학들도 유학졸업생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 이외에는 진로지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IV-48> 졸업 후 취업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단위 : %, 개교)

취업률 개선 프로그램 진행 여부	응답비율
1. 있다	18%(9)
2. 없다	61%(31)
3. 졸업생이 없어 현재 준비 중이다,	22%(11)
계	100%(51)

<표 IV-49> 졸업 후 취업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

(단위 : %, 개교)

프로그램의 성격	2004	2006
	응답비율(중복응답)	응답비율(중복응답)
1.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소개	56%(14/25)	59%(13/22)
2. 현지 한인 기업 취업 알선	49%(10/25)	18%(4/22)
3. 국내 취업을 위한 지도	40%(10/25)	22%(5/22)
4. 기타	11%(3/25)	0%(0/22)

유학생의 추수지도와 관련하여 대학 측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졸업생의 국내 취업 허용을 위한 비자제도의 개선 지원이 매우 높은 분포(61%, 33개교)를 보였다. 그 다음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유학생 취업 우대 정책 채택 지원이 24%(13개교)로 나타났다.

<표 IV-50> 유학생 추수지도 관련 정책지원 희망 사항

(단위 : %, 개교)

희망하는 정책지원 내역	응답비율
1. 국내대학과 해외 한인상공회간 취업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한 지원	11%(6)
2. 졸업생의 국내 취업 허용을 위한 취업 비자제도의 개선	61%(33)
3. 인턴제도의 허용 및 확대 정책	1%(2)
4.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유학생 현지 취업 우대 정책	24%(13)
계	100%(54)

바. 유학생 관리

유학생 관리측면에서 담당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의 60%(33개교)에 해당하는 대학이 유학생들의 이탈 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자 발급을 포함한 유학생 입국 절차를 24%(13개교)에서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지 않은 대학의 유학담당자들은 현행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막상 이들의 유학생생활 이탈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선발방법이나 교육 방법의 부재에 대해 어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순위(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2순위(두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의 두 항목 이외에 졸업 후 취업 및 진학관리(24%, 12개교)와 학비 조달 관련 아르바이트 관리 문제(25%, 14개교)등 입학 후 관리 문제라고 응답하는 대학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와 비교해보면,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이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부각이다. 학생이탈 문제는 2004년 39%에서 2006년 60%로 급증

하였는데 2004년도에 입학생 감소로 대학들이 앞다투어 외국인 유학생을 급히 유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2004년 당시 학생을 유치할 때만해도 가장 큰 이슈는 비자를 포함한 출입국절차(43%)였으나 입국 후 학생들의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탈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추수지도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51> 유학생 관리상의 문제점

(단위 : %, 개교)

문제점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 학생 이탈 문제	39%(24)	9%(18)	60%(33)	6%(9)
2. 비자 발급을 포함한 입국절차	43%(26)	5%(16)	24%(13)	7%(15)
3. 졸업후 취업 및 진학 관리	5%(3)	3%(8)	4%(2)	4%(12)
4. 학비 조달 관련 아르바이트 관리	3%(2)	5%(9)	2%(1)	5%(14)
5.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현지 홍보	3%(2)	7%(4)	2%(1)	2%(1)
6. 기숙사 교육공간 등 시설 부족	0%(0)	5%(3)	5%(3)	4%(2)
7. 유학생과 재학생간 교류 부족	0%(0)	0%(0)	0%(0)	2%(1)
8. 신뢰성 있는 에이전트의 확보	0%(0)	2%(1)	4%(2)	2%(1)
9. 유학생 선발에 따르는 부대비용 과다	5%(3)	2%(1)	0%(0)	0%(0)
10. 기타	2%(1)	2%(1)	0%(0)	0%(0)
계	100% (61)	100%(61) ()	100% (55)	100% (55)

교내 유학생 지원 조직 및 시설의 유무에 대해서는 유학생 전담직원>전담 부서>담당교수>전용시설=전용공간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설치 대학의 평균 유학생 수에서도 이러한 순서는 그대로 나타난다. 유학생 수가 22~23명선이 되면 전담직원과 전담 부서가 생기고, 34명 정도에서 담당교수가 생기며, 41명 수준에서는 전용시설이, 47명 수준에서는 전용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4년과 비교하면 전담직원, 전담부서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시기는 평균유학생 수 기준으로 약 5~6명 정도 앞당겨졌다. 즉, 이전에는 26~7명선에서 전담직원과 전담부서가 생겼으나 현재는 22~23명선으로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 교내 유학생 지원 조직 및 시설의 유무

(단위 : %, 개교)

항 목	응답비율(중복응답)	설치 대학의 평균 유학생 수
1. 유학생 전담부서	65%(31/48)	23명
2. 유학생 담당교수	63%(30/48)	34명
3. 유학생 전담직원	83%(40/48)	22명
4. 유학생 전용공간	27%(13/48)	47명
5. 유학생 전용시설	27%(13/48)	41명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생 유치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 현지 고교 연계와 자매대학 연계를 통한 유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답하는 유학담당자가 많았고 부수적으로는 외국지자체 연계와 현지 유학원 선발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2004년 조사의 경우 현지유학원 선발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대학들에서 부실 해외 유학원과 브로커 형태의 국내 유학원들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자 현지 고교나 대학을 직접 연계하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외 현지 유학원이나 국내 유학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대신 그 자리를 학교 간 직접 연계가 메워나가고 있다.

다만 현지 고교 연계의 경우 정상 졸업자에 대해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연계의 경우 2~3년제로 한정된 학제로 인해 사실상 학생 유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53>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유학생 유치 방법

(단위 : %, 개교)

유치 방법	응답
1. 해외 현지 유학원 또는 에이전트 활용	7%(4)
2. 국내 에이전트 활용	3%(2)
3. 현지 고교 연계	38%(22)
4. 자매 대학 연계	31%(18)
5. 현지 한국어 학원 연계	3%(2)
6. 외국 지자체 및 정부 기관 연계	14%(8)
7. 유학 박람회	2%(1)
8. 국내 기존 입국자 모집	2%(1)
9. 기타	0%(0)
계	100%(58)

유학생 유치사업이 한국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04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4%(14%+64%)에서 올해에는 62%(9%+28%)로 많이 떨어졌고, 대신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22%에서 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학생 유치사업이 한국 학생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대학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파급 효과에 있어서는 대학내 국제화 마인드 형성(64%, 28개교)과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30%, 13개교)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유학생의 이탈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 사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유학생 프로그램의 존폐까지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IV-56>은 2005년 3월 ~ 2006년 2월중 각 대학의 유학생 이탈율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표 IV-54> 한국 학생에 대한 파급효과

(단위 : %, 개교)

효 과	2004 응답비율	2006 응답비율
1. 매우 긍정적	14%(8)	15%(9)
2. 긍정적	64%(38)	47%(28)
3. 보통	22%(13)	37%(22)
4. 부정적	0%(0)	0%(0)
5. 매우 부정적	0%(0)	2%(1)
계	100%(59)	100%(60)

<표 IV-55> 한국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파급효과

(단위 : %, 개교)

구체적 파급 효과	응답비율
1.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30%(13)
2. 외국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제화 마인드 형성	64%(28)
3.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가 한국 학생의 학습 의욕 자극	7%(3)
4. 아르바이트를 통한 학비 조달 등 어려운 환경 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 학생 생활 변화 유도	0%(0)
5. 기타	0%(0)
계	100%(44)

<표 IV-56> 2005~6 각 대학의 유학생의 이탈 비율 분포

(단위 : %, 개교)

이탈률	응답비율
1. 10% 미만	61%(30)
2. 10~20%	10%(5)
3. 20~30%	6%(3)
4. 30~40%	8%(4)

5. 40% 이상	14%(7)
계	100%(49)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의 이탈율이 10%를 넘어서면 유학생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설문 결과 61%의 대학만이 유학생 이탈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나머지 39%의 대학들은 크고 작은 이탈 문제로 곤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4%의 대학에서는 1년 동안 전체 유학생의 40%이상이 이탈을 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유학생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의 이탈문제에 대해 4년제 대학과의 비교하여 질문한 결과 54%(28개교)에서 전문대와 4년제 간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응답했고 44%(23개교)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IV-57> 유학생 이탈문제

(단위 : %, 개교)

4년제 대학과의 비교	응답비율
1. 전문대와 4년제 거의 동일한 문제	54%(28)
2. 전문대학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17%(9)
3. 전문대학에서 약간 더 심각한 문제	27%(14)
4. 4년제 대학에서 약간 더 심각한 문제	2%(1)
5. 4년제 대학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0%(0)
계	100%(52)

유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각 대학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생 여권보관이 52%(27개교)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이 유학생에 대한 보증금 제도(23%, 12개교)였다. 이외에도 내국인 개인 보증 제도와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학생 이탈 위약금 공증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들 제도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 제도들은 이탈방지

를 위해 사용되고는 있으나 신분증 보관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보증금제도는 유학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제도로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미 4년제 대학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전문대학에서도 2004년 조사 때보다 감소해가고 있었다. 이탈 방지 문제는 외국 대학들처럼 학생 모집/선발과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IV-58> 유학생의 이탈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단위 : %, 개교)

제 도	응답비율(중복응답)
1. 유학생에 대한 보증금 제도	23%(12/52)
2.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학생 이탈 위약금 공증	13%(7/52)
3. 내국인 개인 보증제도	13%(7/52)
4. 유학생 여권 보관	52%(27/52)
5.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보관	4%(2/52)
6. 없다	25%(13/52)
7. 기타	6%(3/52)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46%(23개교)의 응답자에서 이전의 학생 이탈 문제로 인해 현재 학생들을 위한 비자 발급이 영향을 받는 문제라는 대답이 나왔고, 긴 비자 발급 소요기간 (26%, 13개교)과 학생 나이에 대한 편견(20%, 10개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간 법무부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전송금이나 비자 거절로 인한 학비 환불등의 문제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어려움

(단위 : %, 개교)

항 목	응답
1. 외국 실정에 비추어 과도한 은행 잔고 요구	18%(8/50)
2. 긴 비자 발급 소요기간	26%(13/50)
3. 학생 나이(고령자)에 대한 편견	20%(10/50)
4. 직업고교 출신자에 대한 차별	12%(6/50)
5. 비자 발급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에이전트 관리의 어려움	16%(8/50)
6. 일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비자 발급 전 학비 송금 요구	2%(1/50)
7. 비자 거절로 인한 학비 환불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환차손	2%(1/50)
8. 낮은 비자 발급율	18%(9/50)
9. 일부 학생의 이탈로 인해 그 이후 신규 유학 희망자의 비자 발급이 영향을 받는 문제	46%(23/50)
10. 일관성 없는 비자 발급 정책	24%(12/50)

최근 정부의 유학생 출입국 관리정책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문대학들도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유학생 출입국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체적으로 대학들은 최근의 정책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선(66%, 37개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상당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16%(9개교), 4년제 대학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11%(6개교)에 달했다. 7%(4개교)의 대학에서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유학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표 IV-60> 정부의 유학생 출입국 관리 정책에 대한 견해

(단위 : %, 개교)

대학별 견해	응답
1. 합리적인 개선으로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됨	2%(1)
2. 큰 변화는 없으나 점차 긍정적으로 개선 중임	66%(37)
3.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느낌	16%(9)
4.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유학생 유치에 큰 장애가 됨	7%(4)
5. 규제의 강도 문제가 아니라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적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	11%(6)
계	100%(56)

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53%(32개교)에서 비자 발급, 아르바이트 허용 폭 확대, 산업 연수생 제도 연결 등 행정제도, 법규 개선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고 27%(16개교)에서는 기숙사, 어학시설 등 유학생 교육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는 2004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V-61> 유학생 교육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분야

(단위 : %, 개교)

항 목	응답
1. 유학 박람회 개최지원, 해외 공관의 홍보 및 행정 지원 등의 해외 홍보 관련 분야	12%(7)
2. 기숙사, 어학시설 등 유학생 교육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27%(16)
3. 유학생에 대한 국제 협력 기금 형태의 장학금 지급	8%(5)
4. 비자 발급, 아르바이트 허용 폭 확대, 산업 연수생 제도 연결 등 행정제도, 법규 개선을 통한 지원	53%(32)
5. 기타	0%(0)
계	100%(60)

최근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점진적으로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유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내 대학간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학비 감면과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화 문제가 계속 순환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유학생 교육환경 평가나 유학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IV-59>의 결과를 얻었다. 전체의 20% 대학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59%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전체의 79%가 교육부의 유학의 질 관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정부의 유학생 관리 평가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 %, 개교)

찬반	응답비율
1. 적극적으로 찬성	20%(12)
2. 찬성	59%(36)
3. 반대	13%(8)
4. 적극적으로 반대	0%(0)
5. 의견 없음	8%(5)
계	100%(61)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투자와 재정 등의 물적 비용, 이탈 또는 지역사회 기여 등을 통한 대학의 이미지에의 영향을 모두 감안 했을 때 전문대학에서의 유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조사해 보았다. <표 IV-63>의 결과에서와 같이 8%(5개교)는 '매우 매력적인 프로그램', 54%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여 62%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10%와 2%에서는 각각 실속없는 프로그램 또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다. 또 26%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과도한 학비 감면이나 학생 이

탈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63> 유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내부 평가의견

(단위 : %, 개교)

평가 의견	응답비율
1. 매우 매력적인 프로그램	8%(5)
2. 긍정적인 프로그램	54%(33)
3.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속없는 프로그램	10%(6)
4. 손실이 더 많은 부정적인 프로그램	2%(1)
5.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26%(16)
계	100%(61)

3. 국제 협력 학제 프로그램

전문대학에서 자비 유학생 프로그램 다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등의 국제 협력 학제이다.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는 그 절차상 2년~3년제 학제를 갖는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에 적합한 제도였으나 전문대학들이 나름대로 전문대학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적지 않은 대학에서 공동 학위제나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공동학위제, 복수학위제, 현지학기제, 학점 교류, 교환학생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공동학위제와 복수학위제의 일부는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복수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대상국가를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은 총 48개 대학이 하였으며 이중 33%인 16개교는 계획이 없음을 나타냈다. 중복응답을 통해 중국과 복수학위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대학은 46%(22개교)였고, 그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로 전체의 29%(14개교), 호주가 17%(8개교), 중국을 제

외한 아시아권 8%(4개교)였다. 복수학위제의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학생의 해외 학위취득지원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방향은 크게 전자에 대해서는 중국, 후자에 대해서는 미국권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유학생 유치 뿐 아니라 중국 관련 학과 한국 학생의 해외 학위취득 지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응답 대학 중 계획이 없음을 표시한 대학은 33%에 불과하여 향후 이 제도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표 IV-64> 복수 학위제 대상 국가 현황 및 계획

(단위 : %, 개교)

대상 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46%(22/48)
2.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8%(4/48)
3. 미국, 캐나다	29%(14/48)
4. 호주	17%(8/48)
5. 유럽	6%(3/48)
6. 계획 없음	33%(16/48)

복수학위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학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이유로는 학제상의 문제점(33%, 8개교)을 지적했다. 현행 전문대학의 2~3년제 학제로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학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두 학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년제의 경우 현지에서 1년, 국내에서 1년을 진행한다면 어학 연수기간으로 인해 실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4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부족(25%, 6개교),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호응부족(21%, 5개교)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대학의 짧은 학제기간으로 인해 어학과정까지 포함하는 복수학위제를 진

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58%)

<표 IV-65> 복수학위제 무관심 이유

(단위 : %, 개교)

사 유	응답비율(중복응답)
1. 학생들의 호응 부족	21%(5/24)
2. 시기상조	17%(4/24)
3. 협력대상 대학을 찾기 어려움	8%(2/24)
4. 학생들의 어학능력 부족	25%(6/24)
5. 대학 재정기여도가 낮거나 부담이 됨	4%(1/24)
6. 2~3년 학제에는 부적합	33%(8/24)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대상국가를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은 총 46개 대학이 하였으며 이중 33%인 15개교는 계획이 없음을 나타냈다. 중복응답을 통해 중국과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대학은 39%(18개교)였고, 그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로 전체의 30%(14개교), 호주가 17%(8개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9%(4개교)였다. 조사 결과는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 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국가별 순위나 응답비율도 유사하였다. 이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들에서는 제반 여건 상 비슷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66> 공동 학위제 대상 국가 현황 및 계획

(단위 : %, 개교)

대상 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39%(18/46)
2.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9%(4/46)
3. 미국, 캐나다	30%(14/46)

4. 호주	17%(8/46)
5. 유럽	9%(4/46)
6. 계획 없음	33%(15/46)

공동학위제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내 취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46%(23개교)였고 외국대학 편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32%(16개교), 해외취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16%였다. 결과적으로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학위제를 통해 48%(16%+32%)는 해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였고, 46%는 국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참고로, 공동학위제의 근본 취지는 유학 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선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국내에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표 IV-67> 학생의 입장에서 본 공동학위제의 장점

(단위 : %, 개교)

학생의 기대효과	응답비율
1. 국내 취업 경쟁력 강화	46%(23)
2. 해외 취업 용이	16%(8)
3. 외국 대학 편입 용이	32%(16)
4. 내실 있는 수업 진행	4%(2)
5. 기타	2%(1)
계	100%(50)

공동학위제에 대해 학생들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반면 대학은 학생 증가와 우수한 학생 자원의 확보 가능성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16개교) 그 외에도 재학생들의 국제적인 활동 역량 증가에 (33%, 14개교) 대학들이 적지 않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68> 공동학위제에 대한 대학의 기대효과

(단위 : %, 개교)

대학의 기대효과	응답비율
1. 학생의 지원증가와 우수한 학생의 확보 가능성	38%(16)
2. 재학생들의 국제적인 활동 역량 강화	33%(14)
3. 취업률 개선	7%(3)
4. 중도 자퇴 학생의 감소	0%(0)
5. 교수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변화	0%(0)
6. 대외적인 대학의 이미지 개선 효과	19%(8)
7. 기타	2%(1)
계	100%(42)

공동학위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학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이유로는 제도 미정착으로 인해 시기상조(35%, 12개교)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동학위제는 사실상 2005년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도 들어 일부 대학에서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대학들의 도입의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29%, 10개교)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3개 전문대학에서 처음 실시된 공동학위제 신입생 모집에서는 평균 이상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 공동학위제의 효과는 2년 후 부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무관심 사유는 선발 실행 대학들의 운영 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학위제에 관심은 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는 크게 해외 대학이 요구하는 시설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42%, 14개교)와 소요되는 추가재정 확보의 어려움 (39%, 13개교)로 나뉘었다. 대체적으로 대학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내부의 반대여론이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인프라나 재정의 부족

등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문제로 나타났다.

<표 IV-69> 공동학위제에 무관심 이유

(단위 : %, 개교)

무관심 사유	응답비율
1. 학생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	29%(10)
2. 아직 제도 미정착으로 인해 시기상조	35%(12)
3. 적절한 협력 대상 대학 찾기 어려움	15%(5)
4. 학과 교수들의 의지 부족	0%(0)
5. 대학재정에 기여 없거나 부담이 되기 때문	9%(3)
6. 대학에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	6%(2)
7. 기타	3%(1)
계	100%(34)

<표 IV-70> 공동학위제의 가장 큰 장애물

(단위 : %, 개교)

항 목	응답비율
1. 학과 교수들의 보수적인 사고	6%(2)
2. 해외 대학이 요구하는 시설등 인프라 부족	42%(14)
3. 소요되는 추가 재정 확보의 어려움	39%(13)
4.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상대 대학의 요구조건	0%(0)
5. 기타	12%(4)
계	100%(33)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와 같은 국제 공동학제에 대한 향후 전망은 활성화와 정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47%(27개교)에서는 모두 크게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하였고 36%(21개교)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앞서 국제공동학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대학이 21%였고 향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대학이 2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48%(21%+27%)의 대학이 실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모두 크게 활성화 되리라는 예상을 한 47%와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71> 복수/공동학위제의 전망

(단위 : %, 개교)

향후 전망	응답비율
1. 복수/공동학위제 모두 크게 활성화 될 것	47%(27)
2. 복수학위제만 활성화 될 것	7%(4)
3. 공동학위제만 활성화 될 것	5%(3)
4. 복수/공동학위제 모두 현재와 같은 상태 유지	36%(21)
5. 복수/공동학위제 모두 시행 착오 후 위축	3%(2)
6. 기타	2%(1)
계	100%(58)

현재 추진중인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가 중국을 제외하면 주로 선진국들과의 관계로 정립되어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학제와 그 교육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된다.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국가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임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에 법적인 근거마련을 전제로 공동교육과정운영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전문대학들이 진출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전문대학에 적합한 국제공동학제 운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전문대학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85%(48개교)의 대학에서 ‘충분히 가능’ 또는 ‘가능’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4%(2개교)에 불과했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대학들은 ‘현재 여건상 대학의 여력이 없다’와 ‘해당국가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물론 가능하다는 판단과 실제적으로 진출할 의사와는 차이가 있겠으나 가능하다는 판단은 향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저개발 국가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72> 저개발/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단위 : %, 개교)

	응답비율
1. 충분히 가능하다.	21%(12)
2. 가능할 것이다.	64%(36)
3. 잘 모르겠다.	9%(5)
4. 불가능할 것이다.	4%(2)
5. 전혀 가능성이 없다.	0%(0)
6. 기타	2%(1)
계	100%(56)

다음은 외국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학점 교류 대상국가를 조사하였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학점교류에 있어서도 유학생 유치, 공동학위제, 복수학위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68%(22개교중 15개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일본(36%, 8개교/22개교), 미국/캐나다(27%, 6/22) 순이었다.

<표 IV-73> 학점교류 대상국가 현황

(단위 : %, 개교)

대상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68%(15/22)
2. 일본	36%(8/22)
3.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5%(1/22)
4. 미국, 캐나다	27%(6/22)
5. 호주	9%(2/22)
6. 유럽	0%(0/22)
7. 기타	0%(0/22)

학점 교류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을 대학 담당자를 통해 조사하였다. 대상 대학의 43%(9개교)는 매우 만족하였음을, 48%(10개교)는 만족하였음을 표시하여 91%의 참여 대학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보는 시각과 학생들의 실제 만족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91%인 점을 감안하면 학점 교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IV-74> 학점교류 참여자의 만족도

(단위 : %, 개교)

항목	응답비율
1. 매우 만족	43%(9)
2. 만족	48%(10)
3. 보통	5%(1)
4. 불만족	5%(1)
5. 매우불만족	0%(0)
계	100%(21)

현지학기제 운영지역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편중 현상은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유학생 유치, 학점교류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지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88%의 대학이 중국과의 현지 학기제를 진행하고 있었고 일본 25%, 호주 19% 등으로 나타났다. 2개 국가 이상과 현지학기제를 하는 경우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현지학기제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 담당자를 통해 간접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6>과 같이 94%이상의 학생들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은 파악하고 있었다.

<표 IV-75> 현지학기제 운영 지역

(단위 : %, 개교)

대상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88%(14/16)
2. 일본	25%(4/16)
3.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13%(2/16)
4. 미국, 캐나다	13%(2/16)
5. 호주	19%(3/16)
6. 유럽	0%(0/16)

<표 IV-76> 현지학기제 참여자의 만족도

(단위 : %, 개교)

만족도	응답비율
1. 매우 만족	50%(8)
2. 만족	44%(7)
3. 보통	6%(1)
4. 불만족	0%(0)
5. 매우 불만족	0%(0)
계	100%(16)

현지학기제에 대한 대학들의 향후 계획은 80%가 점진적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면 85%의 대학에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역도 역시 중국이 수위(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도 5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 평균 교환 학생수가 10명 이상인데 반해 일본 및 기타 국가의 경우 10명 이하 소규모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77> 현지학기제에 대한 향후 계획

(단위 : %, 개교)

	응답비율
1. 크게 확대	5%(1)
2. 점진적 확대	80%(16)
3. 현재 유지	15%(3)
4. 점진적 축소	0%(0)
5. 크게 축소	0%(0)
계	100%(20)

<표 IV-78> 교환학생 교환 대상지역

(단위 : %, 개교)

대상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67%(12/18)
2. 일본	56%(10/18)
3.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6%(1/18)
4. 미국, 캐나다	17%(3/18)
5. 호주	6%(1/18)
6. 유럽	0%(0/18)
7. 기타	6%(1/18)

<표 IV-79>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만족도

(단위 : %, 개교)

구분	한국 참여자 만족도	외국인 참여자 만족도
1. 매우 만족	44%(8)	18%(2)
2. 만족	50%(9)	73%(8)
3. 보통	6%(1)	9%(1)
4. 불만족	0%(0)	0%(0)

5. 매우 불만족	0%(0)	0%(0)
계	100%(18)	100%(11)

교환학생에 참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표 IV-76>와 같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자중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의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불균형 상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대학중 53%에서는 출국한 한국 학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국한 한국인 학생이 더 많은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의 63%에서 외국인 참여자가 없거나 한국인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학생의 경우 출국한 한국학생만 있었고 방문한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은 경우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 있었다. 사실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각 국가별로 출초와 입초 현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80>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입출국자 비율

(단위 : %, 개교)

	응답비율
1. 방문한 외국인 학생만 있음	5%(1)
2. 방문한 외국인 학생이 약간 더 많음	21%(4)
3. 거의 동등	10%(2)
4. 출국한 한국인 학생이 약간 더 많음	10%(2)
5. 출국한 한국인 학생만 있음	53%(10)
계	100%(19)

4.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파견 대상 국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 대학의 60%가 일본에 파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에는 58%, 미국/캐나다에는 52%, 호주에 40%, 유럽에도 17%가 나타나 다른 어떤 국제 교류 프로그램보다도 폭 넓은 활동 범위를 나타냈다. 이는 인턴쉽 프로그램이 자비부담을 수반하는 유학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인턴쉽에 따른 급여 수입이 있어 오히려 선진국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81> 해외 인턴쉽 파견 대상 국가 (계획 포함)

(단위 : %, 개교)

대상 국가	응답비율(중복응답)
1. 중국	58%(28/48)
2. 일본	60%(29/48)
3.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4%(2/48)
4. 미국, 캐나다	52%(25/48)
5. 호주	40%(19/48)
6. 유럽	17%(8/48)
7. 기타	2%(1/48)

참여자의 만족도도 97%에 달해 다른 프로그램 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보통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1개교(3%) 만 있었다. 참여학생의 불만족 사례는 인턴쉽에 부여된 직무가 너무 단순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언어능력부족으로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학생들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의 96%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하여 대학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은 그 소요 재원의 상당부분을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 의존성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 운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중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답변 결과는 정부지원 규모에 연동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7%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축소될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외 인턴십은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계획과 상관없이 대학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표 IV-82>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단위 : %, 개교)

구분	참가자 만족도 응답비율	대학측 만족도 응답비율
1. 매우 만족	38%(13)	23%(11)
2. 만족	59%(20)	46%(22)
3. 보통	0%(0)	27%(13)
4. 불만족	0%(0)	4%(2)
5. 매우 불만족	3%(1)	0%(0)
계	100%(34)	100%(48)

<표 IV-83> 정부지원 축소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

(단위 : %, 개교)

정부지원 축소시 프로그램 운영	응답비율
1. 정부 지원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	13%(5)
2. 정부 지원 규모에 연동	87%(33)
계	100%(38)

해외 인턴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85%가 확대될 것을 예상했고 그중 79%는 점진적인 확대를 예상했다.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는데, 앞서 질문에서 국고지원에 연동될 것이라는 응답을 한 것이 비추어 보

면 대체적으로 대학들은 국고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점진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해외 인턴쉽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인턴쉽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쉽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전체 대학 중 38%에서는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50%에서는 약간 증가하여 약 88%의 대학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향후 인턴쉽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상황 유지라고 응답한 대학들의 경우 그 대부분(75%)이 학생들의 관심도 증가에 대해 '변화 없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표 IV-84> 해외 인턴쉽의 전망

(단위 : %, 개교)

전망	응답비율
1. 대폭 확대	6%(3)
2. 점진적 확대	79%(42)
3. 현 상황 유지	15%(8)
4. 점진적 축소	0%(0)
5. 대폭 축소	0%(0)
계	100%(53)

<표 IV-85> 해외 인턴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단위 : %, 개교)

관심 정도	응답비율
1. 크게 증가	38%(20)
2. 약간 증가	50%(26)
3. 변화 없음	12%(6)
4. 약간 감소	0%(0)
5. 크게 감소	0%(0)
계	100%(52)

해외 인턴쉽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대학 20개교중 50%인 10개 대학이 '정부의 지원없이 존속 불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점은 해외 인턴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대학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해외 인턴쉽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다. 25%는 학생들의 어학능력의 한계를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20%에서는 해외인턴쉽이 경험에 그칠 뿐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표 IV-86> 인턴쉽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단위 : %, 개교)

	응답비율
1. 정부의 지원없이 존속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50%(10)
2. 해외 인턴쉽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	20%(4)
3. 학생들의 어학능력 한계로 크게 확대 불가능	25%(5)
4. 대학 재정의 한계로 확대에 한계	5%(1)
5. 기타	0%(0)
계	100%(20)

해외 인턴쉽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은 학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어학 평가 기준(31%, 16개교)으로 나타났고, 협력업체 섭외의 어려움이 25%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해외 인턴쉽 제도에 대해 개선을 희망하는 방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의 86%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를 절대적으로 희망

했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지원(43%), 어학능력 평가기준 완화를 통한 참여 가능폭 확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V-87> 해외 인턴십 참여에 대한 장애물

(단위 : %, 개교)

항 목	응답비율
1. 참여 기회의 과소	13%(7)
2. 학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어학 평가 기준	31%(16)
3.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18%(9)
4. 협력 업체 섭외의 어려움	25%(13)
5. 교수 파견에 대한 어려움	6%(3)
6.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6%(3)
계	100%(51)

<표 IV-88> 해외 인턴십 제도에 대한 개선희망 사항

(단위 : %, 개교)

	응답비율(중복응답)
1. 예산확대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86%(42/49)
2. 어학능력 평가기준 완화를 통한 참여 가능 폭 확대	41%(20/49)
3. 일부 비용 본인 부담 유도	14%(7/49)
4. 대학 부담금 추가 축소	27%(13/49)
5.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 지원	43%(21/49)
6. 기타	2%(1/49)

5. 교환 교수 프로그램

각 대학의 교환교수제에 참여한 내외국인 교수들의 대상국가 분포를 조사하였다. 교환교수제도가 운영된 15개 대학에 대해 국내 전문대학을 방문한 외국인 교환 교수의 경우 중국 출신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에서 해외 대학으로 출국한 한국인 교수의 경우 중국이 36%로 많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다양하고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IV-89> 교환교수제에 참여한 내외국인 교수 현황

(단위 : %, 개교)

대상 국가	방문한 외국인 교수	출국한 내국인 교수
1. 중국	22명(81%)	8명(36%)
2. 일본		2명(9%)
3.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3명(11%)	2명(9%)
4. 미국, 캐나다	2명(7%)	4명(18%)
5. 호주		4명(18%)
6. 유럽		2명(9%)
계	27명(100%)	22명(100%)

국내 교수가 파견될 상대 대학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자매 대학 중 결정한다는 대학이 전체의 69%(11개교)로 나타났고, 교수 스스로가 상대대학을 찾는 경우는 25%(4개교)였다. 자매대학 중 상대대학의 요청에 의한 경우와 본 대학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표 IV-90> 교환교수 방문 상대 대학의 결정 방법

(단위 : %, 개교)

	응답비율
1. 자매 대학 중 상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결정	31%(5)
2. 자매 대학 중 본 대학의 요청에 의해 결정	38%(6)
3. 교수 스스로가 상대 대학을 찾아 교환	25%(4)
4. 기타	6%(1)
계	100%(16)

현지 활동 후 귀국하는 교수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 참여 대학 15개교 중 60%인 9개 대학에서 활동보고서 또는 파

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33%에서는 특별한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 활동기간 종료 후 논문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전반적으로 교환교수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인 활동에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별한 의무 조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91> 교환 교수 사후 관리 방법

(단위 : %, 개교)

적용 방법	응답비율
1. 활동기간 종료후 논문 실적 제출	0%(0)
2. 활동 보고서 또는 파견 보고서 제출	60%(9)
3. 특별한 의무 사항 없음	33%(5)
4. 기타	7%(1)
계	100%(15)

교환교수 파견 기간 중 현지에서 대학의 인턴쉽, 교환학생 관리, 재학생 해외 연수 등 여타 국제 교류 프로그램한 기여 여부를 질문하였다. 응답은 다음 표와 같 약간 돕고 있다는 응답이 38%, 매우 활발하게 돕고 있다는 응답이 31%로 전체 69%의 교환 교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학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현지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2> 교환 교수 기간 중 여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

(단위 : %, 개교)

기여도	응답비율
1. 특별히 기여하는 바 없음	23%(3)
2. 약간 돕고 있음	38%(5)
3. 매우 활발하게 돕고 있음	31%(4)
4. 지역 차이나 수업 환경등으로 기여 불가능한 상황	8%(1)
5. 파악할 수 없음	0%(0)

계	100%(13)
---	----------

<표 IV-93> 교환 교수제도가 교수의 연구능력, 강의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개교)

영향 정도	응답비율
1. 매우 크게 기여	14%(2)
2. 약간 기여	57%(8)
3. 보통	29%(4)
4. 기여하지 않음	0%(0)
5. 전혀 기여하지 않음	0%(0)
계	100%(14)

외국인 교환 교수가 국내에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어학관련 강의직접 참여(78%), 전공 관련 강의 직접 참여(56%),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56%) 순이었다 이미 출신 국가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내 초청 교환 교수는 주로 중국어 어학 관련 교환교수 초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IV-94> 외국인 교환 교수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역
(단위 : %, 개교)

영역 구분	응답비율(중복응답)
1. 한국인 교수들과의 공동 연구	0%(0/9)
2. 어학 관련 강의 직접 참여	78%(7/9)
3. 전공 강의 직접 참여	56%(5/9)
4. 개인 연구	22%(2/9)
5.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6%(5/9)
6.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조언 등 외국 교육 시스템의 국내 접목	11%(1/9)
7. 가시적인 활동 없음	0%(0/9)

외국인 교환 교수의 초청이 주로 어학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국내 교수의 해외 파견은 주로 개인적인 연구 활동(54%)과 소속 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54%) 측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전공이나 어학 관련 강의 참여도는 낮게 나타나 외국인 교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IV-95> 한국인 교환 교수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역

(단위 : %, 개교)

영역 구분	응답비율(중복응답)
1. 외국인 교수들과의 공동 연구	38%(5/13)
2. 한국어 언어 강의 직접 참여	23%(3/13)
3. 전공 강의 직접 참여	15%(2/13)
4. 개인 연구	54%(7/13)
5. 소속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4%(7/13)
6. 학위 과정 이수	15%(2/13)
7. 가시적인 활동 없음	8%(1/13)

6. 분석결과의 요약

가. 국제화 프로그램

☐ 유학생 유치 중심의 단조로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유학생유치, 해외 인턴쉽,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현지학기제, 교환학생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각 프로그램별 참여 대학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제화 프로그램들은 대학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다.

□ 최근의 각 대학별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학생 유치, 해외 인턴쉽, 공동학위제, 복수학위제 등으로 퍼져나가며 외국인 유학생 수의 대학 평가 요소 반영을 비롯한 교육부의 정책적 유도, 해외 인턴쉽 등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나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크게 증가시키며 대학중심의 독자적 형태를 갖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 국제화 프로그램 전반, 즉, 유학생 유치, 현지학기제, 복수학위제, 공동학위제, 교환교수제, 학점 교류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60~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을 통해 다원적인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협력 국가 다변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유학생 유치

□ 교육부의 'Study Korea Project'와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 대한 대학 평가요소 반영 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대학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 지방 4년제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전문대학들은 여기에 떠밀려 상대적인 경쟁력을 잃거나 유학생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유학생 사업을 포기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수도권 대학들이 2006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 중 속속 유학생 유치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는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뿐 아니라 전문대학 내부에서도 유학생 유치를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켜 과도한 학비 감면으로 교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대학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들 간의 국제교류 담당부서 협의회와 같은 협의 조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의 IDP 형태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에서는 전문대학들 간의 해외 공동 마케팅 뿐 아니라 적정 학비 수준 유지를 통한 전문대학 유학의 질 관리, 불량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 학생 유입 소지 억제, 해외에서 전문대학의 정확한 직업 교육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동 홍보, 전문대학 유학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유학 보증 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신입생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의 참여가 늘고 그동안 유학생 유치를 해왔던 대학간 과도한 경쟁으로 유학생 사업의 수지가 악화되면서 대학의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대학 재정 확충'에서 '대학의 국제화된 이미지 형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유학생 유치 사업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설정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04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학부 1,2학년생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면서 한국어 과정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그동안 발생된 여러 문제를 근거로 조선족 등 재외동포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한국어 교육 과정을 생략한 채 '속성 졸업'을 지

향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학부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학부 유학생 수의 정체 현상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조사 대상 대학이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2년전에 비해 유학생 수, 특히 학부 재학생은 거의 정체 상태로 있고 이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유학생 이탈, 경쟁적 학비 감면)들로 인해 유학생 유치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수도권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시장 진입과 이에 따른 학생수 증가 효과는 2년후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 수의 증가율도 최근 2년간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157%→86%→1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대학들의 노력과 국제교육진흥원의 유학박람회 개최 등에 힘입어 유학생 출신국가가 중국 편중 현상을 벗어나 베트남, 몽골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아직도 중국의 비중이 83%에 달하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하면 97%에 이른다는 점은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대학 내 국제화 마인드 형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유학원이나 관련 회사를 통해 쉽게 학생을 모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를 돌며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현지사무소 뿐 아니라 한국어 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 유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해외 홍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 일부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전략 학과 위주의 홍보 활동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전방위적 학과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대학에 비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문대학으로의 유학이 직업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졸업한 학생의 사례에서 보면 거의 70%이상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외국 유학생에 대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실현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취업 제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들의 연장체제 욕구를 해소시킬 만한 방법이 편입이외에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는 하나, 전문대학 유학이 단순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유학 창구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 4년제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활성화 됨에 따라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사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 유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53%의 대학이 비자 발급, 아르바이트 허용 폭 확대, 산업 연수생 제도 연결 등 행정제도, 법규 개선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고 27%에서는 기숙사, 어학시설등 유학생 교육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점진적으로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유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내 대학간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학비 감면과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화 문제가 계속 순환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유학생 교육환경 평가나 유학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 대학에서 적극적인 찬성을, 59%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전체의 79%가 인증제나 유학생 관리 대학 평가 등 질 관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제공동 학제

□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는 그 절차상 2년~3년제 학제를 갖는 전문대학 보다는 4년제 대학에 적합한 제도이나 전문대학들이 나름대로 전문대학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대학에서 공동학위제나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 공동 학제는 전문대학의 학제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미 뉴질랜드나 영국의 대학들이 학제자유화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공동 학제를 운영한 바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정 기술 개발 시점을 중심으로 4년제 대학은 기술에 선행하면서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학은 기술에 후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교육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그 교육 대상 뿐 아니라 해외 협력 방향에 있어서도 4년제 대학이 선진국 대학과의 공동 운영을 지향할 때 전문대학은 개발도상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등, 4년제 대학과 차별화 되어야 하나 현재의 국제공동 학제는 그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국가가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몽골 순이라는 점과 4년제 대학의 유학생 유치 국가가 중국-일본-미국 순이라는 점은 이러한 외국 교육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 학제 영역에서도 전문대학에서는 선진국 대학과의 협력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가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국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복수 /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제빵, 패션, 디자인,

호텔 전문기술학교와 같이 고도로 특성화하고 college라는 명칭을 벗어나 별도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브랜드화의 추진은 전문학사학위(Associate degree)라는 국제적으로 애매한 학위를 수여하는 현 학위제도에 비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라. 해외 인턴쉽

□ 해외 인턴쉽 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문대학에 전파되고 있고 학생으로부터의 반응도 매우 좋으며 그 대상국가에 있어서도 여타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달리 중국 일변도의 협력 체계를 벗어나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축소/중단 될 경우 거의 동시에 축소/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7%의 대학이 정부보조에 프로그램 운영을 연동함). 현재의 재정적인 지원은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대학별 독자 추진이 가능한 형태의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교환 교수제

□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파견 교수들이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문대학에서와 같이 국제 교류에 대한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교환교수제를 활용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간 서명을 하는 협

약 위주의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전문대학 교환교수제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이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
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2.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3.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
-

V.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전문대학 교육의 국제화는 대학의 국제화된 이미지 형성에서부터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는 체질개선을 통한 더 큰 도약을 해야 할 시기로서, 우리나라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을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

□ 국제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정과 비전 정립

-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통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대학 구성원에게 국제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정립·제고하여야 한다.
- 국제화에 관한 연구와 토론, 특강, 세미나, 워크숍 등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교수·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화에 대한 의식 제고 운동을 강화한다.

□ 대학내의 국제화 업무에 대한 전문화 추진

- 국제화 분야의 업무가 적지 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도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 이를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현지 사무소나 교육원 설립 등 과감한 현지화 추진 및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 이미 거의 모든 4년제 대학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독립적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한 전문대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보직자가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 대학의 내부적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에 있어 양적 팽창이 이미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있는 지금 대학의 내부적인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이는 4년제 대학에 비해 2-3년의 짧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전문대학에서는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 효율적이고 강력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제공, 외국인 선호 전공에 대한 유학생 특별반 편성, 유학생 전용의 교양과목 개설, 입학 전 청강 제도의 활성화, 문화 이해를 위한 외부 활동 등 유학생의 학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국제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 교수·학생의 외국어 교수·학습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교수 채용시 외국인 교수의 비율을 확대하고, 교수 및 학생의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편성을 강화한다.
- I-zone이나 유학생 전용 기숙사 등 시설 개선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교과과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
 - ※ 호주 등과 같은 외국은 국가가 인증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는데 반해, 우리 대학은 그렇지 못함
- 교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수법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 학기 기간의 연장과 수업시간의 확대와 같은 수업기간의 국제화를 모색한다.

□ 전문대학의 영문학위 명칭 및 대학 명칭의 통일화

- 국내 전문대학에 대한 외국대학들의 혼란 방지, 정부의 통일된 인증지원의 원활화, 국제적 표준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의 영문학위 명칭 및 대학 명칭을 통일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국내 전문대학을 표기하는 가장 일반화된 용어는 ‘college’이며,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사를 표기하는 가장 일반화된 용어는 ‘associate degree’이므로, 용어 사용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외국 학생들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외국대학과의 교류에 있어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bachelor’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표기하거나, 대학명에 있어서도 ‘college’가 아닌 ‘university’를 표기하여 마케팅 활동을 벌여나가는 전문대학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문대학에 대한 외국대학들의 이해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부의 통일된 인증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영문명칭은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으로의 개편과 맞물려 차후에 새로운 용어의 통일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전문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의 개발

-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되고 전문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특성화된 학과나 제도를 통해 전문대학의 장점이 알려져 있으나 해외에서는 단지 2-3년제 대학이라는 점 이외에는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 이로 인해 전문대학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저하되거나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해 거쳐 가는 대학으로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들의 유치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전문대학이 설자리를 점차 잃게 되는 것이다.
- 한국 전문대학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공동 홍보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 특성화된 전략학과 위주의 브랜드화 추진을 통한 마케팅 활동

- 복수학위제나 공동학위제와 같은 국제 공동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ollege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제빵, 패션, 디자인, 호텔 전문기술학교와 같이 고도로 특성화된 전략학과 위주의 별도 브랜드화 추진을 통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 ※ 현재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는 학과보다는 대학 전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전문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을 인터뷰해보면 자동차과나 호텔경영 등 특정학과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자동차, 미용, 관광, 디자인 등 우리 전문대학들의 주 유치 대상 국가인 중국, 베트남, 몽골의 학생이 선호하면서 전문대학의 특성화 된 학과들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유치 대상에 있어 4년제 대학과 분명한

차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된 학과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4년제 대학들의 학과구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면 대부분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유학특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 ‘쉽게 올 수 있는 유학’에서 ‘갖춰진 학생이 올 수 있는 유학’으로 전환

- 많은 학생의 유치보다는 그 수는 좀 적더라도 확고한 학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특히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
- 자매 대학을 통한 유학생 유치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나 자매 고교나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선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지 국내에 전달된 학생 서류만을 보고 그 학생의 수학능력이나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 비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반드시 면접을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입학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 내부 교직원이나 캠퍼스 주변 거주 지역주민이 의뢰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보증과 검증이 필요하다. 사소한 선발 실수 하나가 그 대학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유학생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학생 불법 체류의 문제 해결과 유학생의 높은 유학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업료를 책정하고, 학비 체계를 고쳐 한국어 과정이 ‘준비된 학생’을 위한 문턱의 역할을 하고 본과 진학 후에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외국 대학의 경우 어학과정의 수업료를 충분히 책정하여

프로그램이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입학에 대한 예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 ※ 가벼운 한국어 과정 학비는 많은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지만, 정작 본과 진학 이후에는 과중한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유학생 국적의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 대학에서는 좀 더 긴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유학생 국적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 ※ 현재의 중국 경제 규모의 성장이나 교육 시설의 개선 추세로 볼 때 중국 유학시장은 빠른 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장에서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 유학생의 언어 습득 속도 저하, 한국 재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인식의 기회 축소, 장기적인 유학생 수급 구조의 불안, 학생 관리의 어려움, 교육의 다양성, 현지 취업 관리 측면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유학생들에 대해 취업경로 구축과 같은 진로지도의 강화

-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학생의 진로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서,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고도 진로지도의 부재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귀국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현재 전문대학에 유학 온 외국 학생 중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4년제 대학들과 진학관련 협약을 맺고 학생 본인이 동의할 경우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학생 유치와 이탈 방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대학 유학이 단순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유학 창구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영진전문대학의 국제연계 주문식교육 프로그램처럼 현지에 투자한 국내기업과 학생을 연결시켜 졸업이후에는 그 회사의 현지 투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취업지도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

□ 유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학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 개발도상국 대학들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1+2, 2+1, 1.5+1.5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학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규 학위과정 뿐 아니라 비학위과정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

□ (가칭) 전문대학 국제교류 담당자 협의회의 설립

-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전문대학 국제교류 담당자 협의회’를 설립하여 전문대학 유학생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호주의 IDP와 같은 조직으로 키워 나감으로써 전문대학 국제교류 사업 전 분야의 동반 발전을 꾀한다.
- 불량 유학원 정보 등 신규 참여 대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
- 전문대학 유학 박람회 등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 해외 유학생 유치 네트워크 공동 구축
- 합리적 출입국 정책, 산업인력 양성 정책 연계등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 전문대학 유학생 기반 시설에 대한 교육부 지원 요청
- 유학생 부실 관리에 대한 자정 활동을 추진
- 중국 등 주요 유학 시장 내 공동 연락 사무소 운영 (학생 유치, 대학 별 유치 인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검증 작업, 유학졸업생에 대한 현지 취업 알선, 전문대학 동문회 운영 등 추진)
-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 인증제 등을 통한 전문대학 투자 유도 및 전문대학 이미지 개선책 주도
- 전문대학 유학 보증제 실시를 통해 전문대학 유학에 대한 안정성 보장 제도 실시
- 별도 협의회 설립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국제 교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3.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

□ 유학의 질 관리 체제 구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교육부 차원의 유학 교육 인증 체계 확립)

- 유학생 유치 정책을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유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유학생 교육환경 평가나 유학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학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국내 대학간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학비 감면과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화 문제가 계속 순환되면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 유학생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대학별 평가와 정부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학과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유학생 유치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Study Korea 프로젝트에서도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과 더불어 교육 내용에 대한 질적 관리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하여 호주의 ESOS, CRICOS와 같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대학별 평가는 전담부서, 전담 교직원 및 유학생 전용 시설 확보 여부, 어학과정의 운영실태, 학생 관리 실태, 재학생들의 유학 만족도 평가,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유무 등을 종합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인증 우수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사용, 대학별 차등 지원시 우선 지원 대학 선정, 정부 초청 장학생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 등을 허용해야 한다.

□ 학생·학점 교류의 활성화

- 국내외 학생들 간의 학점교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점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 전문대학들과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대부분의 국내 전문대학들은 많은 해외 전문대학들과 자매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의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 학생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 대학에서의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범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현재: 졸업학점의 1/2까지 인정)
- 학생의 전공 관련분야 외국대학, 산업체 인턴십 기간, 해외 연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문대학생에 대한 해외 인턴십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 전문화를 위한 외국인 직원 고용 허용

-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대학에 한하여 한정된 인원(대학당 1명 내외) 내에서 외국인의 계약직 대학 직원 채용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전문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유학을 국가적인 사업화하고 있는 호주나 말레이시아등에서는 이미 주요 마케팅 대상 국가 출신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식 취업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의 출입국 관리법상 대학 내 유학생 유치 전담 외국인의 채용이 불가하여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석 박사과정 외국인 학생을 조교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대학들은 전문가가 없어 현지 에이전트나 해당 국가 대학에 크게 의존하여 처음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Gold Card 제도의 전문학사 학위 확대 시행

- Gold Card 제도를 확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대학에서 배운 직업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전문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는 유학생 이탈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Gold card 제도의 시행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BT, IT, NT 관련 전공자들은 합법적인 취업의 기회가 생겼고 올해까지 이미 500여명의 수혜자가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졸업생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에 편입을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문대학 고유의 ‘직업교육’과 ‘특성화’의 의미를 희석시키게 된다.

- Gold card제도의 확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성적 이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 내외의 현장 실습(연수)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정부 초청 유학생의 대상대학에 전문대학 포함

- 개발도상국 학생들 중 자동차, 전자, 컴퓨터 등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도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 교육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초청 유학생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전문대학은 정부 초청 유학생의 대상대학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대치할 유학생용 외국인 등록증 발급

- 교육부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전산등록 시스템을 전제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유학생에 대해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을 대신할 외국인 학생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는 일반 외국인과 구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의 차단이 좀 더 정확해질 뿐 아니라 산업연수생과 유학생의 신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유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할 수 있다.

□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별도영역으로 국제화 사업 지원

- 현행처럼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계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별 특성화 사업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제화 사업영역을 별도로 추가하여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고 특성화된 국제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가 포함된 특정 사업의 특성화 보다는 국제화 그 자체로 특성화하는 대학의 출현이 필요하다.

※ 올해부터 교육부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 중 일부로 대학의 국제화 지표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모든 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있어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이 사업의 채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제화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사업마다 어느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 대학과의 교류가 포함되어야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문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강화

-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 정부의 현행 유학생 유치 지원 정책과 유학생 출입국 및 취업정책은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전문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 법정화된 시설(기숙사, 어학원 등)의 확충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행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속·확충되어야 한다.
 - 전문대학에서와 같이 국제 교류에 대한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교환 교수제를 활용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환교수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해외에 파견된 전문대학 교수는 연구에만 집중하는 4년제 대학 교수들과는 달리 전문대학의 국제교류에 있어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 교수들의 해외 파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 정책적으로 전문대학의 교수 해외 파견 지원을 확대하면 해당 대학의 국제 교류도 크게 활성화

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쓰는 홍보비 등의 일부를 외교통상기금의 지원 등을 통해 대학에 환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외국 및 국내 대학의 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외국의 교육제도와 대학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와 국내 전문대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database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하여 국제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별 전문대학이 아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 해외 교육원조시 전문대학 교육 프로그램 참여 추진

- EDCF 기금 원조로 해외 직업 교육 시설 또는 직업 기술 대학 설립시 전문대학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전문대학 자체의 자금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 교육원조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많은 해외 직업 교육 수출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진출을 추진하는 계기와 기반이 될 것이다.

□ 해외 교육수출의 지원

- 아·태지역의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마련을 전제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을 통한 국내 전문대학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과 유학생 취업 우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 유학 졸업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및 국내 자격증 취득 유학생들의 현지 한국기업 취업 우대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기업과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한 우수대학을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 취업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현지의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job site를 구축하고 여기에 인력을 가진 대학들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 해외에 직접 또는 현지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의 자율화

- 전문대학의 짧은 학제기간으로 인해 어학과정까지 포함하는 복수학위제를 진행하기는 무리가 따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학과별 수업연한을 학교(학과)의 보유역량에 따라 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 현행 전문대학의 2~3년제 학제로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학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두 학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년제의 경우 현지에서 1년, 국내에서 1년을 진행한다면 어학 연수기간으로 인해 실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4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 ※ 또한 국제적 표준화(global standardization)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외국 대학들과의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과의 수업기간과 학위수여 등을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무섭(1987),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강성원(1999), “21세기 전문대학의 발전방향”. 『전문대학교육』 (32호).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pp. 64-81.
- 강성원·장원섭·김형만(2000),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연구, 2000년 교육부 정책연구.
- 강숙희(2001), 「APEC 사이버교육 협력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일규(2001), 「재외동포 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 촉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난주(1994), 국제화와 대학교육의 문제, 고등교육연구
- 김석현(1998). “국제교육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 『교육진흥』 (38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p. 166-79.
- 김선근(1997). Global Sourcing을 위한 산·학·연의 국제협력 수요분석-과학기술 부문-.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김우상외(1996).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선 종합연구. 서울: 교육부.
- 김우종(1993), 한국대학의 국제화 교육방안, 어문학연구
- 김혁영(1996), 상허의 교육이념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구현방안, 상허사상학생연구논문
- 신대식(2002), ‘전문대학 교육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토론,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 고학용(2000), 대학의 개방과 대응전략, 조선일보
- 교육부(1999), 「아·태지역 국가간 학술 및 교육교류 확대방안」
- 교육부(1999), 「Education in Korea」 국제교육진흥원(2003), 「동북아 중심국가 지향을 위한 국제교육 진흥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 교육정책포럼(2003), 경쟁력 국제화로 승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재(2000), 「21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의 새패러다임」, 『국제교육 협력추진 계획과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박수연(2001), 원격교육을 통한 대학의 국제화, 고등교육연구
- 박응수(2003), 「중국의 직업교육제도」, 『전문대학소식』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박응수(2004),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전략」, 『전문대학소식』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어운태(2003), 경쟁력 국제화로 승부한다(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8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0년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근남(1997), 「유네스코 교육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성(2003), 「전문대학교육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인적 자원 개발」, 『직업과 인력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기성(2004), 전문대학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력자원개발,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이길순(2000),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운영 실태와 발전과제, 200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최된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 이남철외(2000), 「전문대학에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이남철(1999). 직업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기(2003),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식(2004),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훈(2000). “국제학생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의 새 패러다임. 국제협력담당자 세미나

나 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용주·김성국·박경희·신경식(2001), 대학의 효과적 국제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 이영현, 이남철, 이지연, 홍선휘(1997). 직업교육훈련의 국제협력 방안연구. 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청외(1999). 대학간 교류 활성화 및 고등교육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천순(2000), 「21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교육 협력의 새 패러다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조류와 과제-국제기구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정동근(1994). “교육시장 개방과 전문대학의 진로”. 전문대학교육(15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p. 64-81.
- 정지선외(2003), 「전문대학과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학위과정 공동운영 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정진화(2002),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 『산업경제』 2, 산업연구원.
- 주용국·손유미·윤여인(2002),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및 만족도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2),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장창원·임언·김영화(2000),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2000년 교육부 정책연구.
- 한국교육개발원(2000), 「2000 국제교육백서」, 교육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999). 1998 일본사립단기대학백서-단기대학 21세기를 향해-.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유경(1998), 「OECD국제교육지표 사업참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한유경(2000), “새로운 국제교육 협력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교육발전을 위한 국제교육협력의 패러다임」, 한국교육개발원.

「中國教育報」2004년 3월 19일자

法務省 入國管理局, 「平成14年における留學生等の日本企業等への就職状況について」, 2003년 7월

(www.moj.go.jp/PRESS/030708-1/030708-1.html)

文部省 高等教育局留學生課, 「我が國の留學生制度の概要-受入れ及び派遣」, 平成15年 5月.

文部省 中央教育審議會, 「新たな留學生政策の展開について-留學生交流の擴大と質の向 上を 目指して-」, 平成 15年 12月 16日.

江淵一公(1997). 大學國際化の研究. 玉川大學出版部.

地域科學研究會高等教育情報センター(1995). 短期高等教育システムの新たな可能性.

松井眞知子(1997). 短大はどこへ行く, 勁草書房.

東京都私立短期大學協會(1999). 短大データブック.

大學審議會(2000), クローバル化時代に求められる高等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

Alexander. S. & Blight D.(1996). *'Technology in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Paper Presented to the 1996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on Technologies for the New Millennium.*

Bernbrock.C.W(2000), *open education: New role for policy makers in promoting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s for cyber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PEC international Roundtable

Carnevale, Anthony. P(1999). *Community Colleges and Career Qualifications in The New Expeditions.* Washington, D.C.: AACC/ACCT Press.

Chase, Audree M., James R. M.Ahoney(1999). *Global Awareness of Community Colleges: A Report of a National Survey.* Washington, D.C.: Community College Press.

Commission on the Future of Community Colleges(1988).*Building*

- Communities: A Vision for a New Century*. Washington, D.C.: Community College Press.
- Daniel. J.(1995), *Mega-Universities and Knowledge Media: Technology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 Davis, Todd. M(1998). *Open Doors 1997/98: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New York: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Knight. J.(1997)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EAIE/IDP.
- KOICA(1999).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s*. Seoul: KOICA Publishing.
- OECD(2000),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Paris : OECD publication
- OECD(2002), *OECD growth project background papers*, OECD publication
- Parnell, Dale(1993). *The Neglected Majority*. Washington D.C.: The Community College Press.
- Rend, Laura(1999). *Fulfilling the Promise of Access and Opportunity: Collaborative Community Colleges for 21st Century in The New Expeditions*: Washington, D.C.: AACC/ACCT Press.
- Rosenfeld, Stuart. A(1995). *New Technologies and New Skills: Two Year Colleges at the Vanguard of Modernization*. Chapel Hill: Regional Technology Strategies, Inc.
- UNESCO(1996). *World Guide to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urvey of Systems, Degrees and Qualifications*. Paris: UNESCO Publishing.
- UNESCO(1997). *Statistics Yearbook 1997*, Paris: UNESCO
- Zeiss, Tony & Associates(1998). *Developing The World's Best*

Workforce Washington, D.C.: Community College Press.

www.moe.edu.cn/news/2004_03/12.htm

www.cedudaily.com/gb/2004/03/19/zy/jryw/5.htm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jp/NYUKAN/index.html)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JEES, Japan Educational Exchanges and Services)

홈페이지 (www.jees.or.jp/sc-scholarship/index.htm)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www2.jasso.go.jp)

호주 대학교 총장협의회(www.idp.com)